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 아이마라어의 화제와 초점

- 한국어 정보구조와의 유형론적 대조 연구 -

2015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어학과 언어학 전공

정 승 철

# 아이마라어의 화제와 초점

- 한국어 정보구조와의 유형론적 대조 연구 -

지도교수 권재일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 년 11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어학과 언어학 전공

정승철

정승철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 년 2 월

위원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원 \_\_\_\_\_ (인)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아이마라어의 화제와 초점을 중심으로 아이마라어 문법을 보다 정확하게 기술하는 데 그 첫 번째 목적을 두고 있다. 아이마라어의 정확한 기술은 자신들의 모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아이마라어 화자들의 노력에 큰 도움과 자극이 될 것이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에서 시도되고 있는 언어·문화 다양성 보존 노력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두 번째 목적은 한국어와의 대조를 통해 아이마라어의 화제와 초점 표지를 유형론적 관점에서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보구조 표지의 유형론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어 정보구조의 유형론적 특성과 더 나아가 보편적 정보구조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정보구조는 문장에서 화제와 초점을 표현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화용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원어민이 아니면 쉽게 분석하기 힘든 영역이다. 하지만 아이마라어는 한국어와 문장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동일한 문맥에서 각각의 문법 표지 실현 양상을 대조하면 그 기능과 성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게다가 아이마라어는 관련 형태소들이 화제-초점 기능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보구조 연구의 가장 좋은 소재이고, 한국어는 그 동안 관련 연구가 많이 축적되어 있어서 적절한 문맥과 예문들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의 대조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Kuno(1972), Vallduví(1992) 등의 정보구조 이론과 이를 한국어에 적용한 박철우(1998)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일반적 화제-초점, 제언문, 대조성, 한정성, 담화 기능 등이 아이마라어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조사하고 한국어와 대조하였다. 그 결과 두 언어의 해당 형태소들이 상당한 범위의 문맥에서 동일하게 기능한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한편, 두 언어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이마라어 초점표지 {-wa}가 초점에만 결합하는 것과 달리, 이에 대응되는 한국어 {-가}는 초점이 아닌 경우에도 나타나므로 단순한 초점표지가 아니다. 둘째, 한국어의 화제표지 {-는}은 화제가 없는 제언문에서 나타날 수 없는 반면, 아이마라어 화제 관련 표지 {-xa}는 제언문에서도 쓰이기 때문에 화제표지라고 할 수

없다. 셋째, 각 언어에서 중출 구조가 가능한 표지로 한국어는 초점 관련 표지 {-가}가, 아이마라어는 반대로 화제 관련 표지 {-xa}가 있다.

이 차이점들은 아이마라어의 중출 가능한 화제 관련 표지 {-xa}와 한국어의 중출 가능한 초점 관련 표지 {-가}가, 화제도 초점도 아닌 ‘바탕(tail)’ 성분에 결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Vallduví(1990) 등의 정보구조 삼분체계 ‘화제-바탕-초점(topic-tail-focus)’의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었고, 이 삼분체계의 각 부분이 어떤 표지로 실현되느냐에 따라서 정보구조 문법표지 실현의 유형론을 새롭게 수립할 수 있었다.

정리하면, 아이마라어와 한국어는 유형론적 관점에서 동일한 ‘정보구조 부각 언어’이다. 이 언어들의 특징은 화제와 초점에 각각 대응되는 문법표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화제-바탕-초점 삼분구조 중 바탕을 표시하는 기제 또한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중에 아이마라어는 두 표지가 각각 초점과 배경(화제+바탕)을 표시하므로 ‘초점-배경 정렬’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한국어는 두 표지가 각각 화제와 논평(초점+바탕)을 표시하므로 ‘화제-논평 정렬’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아이마라어의 화제 관련 표지 {-xa}는 ‘배경표지’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 이에 대한 증거로, {-xa}는 종속절을 만드는 기능도 하는데, 그때의 의미와 기능이 ‘배경 제시’라는 점도 새롭게 밝혔다. 즉 아이마라어 {-xa}는 명사구에 결합하든 절에 결합하든 단일한 ‘배경표지’의 기능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수립한 아이마라어 정보구조 유형 분류를 의미론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지해준다.

이 연구에서 아이마라어 문법을 새롭게 기술하고 정보구조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새롭게 밝힐 수 있었다는 점은 언어 기술과 언어유형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기존의 참조문법은 빈약하게 기술된 문법범주가 많기 때문에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기술하고 분석해야 한다. 이때 언어 전체가 아니라 세분화된 문법범주를 대상으로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개별 언어의 문법을 새로 기술하는 작업은 새로운 유형론 제시를 통해 언어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언어학 연구에 핵심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덧붙여,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가 아이마라어의 ‘잘 기술된 닳은 꼴 언어’로서 개별 언어 기술과 분석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한국어라는 훌륭한 자산을 가진 우리 언어학계가 언어학 전반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혔다는 데에도 작은 의의를 부여할 수 있겠다.

주요어 : 정보구조, 화제, 초점, 바탕, 유형론, 아이마라어, 배경표지

학 번 : 2013-20033

# 차 례

<b>제 1 장 서 론</b> .....	<b>1</b>
1.1. 연구 목적 .....	1
1.2. 연구 방법 .....	3
1.2.1. 현장 조사 .....	3
1.2.2. 분석 방법 .....	5
1.3. 논의의 구성 .....	8
<b>제 2 장 선행 연구 검토</b> .....	<b>11</b>
2.1. 정보구조 일반 이론 .....	11
2.1.1. 정보구조 연구사 .....	12
2.1.2. 정보구조 관련 문법이론 .....	14
2.1.3. 정보구조의 삼분체계 .....	16
2.2. 한국어의 정보구조 연구 .....	18
2.2.1. 통사적 화제와 담화 화제 .....	18
2.2.2. 구정보와 신정보 .....	19
<b>제 3 장 정보구조의 유형론</b> .....	<b>22</b>
3.1. 개관 .....	22
3.2. 화제와 초점의 확인 .....	23
3.3. 화제부각 언어 .....	26
3.4. 초점부각 언어 .....	32
3.5. 요약 및 논의 .....	35

<b>제 4 장 아이마라어 문법 특징</b> .....	<b>37</b>
4.1. 개관 .....	37
4.2. 아이마라어 문법 특징 .....	37
4.2.1. 아이마라어의 기본적 구조 .....	37
4.2.2. 아이마라어 동사의 인칭 활용 .....	45
4.2.3. 아이마라어의 명사화 .....	47
4.2.4. 아이마라어의 관계절 .....	50
<b>제 5 장 아이마라어의 정보구조</b> .....	<b>54</b>
5.1. 개관 .....	54
5.2. 화제-초점의 문장 유형 .....	55
5.3. 초점의 실현 양상 .....	57
5.3.1. 아이마라 명사구 구조와 화제-초점 표지 .....	57
5.3.2. 일반적인 초점의 실현 .....	61
5.3.3. 제언문의 초점 .....	66
5.3.4. 초점 실현의 예외 .....	69
5.3.5. 부정문과 유표적 어순의 초점 .....	71
5.4. 화제의 실현 양상 .....	73
5.4.1. 화제의 문두성 .....	73
5.4.2. 대조적 화제 표지 .....	73
5.5. 아이마라어 정보구조의 특성 .....	75
5.5.1. 특정성과 화제 표지 .....	75
5.5.2. 담화 속 화제 .....	78
5.6. 정리 및 요약 .....	80



<b>제 6 장 한국어와 아이마라어의 화제-초점 대조 및 정보구조 표지 실현의 유형론</b> .....	<b>82</b>
6.1. 개관 .....	82
6.2. 한국어와 아이마라어의 화제-초점 대조 .....	83
6.2.1. 제언문의 대조 .....	83
6.2.2. 동일격 중출 구조의 대조 .....	87
6.3. 화제-초점 표지 분포 및 기능의 차이점 .....	91
6.4. 정보구조 표지 실현의 유형론 .....	95
6.5. 배경표지의 증거 : 아이마라어 종속절 .....	97
6.6. 정리 및 요약 .....	101
 <b>제 7 장 결론</b> .....	 <b>103</b>
7.1. 요약 및 향후 과제 .....	103
7.2. 제안 .....	105
 <b>참고문헌</b> .....	 <b>107</b>
 <b>Abstract</b> .....	 <b>113</b>

## 약어 표기

1P	1st person (simple tense)
2P	2nd person (simple tense)
3P	3rd person (simple tense)
4P	1st person inclusive
2>1P	2P subject, 1P participant
1>2P	1P subject, 2P participant
3>1P	3P subject, 1P participant
3>2P	3P subject, 2P participant
ACC	accusative
ALT	alternative question
ASP	aspect
ATN	attenuator
AUX	auxiliary verb
BG	background
CAUS	causative
CONTR	contrastive
COP	copula
CREL	corelative
DAT	dative
ERG	ergative
EX	exclusive
FOC	focus
FUT	future tense
GEN	genitive
IMP	imperative
INCL	inclusive
INST	instrumental
NEG	negation
NMZ	nominalizer
NOM	nominative
PAST	past tense
PL	plural
POS	possessive
PREV	preverb
Q	Interrogative
REL	relativizer
SS	sentence suffix
SUB	subordinator
TOP	topic

# 제1장 서론

## 1.1. 연구 목적

아이마라어는 남미 안데스 산맥을 중심으로 볼리비아<sup>1)</sup>, 페루, 칠레 등지에서 사용되는 토착 언어로서 3백만 정도의 화자가 사용하고 있다.<sup>2)</sup> 이 연구는 화제와 초점을 나타내는 형태소를 중심으로 아이마라어 문법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데 그 첫 번째 목적을 두고 있다. 아이마라어는 한국어와 계통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상당히 많은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이마라어 문법은 이미 잘 기술되어 있는 한국어와의 대조를 통해 더 세밀한 접근과 분석이 가능하다.

아이마라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SOV 중심의 자유로운 어순, 교착어로서의 어근-접미사 구조, 수식어-피수식어 구조, 부동사 또는 연결어미로 이루어진 복문구조 등을 꼽을 수 있다. 그 외에도 문맥에 따라 문장성분이 쉽게 생략되고, 한국어의 보조사와 같은 접사가 발달했으며, 어미를 통해 시제, 양태 등의 범주를 표현한다는 점에서도 한국어와 비슷하다. 이 연구에서 가장 주목하는 점은 아이마라어의 정보구조, 즉 화제와 초점이 문법 형태소로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 체계

---

1) 볼리비아 인구는 약 천만 명 중 케추아족 25%, 아이마라족 20%, 기타 원주민 10%, 메스티소 30%, 백인 10%로 원주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볼리비아의 원주민들은 스페인 식민지 시기를 거쳐 4백년 이상 스페인 문화의 지배 아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데스의 독특한 언어와 문화를 꾸준히 지켜오고 있다. 볼리비아는 아이마라족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 국명을 '볼리비아 다민족 공화국'으로 바꾸고 원주민들의 언어와 문화를 되살리는 데 더욱 힘을 쏟고 있다.

2) 아이마라어와 문법 구조가 유사한 언어로는 화자가 천만에 이르는 케추아어가 있다. 두 언어의 화자들은 티와나쿠 문명(기원전6-12세기)부터 잉카 문명(13-16세기)까지 남미 대륙의 중심을 지배한 민족이다. 아이마라어와 케추아어는 계통적으로는 관련이 없지만 오랜 기간 접촉을 통해 유사한 문법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통설이다(Adelaar and Muysken 2004). 둘은 문법이 상당히 유사하고, 상당한 양의 어휘를 공유하고 있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관계와 유사한 측면이 있어서 언어 접촉사 또는 지역언어학 차원에서 흥미로운 주제로 보인다.

가 한국어와 유사하다는 점이다. 반대로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복잡한 인칭활용, 명사구 뒤의 소유인칭 접사, 명사성의 형용사, 부정부사의 자유로운 어순, 피동 접미사의 부재 등인데, 한국어와의 광범위한 유사성에 비한다면 일부 범주에 국한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아이마라어의 화제와 초점을 중심으로 정보구조 표지의 유형론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밝히는 것이다. 기존의 서양 학자들이 기술한 아이마라어 참조 문법에서는 이 표지들이 화제와 초점을 나타낸다고 언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예를 들면, 화제 관련 표지인 {-xa}는 ‘알려진 제약이 없이 모든 유형의 문장에 나타나는’<sup>3)</sup> 다양한 기능을 가진 문장접사 정도로 설명하였다(Hardman 2001: 171, 183). 그러나 이 형태소들의 기능과 용법은 한국어와 유사하기 때문에, 정보구조 관련 연구가 축적된 한국어와의 대조를 통해 유형론적 관점에서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작업은 단지 아이마라어를 더 정확하게 기술하는 일뿐만 아니라, 한국어 정보구조의 유형론적인 특성을 더 잘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정보구조와 관련하여, 국내의 기존 연구는 대개 한국어와 일본어에 국한되어 있고, 일부 인구어를 참고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일본어는 한국어와 정보구조 실현 양상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대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너무 적고, 인구어는 어순과 강제로 정보구조를 표현하므로 대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었다. 반면 한국어와 아이마라어의 대조는 유사한 문장 구조에서의 뚜렷한 대비를 통해 각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드러내준다. 이 연구에서는 두 언어의 대조를 통해 ‘정보구조 부각 언어’라는 보편성 속에서 두 언어가 각각 ‘화제-논평 정렬’ 유형과 ‘초점-배경 정렬’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

3) ‘{-xa} may occur as many times as there are grammatical structures in the sentence... {-xa} occurs in all types of sentences, with no known restrictions.’ (Hardman 2001:171)

## 1.2.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아이마라어의 화제-초점 표지를 중심으로 아이마라어 문법을 어떻게 정확하게 조사하고 기술하느냐이다. 이미 아이마라어 문법을 기술해 놓은 서양의 참조 문법서들이 있지만, 화제-초점 표지처럼 서양의 언어와 확연히 다른 구조의 범주에 대해서는 설명이 몹시 부족하다.<sup>4)</sup> 아이마라어의 형태소를 기술할 때 영어 또는 스페인어에 대응되는 형태소나 구조가 없는 경우, 여러 용례가 각각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를 파편적으로 기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마라어 {-xa}는 예문에 따라서 화제표지, 연화사(attenuator), 종속절 표지 등으로 기술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법 기술의 난점들을 한국어 문법과의 대조 연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 점이 이 연구의 방법론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런데 정보 구조와 관련한 문법 현상은 화용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그 성격을 설명하고 입증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면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마라어와 한국어 문장 구조와 형태소는 쉽게 대응되므로, 동일한 문맥에서 두 언어가 어떠한 문법 표지를 사용하는지를 대조함으로써 각각의 문법표지들이 갖는 기능과 성격을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었다.

### 1.2.1. 현장 조사

현장 조사는 2회에 걸쳐 수행하였다.<sup>5)</sup> 1차 조사는 전반적인 문법체계를

---

4) 예를 들면, 명사화된 절이 관계절이나 부사절로 기능하는 용법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부족하다. 게다가 아이마라어는 관계절을 구성하는 방식이 다양한데, 이에 대해서는 영어나 스페인어의 관계대명사에 대응되는 구조만 대략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아이마라어의 명사화와 관계절 구조에 대한 새로운 분석은 4.2절에서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5)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고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 연구소와 언어학과에서 수행 중인 <아이마라어 한글표기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DB 구축 프로젝트> (2012.9. ~ 2015.8. 예정, 이하 아이마라 프로젝트)를 통해 이루어졌다. 문법 조사는 두 번의 현지조사와 초청학생으로 한국에 체류한 아이마라인과의 면담을 통해서 진행하였다.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2주 동안(2013.1.14.~1.28.) 볼리비아 La Paz 현지에서 이루어졌다. 자료제공인(consultant)은 20대와 30대의 여성 두 명과 40대의 남성 한명이었다. 1차 조사의 질문지는 한국알타이학회 (The Altaic Society of Korea)의 REAL 프로젝트 (Researches on the Endangered Altaic Languages, 2003.9.~2009.6.)에서 사용한 문법질문지를 아이마라어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였다.<sup>6)</sup> 분석은 Praat를 활용하여 경계 표시-전사-형태소 분석의 과정을 거쳤다. 그 과정에서 기존 질문지 내용의 문제, 오역 문제 등을 찾을 수 있었다.<sup>7)</sup>

2차 조사의 준비는 정확한 문법기술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아이마라어에 적합한 질문지 작성을 목표로 하였다. 우선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아이마라어의 문법 범주 및 형태를 최대한 정리하였고, 기존 연구에서 미흡한 부분을 선정하였다. 그 후 질문지 문법범주를 조정하고 추가하였다. 그리고 2차 조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범주를 선정하여 별도의 질문지를 작성하였다.<sup>8)</sup> 이때 이 연구의 주제인 정보구조 표지를 포함한 ‘문장접사’(Hardman 2001)에 관한 항목들을 대폭 보강하였다.<sup>9)</sup> 2차 현장조사는 1

---

6) 1차 조사의 질문지는 한국어와 알타이언어의 문법범주에 맞추어 작성된 것이므로 아이마라어에 맞는 질문지라고는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아이마라어가 한국어와 공유하는 문법적인 특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문법을 파악한다는 측면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었다. 질문지는 7개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체언과 격표지, 활용어미, 파생접사, 계사, 보조용언, 부정문, 의문문, 인용문, 특수 구문 등’의 기존 체계에다가 참조문법(Hardman 2001)에서 쉽게 이해되지 않는 문법 형태소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추가하여 총 562개의 조사 문항을 구성하였다.

7) 예를 들면, 아이마라어에는 과거 시제가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지만 질문지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3인칭 명령의 경우도 매개 언어인 스페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 그리고 질문-응답 시 현장에서 바로 아이마라어를 분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도를 벗어난 응답도 꽤 있었다. 이를테면 부동사로 이루어진 복문구조를 조사하는데 두 개의 문장으로 응답한 경우 등이 있다.

8) 인칭활용, 정보구조, 소유접사, 접속어미, 관형절, 부사, 기타접사 등 9개 범주의 621 문항이 추가되어 총 1,225개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9) 아이마라어 동사의 활용은 주어와 목적어의 인칭을 동시에 반영하고, 사동과 피동, 추가태(applicative) 등 논항구조의 변화에 따라 동사와 일치하는 논항이 달라지므로, 이를 반영하여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부동사와 명사절, 관계절 항목을 아이마라어의 유형에 맞게 조사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항목을 대폭 추가하였다. 또 아이마라어는 다른 언어들에서 부사구로 표현되는 의미범주를 동사의 파생접사 등으로 표시하므로 이러한 접사

차와 유사한 일정(2014.2.2.~2.18.)과 형식으로 진행되었다.<sup>10)</sup> 1차 조사에서 나타난 오류 항목 등 미흡한 부분을 재조사하고, 새로 추가한 항목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sup>11)</sup>

### 1.2.2. 분석 방법

정보구조는 문장의 화제와 초점을 표현하는 구조로서 지금까지 가장 설명이 부족한 문법 현상 중의 하나로 남아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분석 시 화용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뚜렷한 분석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영어나 독일어 등 정보구조를 어순이나 운율로 표시하는 언어들에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정보구조가 형태적인 표지로 드러나는 한국어나 일본어를 또 다른 한 축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오기도 했지만, 이 문법 형태들이 격표지의 성격과 결합되어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아이마라어의 화제와 초점을 분석하는 일 또한 쉽지 않은 작업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마라어는 화제-초점 표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한국어와 문장 구조가 유사하여 일대일로 대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일한 문맥에서 각각의 실현 양상을 대조하면 그 기능과 성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다음 예문 (1)은 아이마라 문장과 그에 대응하는 한국어 해석문의 구조가 대부분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장 내부의 정보구조 관련 형태소

---

들에 대한 조사항목을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아이마라어는 명사, 형용사, 부사가 형태적으로 구분되지 않아서 기존 연구에서는 부사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부사의 분포, 기능, 용법 확인을 위한 항목을 추가하였다.

- 10) 자료제공인은 1차 조사 때 문법지식이 확인된 40대의 남성을 그대로 선택하였다.
- 11) 이 질문지 형식의 가장 큰 특징은 익숙하지 않은 언어를 조사할 때 수동적으로 기록만 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장치를 두었다는 점이다. 미리 응답 문장을 예측하여 기대되는 몇 가지의 형태소나 문법 구조 또는 문장을 조사지에 표기해두었다. 그럼으로써 조사 시 응답 문장이 조사 의도에 부합하는지, 예측한 구조나 형태소 중 어떤 것이 맞는지 즉시 점검할 수 있었다. 또한 기대와 다를 시에는 자료제공인과의 토론을 통해 새로운 문법지식을 획득할 수 있었다.

가 어떻게 대응되는지도 알 수 있다. 예문에서 보듯이 대체적으로 아이마라어의 {-xa}는 한국어 화제표지 {-는}과 대응되고, 아이마라어 초점표지 {-wa}는 한국어의 {-가}와 대응된다.

- (1) Uta-pa-n-x anu-w utj-i. Uka Anu-x wal ch'iki-wa.<sup>12)</sup>  
house-his-at-TOP dog-FOC exist-3P that dog-TOP very smart-FOC  
‘그의 집-에-는 개-가 있다. 그 개-는 아주 영리하다.’

하지만 위 아이마라어의 두 번째 문장 끝에 나타나는 초점표지 {-wa}는 한국어와 달리 이 표지들이 주어 외의 성분에도 결합됨을 보여준다. 또한 다음의 (2)처럼 두 언어의 화제-초점 표지가 주어에 결합하는 경우에도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가,나)는 대조적 문맥을 포함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문장으로서 주어인 ‘마리오가’ 성분을 보면, 아이마라어는 화제 관련 표지 {-xa}가 쓰였고, 한국어는 초점 관련 표지 {-가}가 쓰였다.<sup>13)</sup> (나’)의 한국어 문장은 대조성을 포함한 문장이므로 (가)의 번역문으로서는 의미적인 비문이 된다.

- (2) 가. Wasu:ru-x Mario-x korea-t-Ø jut-i.  
yesterday-TOP Mario-TOP<sup>14)</sup> Korea-from-FOC come-3P  
나. 어제-는 마리오-가 한국-에서 왔다.’  
나’. \*어제-는 마리오-는 한국-에서 왔다.’

이 연구는 이처럼 두 언어의 화제-초점 표지가 보이는 의미와 기능이 어떤 점에서 유사하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확인하면 정보구조와 관련하여

12) 출처가 표기되지 않은 아이마라어 예문은 <아이마라 프로젝트>를 통해 수집된 자료이다. 대부분의 예문은 2차 현지 조사(2014.2.2.~2.18.)에서 아이마라인 그레고리오 차베스 티코나(Gregorio Chavez Ticona, 45세)로부터 녹취하였다. 추가 조사는 서울대학교 초청학생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2013.5.~2014.5) 아이마라인 마리오 팔라브라 우스카미타(Mario Palabra Uscamyta, 34세)와의 수시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13) ‘화제 표지’는 화제에만 결합하는 접미사를 설명할 때만 쓰고, 화제에도 결합하지만 그 외의 성분에도 결합하는 경우 ‘화제 관련 표지’라고 표현하였다. 마찬가지로 초점에도 결합하지만 그 외의 성분에도 결합하는 경우 ‘초점 관련 표지’라고 하였다.

14) 이 경우 주어에 붙은 {-xa}접사는 이 연구의 결론에 따르면 화제표지가 아니라 배경표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화제표지와 배경표지를 재정의하기 전까지는 일단 화제표지(TOP)로 표시하기로 하겠다.



여 유의미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표지가 지니는 본질적인 특성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실마리를 얻을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예문들을 포함한 다양한 문장들에서 두 언어의 관련 표지들이 어떤 경우에 동일하게 실현되는지, 또 어떤 경우에 다르게 실현되는지를 대조하였고, 그 결과를 일반화하여 각 표지들의 특성을 뚜렷하게 드러내고자 하였다.

아이마라어는 해당 형태소들이 화제-초점 표지 기능을 기본 기능으로 갖는 형태소라는 점에서 정보구조 연구의 가장 좋은 소재라고 할 수 있고, 한국어는 그 동안 관련 연구가 많이 축적되어 있어서 적절한 문맥과 예문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적의 대조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장조사를 위한 문법질문지에 이러한 예문들을 다양하게 수록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대조 분석 결과는 본문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이번 아이마라 문법 분석 과정 또는 방법론상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서울대 초청학생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아이마라어 화자로부터 분석에 큰 도움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는 일반적인 언어조사와 달리, 조사자와 자료제공인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료제공인이 조사자의 언어를 배우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어와 아이마라어의 직접적인 대조에 직접 참여하여 새로운 정보를 많이 제공해주었다.

(3) 가. 재밌는 친구인데 한국사람이에요.

나. k'uchi masi-x Koreano-wa.

happy friend-TOP Korean-FOC.

예를 들면 (3)의 예문의 경우, 처음에는 화자가 한국어에 미숙해서 엉뚱한 대답을 했다고 간주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xa} 접사는 화제 표지로서 대개 한국어의 {-는}에 대응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는 ‘재밌는 친구는 한국인이예요’가 되므로 의미가 전혀 달라진다. 그러나 이후 수개월에 걸친 분석과정에서 {-xa} 접사의 기능이 ‘배경표지’라고 결론내린 후에야 자료제공인의 대답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는 분석 대상 언어의 화자가 조사자의 언어를 익힌 경우가 언어 분석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 사례는 아이마라어 화자가 한국어를 습득하는 속도가 한국어 화자가 아이마라어를 배우는 것보다 빠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물론 상대의 언어를 배우는 환경이나 조건이 서로 달랐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학습속도의 비대칭성이 생기는 이유는, 유형론적으로 유사한 두 언어 중 한국어가 상대적으로 더 잘 기술되어 있는 언어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기술언어학의 방법론에 흥미로운 제안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결론에서 조금 더 언급하도록 하겠다.

### 1.3. 논의의 구성

다음 2장에서는 정보구조의 개념과 용어를 중심으로 관련 선행연구를 정리하였다. 프라하학과, Halliday(1967), Li and Thompson(1976), Vallduvi(1992)를 거치며 정보구조 연구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요약하고,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다양한 문법이론들이 정보구조를 어떻게 수용해왔는지 간단히 살펴볼 것이다. 특히 Vallduvi(1992)의 ‘화제-바탕-초점(topic-tail-focus)’<sup>15)</sup> 삼분체계는 이 연구의 이론적 근거가 되기 때문

---

15) Vallduvi(1992)의 ‘link-tail-focus’ 삼분체계는 박철우(2003)에서 ‘연결-꼬리-초점’으로 번역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link’에 대해 화제와 동일한 개념이므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화제’를 살려서 쓰고, ‘tail’의 경우 번역어로 ‘꼬리’가 아닌 ‘바탕’을 선택하였다. 왜냐하면 이 연구가 언어 기술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세밀함은 희생하더라도 직관적인 용어를 쓸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tail’의 개념을 어떻게 번역하느냐이다. Vallduvi(1992)에서는 배경(background)에 해당하는 ‘link-tail’을 합친 부분을 ‘ground’라고 하였으므로, 배경과 ground는 동일한 개념이 된다. 그러므로 배경(또는 ground)에서 화제를 제외한 부분이 tail이다. 따라서 tail은 ground의 하위 개념이 된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tail에 대해 Vallduvi(1992)의 ground를 차용하여 ‘바탕’으로 번역하였다. 다시 말해, 박철우(2003)에서는 ground(background)를 ‘바탕’으로, tail을 ‘꼬리’라고 번역한 반면에, 이 연구에서는 각각을 ‘배경’과 ‘바탕’으로 번역하였다. tail을 ‘바탕’으로 번역한 또 다른 이유는 ‘꼬리’라는 용어가 학술적 용어로 어색하기 때문이다.

에 별도로 다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격중출 구문을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발전해 온 국어학계의 정보구조 관련 연구를 검토하고, 최근 서양 이론과 접목시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를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정보구조의 유형론을 통해 정보구조의 기본적인 개념과 관련 요소들을 정리하고, 이것들이 담화 기능과 어떻게 결부되어 있는지를 언급할 것이다. 화제부각 언어 중에도 다양한 하부 유형들이 보고되어 왔는데, 이 중 화제의 이동, 복수 화제, 대조성, 격 제한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이 연구가 제시하는 새로운 관점에서 비판하였다. 초점부각 언어와 관련하여서는 초점의 수의성, 분포, 실현방법 등의 유형을 검토하고, 특히 확인 초점이 별도의 표지를 가지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 나름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아이마라어 정보구조 분석과 관련된 아이마라어 문법 특징을 간단히 살펴볼 것이다. 이 연구의 주제인 화제-초점 표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명사구 구조, 격표지, 기본 문형, 복문 구성 등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문법을 다룬다. 특히, 동사의 인칭활용, 명사화, 관계화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이후 본격적인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결론에서의 논지 전개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5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정보구조의 유형론과 아이마라어의 문법 특징을 바탕으로 하여 아이마라어의 정보구조를 세밀히 분석한다. 논의는 주로 아이마라어 화제-초점 표지의 문법적 분포와 기능을 기술하면서 한국어를 대응시켜 자연스럽게 대조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한 예문들을 중심으로, 일반적인 질문-대답 쌍, 화제가 없는 제언문, 대조적 문맥, 부정문과 의문문 등의 다양한 문장과 문맥 속에서 화제와 초점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한국어와의 차이점보다는 유사한 점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6장에서는 앞 장에서 분석한 아이마라어 정보구조의 특징과 한국어 정보구조의 특징을 대조하여 유형론적인 일반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특히 아이마라어의 제언문과 한국어의 주격 중출 구문은 각 언어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조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들의 차이점을 분석함으

로써 아이마라어는 화제도 초점도 아닌 바탕 부분에 화제와 동일한 표지가 쓰이고, 한국어는 반대로 이 바탕에 대해 초점과 동일한 표지가 쓰인다는 점을 밝힌다. 이와 동시에, 두 언어의 문법 표지의 영역 경계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을 확인함으로써 별도의 바탕이라는 의미영역이 드러남을 보일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지금까지의 연구를 종합하여 정보구조 표지의 유형론을 새롭게 수립해 보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전체 논의를 요약하면서, 기존 인구어 시각의 정보구조 연구와 별도로 왜 한국어나 아이마라어와 같이 형태소를 통해 정보구조를 부각시키는 언어가 정보구조 연구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더불어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보구조 표지의 유형론이 어떤 한계가 있는지, 특히 한국어 연구에 적용하는 데 있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언급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유형론 연구 및 기록언어학에 갖는 의의와 제안사항을 간략하게 제시할 것이다.

## 제2장 선행 연구 검토

이 장에서는 서양학계에서 이뤄져 온 정보구조 연구의 흐름 및 관련 문법 이론을 요약하고, 한국어학에서 화제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독자적으로 발전해왔고 현재의 정보구조 연구로 이어져왔는지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 2.1. 정보구조 일반 이론

정보구조란 개념은 Halliday(1967)에서 화제와 초점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하지만 정보구조는 프라하학파 이래 꾸준히 주목을 받아온 주제이며, Valldví(1992)와 Lambrecht(1994)를 거치면서 정교해졌다.

정보구조에 대한 유형론적 연구는 Li & Thompson(1976)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어떤 언어가 화제를 명시하는 문법적 기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언어를 화제부각(topic-prominent)<sup>16)</sup>언어라고 부르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초점을 명시하는 언어를 초점부각(focus-prominent) 언어라고 하였다(É. Kiss 2001). 생성문법에서는 영어처럼 문법관계가 구조적으로 정해지는 형상(configurational) 언어에 대응하여, 화제-초점 위치가 구조적으로 정해지는 언어를 담화-형상(discourse-configurational) 언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보구조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다수의 언어가 정보구조를 표시하는 기제를 지닌 것으로 밝혀졌다. É. Kiss(2001)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언어는 다음과 같다. 유럽어 중에는 바스크어, 카탈란어, 헝가리어, 불가리아어, 러시아어, 그리스어, 핀란드어, 루마니아어, 터키어, 아르메니아어가

---

16) Li & Thompson(1976)은 리수어, 라후어, 중국어, 한국어 등의 예를 들어 ‘화제 부각 언어(topic-prominent languages)’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문두의 주어가 화제로 기능하는 ‘주어 부각 언어(subject-prominent languages)’와 달리 화제부각 언어는 다양한 문장 성분이 문두에서 화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담화-형상 언어이다. 아시아에서는 네팔어, 힌디어, 한국어, 일본어가 화제-초점 부각 언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중국어도 화제부각 언어로 논의되었다. 아프리카 언어로는 소말리어, 채딕 언어<sup>17)</sup>, 반투 언어인 아젠크어와 키쿠유어, 요루바어, 아랍어가 해당된다. 아메리카 언어에서는 하이다어, 오마하어, 마야 언어, 케추아어가 논의되었고, 오스트로네시아어 중 일롱고어도 이에 속한다고 보고되었다.

### 2.1.1. 정보구조 연구사

문장구조가 담화 기능과 관련이 있다는 점은 이미 19세기 몇몇 학자들에 의해서 언급되었다(É. Kiss 2001). 그러나 본격적인 정보구조 연구는 20세기 들어 프라하학파(Firbas 1962, 1964 등)가 화제-초점에 해당하는 테마(theme, 주제)-레마(rheme, 평언) 구조를 다룬 것을 그 시초로 본다.

프라하학파는 기능문법 관점에서 ‘소통적 힘의 원리’(Communicative Dynamism, CD)라는 척도 개념을 도입하여 정보구조를 설명하였다.<sup>18)</sup> 문장 성분이 가진 CD의 정도란, 문맥상 알려진 정보는 약한 CD를 가지고 새로운 정보는 강한 CD를 가짐을 의미한다. 이 CD가 문장 성분의 배열을 결정하는데, 약한 CD를 가진 요소는 강한 CD를 가진 요소보다 문장의 앞쪽에 나타나게 된다. 약한 CD의 요소에는 주제(theme) 또는 화제(topic)의 지위가 부여되고, 나머지 부분은 평언(rheme)으로서 화제에 대해 서술하는 부분이 된다.

뒤를 이어 Halliday(1967, 1985)가 초점, 전제, 담화 상 개체에 대한 명제적 태도를 설명하기 위해 정보구조(Thematic structure)란 개념을 도입하였다. 정보구조에 대해 다음의 몇 가지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화제-초점 개념의 정의와 통사적 구현에 대해 많은 연구가 촉발되었다. 첫째, 문맥상 알려진 정보와 새로운 정보가 어순을 결정한다.<sup>19)</sup> 둘째, 어순 외에도

17) 어족 또는 어군에 해당되는 명칭은 ‘○○ 언어’라고 표기하였다.

18) 요즘 통용되는 용어로 표현하면 ‘신정보 척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 Prince(1986)는 화자가 청자에 대해 갖는 믿음 즉 ‘청자가 알고 있는 것 또는 무엇에 대해 생각할지 기대되는 것’에 따라 정보를 구조화하여 발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양, 형태, 어휘 요소가 문장의 정보구조를 반영한다. 셋째, 정보구조는 질문-대답 쌍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정보구조가 질문-대답 쌍에서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 담화의 응집성을 결정하는 데에 얼마나 결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프라하학파의 체계를 따르는 학자들은 화제와 초점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 개념이 담화 응집성을 결정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Daneš(1974)에서는 주제 진행(thematic progression)이 다음 세 가지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 (ㄱ) 선행 화제를 계속적으로 유지
- (ㄴ) 선행 초점을 화제로 전환
- (ㄷ) 상위화제(hypertheme)에 속하는 부분집합을 화제로 부각.<sup>20)</sup>

여기서 상위화제란 담화에서 제한되는 집합으로서 앞의 문장에서 나열될 수도 있고, 집합을 의미하는 단어로 도입될 수도 있는 지시체의 집합이다. 이 세 가지 외의 화제 선택 방식으로는, “이 의자는 아주 튼튼하다”에서와 같이 담화 상황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개체를 지시하는 경우와, “지구는 둥글다”에서처럼 개체가 담화 세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담화 참여자가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É. Kiss 2001).

한편, 생성문법의 관점에서는 담화 화제가 영형태 대명사인 pro로 실현된다고 분석한다. 이런 분석은 스페인어 같은 대명사 탈락(pro-drop) 언어를 위주로 발전했는데, 보통 담화 화제가 탈락하고 주어-동사 일치현상에서 동사의 활용어미만 남기 때문이다. 즉 스페인어에서 담화에 한번 도입된 화제는 그 이후 완전한 대명사가 아닌 영형태의 pro가 쓰인다고 분석된다. 이런 식으로 담화 화제에 대한 형식이론 연구는 pro와 기타 영형범주를 인허하는 화용적 조건을 다루고 있다.

Halliday(1967) 이후 정보구조에 대한 용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Chafe(1976)에서는 ‘포장(packaging)’이란 용어로 정보구조를

---

20) Erteschik-Shir(2007)는 (ㄱ, ㄴ, ㄷ) 각각에 대해 ‘화제 연쇄’, ‘초점 연쇄’, ‘상위화제에서 도출되는 화제’라고 하였다.

설명하였고, 그 후 Valldví(1992)는 ‘정보포장(information packaging)’이란 용어를 써서 화제와 초점에 해당하지 않는 문장성분까지 정보구조에 포함시켰다. 그 외에 화제-초점 구조(topic-focus structure)나 초점 구조(focus structure)라고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다.

정보구조와 관련한 개념 및 용어는 각 연구자가 어떤 점에 중점을 두는지를 반영해준다. 문장의 정보구조를 새로운 정보인지 주어진 정보인지(givenness, 주어짐성)에 따라 나누면 ‘초점-전제(focus-presupposition)’ 구조를 중심으로 다루게 된다(Chomsky 1969, Jackendoff 1972). 반면에, 무엇에 대한 정보인지(aboutness, 대하여성)를 기준으로 하면 ‘화제-논평(topic-comment)’ 구조를 중심으로 삼는다(Hockett 1958, Gundel 1974, 1988, Reinhart 1982 등). 이 두 관점을 모두 반영하여 정보구조의 삼분체계를 주장하기도 한다(Valldví 1992, Lambrecht 1994 등). 이 중 Valldví(1992)의 삼분체계에 대해서는 뒤에서 추가적으로 다룰 것이다.

### 2.1.2. 정보구조 관련 문법이론

정보구조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문법 이론에 적용되고 있고, 일부 문법 이론에서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각 문법이론들이 정보구조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Erteschik-Shir(2007:4-5)를 참고하여 정리해보았다.

우선 형식 언어학 이론에서는 정보구조 논의에 대한 합의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 지배결속이론(Government-Binding theory), 최소주의(Minimalist Program) 등은 담화 기능을 가진 화제-초점을 화용적 측면으로 간주하여 처음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후 많은 언어들에서 화제와 초점이 별개의 구조적 위치를 갖는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통사와 정보구조 간의 접합부(interface)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게 되었다.<sup>21)</sup>

---

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주의 등에서는 정보구조를 일반적으로 주변(peripheries)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통사, 의미, 억양과 관련하여 정보구조가 하는 역할을 중심적



반면에, 병렬 구조(parallel architecture) 이론들은 음운, 통사, 의미, 화용적 층위가 병렬적으로 작동한다고 보므로 정보구조가 쉽게 이론에 통합된다. 병렬 구조 이론에 속하는 이론들은 정보구조에 기타 문법 부문과 동일한 위상을 부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Vallduví and Engdahl(1995)의 어휘기능문법(LFG)은 정보구조 자질을 포함한 두 가지 자질 구조와 그 두 표상(representation) 간의 사상(mapping) 관계를 사용하여 정보구조를 통합하였다. 핵어중심구구조문법(HPSG)은 자질 구조 공유라는 개념을 적용하였고(Pollard and Sag 1987, Sag and Ginzburg 2000), 결합범주문법(CCG)은 음운 구조, 통사 구조, 의미 합성(논리형식과 정보구조를 포함)의 가능한 연결을 상호 제약하는 부분적 정보구조의 모델을 제시하였다(Steedman 2000).

역할지시문법(RRG, Van Valin and LaPolla 1997)은 구문 틀(templates)로서 문법 구조가 저장된 구조(architecture)를 도입했다. 이 구문 틀은 형태통사, 의미, 화용 특성(properties)의 특정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연히 이 세 부분 간 연결을 허용한다. 이 연결 방식을 설명하는 개념이 ‘특권 통사 논항’ 또는 ‘화용적 축(pragmatic pivot)’이다. 그리고 이 화용적 축의 선택에 따라서 주어부각(subject-prominent) 언어와 화제부각(topic-prominent) 언어가 구분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화제부각 언어는 특권 논항으로 화제를 선택하고, 주어부각 언어는 가장 부각되는 의미역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기능주의 이론은 정보구조가 문법에 기여하는 부분에 주목했다. 기능통사론(Kuno 1987, Kuno and Takami 1993)은 통사론에 기능적 제약이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기존 통사 제약이 설명할 수 없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Dik(1997)의 기능문법은 상당히 형식화된 기능 이론을 제공하였고 그의 통사론은 일련의 배치 규칙(placement rules)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Erteschik-Shir(2007:4-5)를 요약하여 여러 문법 모델들이 정보구조를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다. 이렇듯, 정보구조 논의는 다양한 문법 모델의 등장에 주요한 동기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

(core syntax)으로 취급하지는 않고 있다.

있다. 이는 정보구조와 관련한 분석이 그만큼 단순하지 않아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구조의 현상과 근본적인 기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 2.1.3. 정보구조의 삼분체계

앞에서 정보구조 연구사를 다룰 때 Vallduví(1992)의 삼분체계에 대해 언급하였다. Vallduví(1992)는 정보구조가 이분체계가 아니라 ‘연결(link)-꼬리(tail)-초점(focus)’의 삼분체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 우선 문장의 정보구조를 ‘바탕(ground)-초점(focus)’의 구조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바탕’을 다시 ‘연결-꼬리’ 구조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박철우 2003).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Vallduví(1992)의 개념들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아래와 같이 다른 용어를 쓰고자 한다. 왜냐하면 Vallduví(1992)의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언어 기술을 목적으로 하는 본 논문에는 더 널리 쓰이는 용어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먼저 Vallduví(1992)의 ‘ground’에 대한 용어로 ‘배경’을 선택하였다. 왜냐하면 이 개념이 전제(presupposition), 배경(background) 등으로 불리는 개념과 일치하기 때문이다.<sup>22)</sup> 대신 ‘tail’의 번역어로 ‘바탕’을 선택하였다.<sup>23)</sup> 그리고 ‘link(연결)’은 화제와 일치하므로 보편적인 용어인 ‘화제’를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한 용어들로 표현하면, Vallduví(1992)의 정보구조 삼분체계는 ‘배경-초점’ 구조를 세분한 ‘화제-바탕-초점’ 구조라고 정리할

---

22) 박철우(2003)에서는 ‘ground’를 ‘바탕’으로 번역하였으나, Vallduví(1992)의 ‘ground’는 통용되는 개념인 ‘background-focus(배경-초점)’ 이분 체계의 ‘background(배경)’과 같은 개념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보편적으로 쓰이는 ‘배경’을 사용할 것이다. (각주 (15) 참조)

23) 이 연구에서는 Vallduví(1992)의 ‘바탕(ground)’이란 용어를 화제를 제외한 부분, 즉 꼬리(tail)로 축소시켜서 ‘화제-바탕-초점’ 구조로 부르고자 한다. 즉 Vallduví(1992)의 ‘tail’을 ‘꼬리’(박철우 2003)가 아닌 ‘바탕’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각주 (15) 참조)

수 있다.

Vallduví(1992)는 다음과 같은 예문을 통해 삼분구조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우선 예문 (1)에서는 화제와 초점의 이분구조를 볼 수 있다. 여기서 대답문의 화제가 'John'이란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What about John?'이라는 문장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F drinks BEER]는 새로 제시되는 정보라는 측면에서 초점으로 표시하였다. 즉, 화제-초점의 이분구조로 설명되는 문장이다.

(1) Q: What about John? What does he do?

A: John [F drinks BEER.]

이와 달리 다음 (2)는 화제-초점의 이분구조로 설명할 수 없다. (1)과 (2)의 대답문은 강세까지 동일한 문장이지만 (2)는 'drinks'가 질문에서 이미 주어진 정보이므로 초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F BEER]만이 초점이 된다. 그러면 화제인 'John'과 초점인 'BEER'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남게 되는데,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Vallduví(1992)는 바탕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2) Q: What about John? What does he drink?

A: John drinks [F BEER.]

Vallduví(1992)에서는 정보구조 삼분체계의 각 부분의 기능을 논의하면서, 화자의 지식저장소에서 청자의 지식저장소로 정보가 포장되어 전달되는 방식을 위주로 설명하였다. 각 부분의 기능을 다음과 같다. 초점은 문장에서 필수적인 부분이고 유일하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으로서 청자에게 전달되는 내용이다. 화제는 초점부가 담고 있는 문장의 정보가 청자의 지식저장소로 전달될 때, 화자의 지식저장소에 있는 주소와 동일한 주소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주소이다. 바탕은 전달된 정보가 청자에게 정확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본 연구는 이 Vallduví(1992)의 삼분체계를 이론적인 근거로 하여, 이 삼분체계가 어떻게 아이마라어의 정보구조 표지로 각각 실현되는지에 중

점을 두고 있다.

## 2.2. 한국어의 정보구조 연구

한국어 정보구조에 대한 연구는 이중 주어 또는 주격 중출로 불리는 현상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했다. 정인상(1990:243)에 따르면, 주격 중출에 대한 전통적 견해는 소위 ‘서술절 분석’의 입장으로서 주시경(1910)에서 시작되었다. 이 견해는 주격 중출문을 주어, 서술절로 구성되는 복문 구조로 보는 것인데, 최현배(1937)의 ‘용언절’로 이어지면서 현행 학교 교육에도 활용되고 있다. 한편 박승빈(1935)은 화제의 개념에 근접한 ‘문주(文主, 문장주제)’라는 개념으로 이중 주어를 설명하였다.

이후 현대적 연구에서는 서양학계의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논의하게 되면서, 연구자에 따라 화제를 보는 관점이 크게 통사적 화제, 담화 화제, 구정보-신정보 측면의 화제로 나뉜다고 할 수 있다.

### 2.2.1. 통사적 화제와 담화 화제

통사적 화제 측면에서 접근한 대표적인 논의로는 서정수(1971), 임흥빈(1972, 1974, 2007)이 있다. 서정수(1971)는 생성문법적 시각을 도입하여 심층-표층 구조로 설명하려고 하였다. 즉 심층에서 관형어나 부사어였던 성분이 표층구조에서 ‘주제어’로 나타나면서 이중 주어가 생긴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코끼리가 코가 길다’는 심층구조에서 ‘코끼리의 코가 길다’인데 변형규칙이 적용되어 표층구조에서 주제어인 ‘코끼리가’로 바뀌어 나타난다는 주장이다.

임흥빈(1972, 1974, 2007)은 문법적 주제(통사적 주제, topic)로 화제성분을 설명하였다. 문두의 화제 성분이 기존의 문법관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통사적 관계를 부여하지 않으면 한국어의 문장구조가 설명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화제 성분을 ‘문법적 주제’로 설정하였다. 이 외에도 통사적 차원에서 화제 성분을 설명한 논의로 박순함(1971), 신창순

(1975), 김영희(1978), 남기심(1985), 홍용철(2005) 등이 있다. 이러한 견해들은 한국어의 기본 문장 구조에서 화제와 주어가 각기 별도의 성분으로 나타나는 이중 주어의 문제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담화 상에서 각 성분이 취하는 ‘격표지’가 고정되지 않고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하기 힘들다.

이와 달리 화제를 담화 구조상의 기제로 파악한 연구로 박승윤(1986), 이신형(2010) 등이 있다. 박승윤(1986)은 담화적 속성이 강한 한국어의 특성 상, 화제가 문장의 범위를 넘어서 이후의 문장을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화제 표지’는<sup>24)</sup> 해당 성분이 술어와 맺는 문법관계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담화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즉 화제 성분은 문장의 성분이라기보다 담화 구조상의 기제라고 설명하였다. 이신형(2010)도 화제를 담화 전개의 중심축으로 보았지만, 추상적 담화 화제가 통사적으로 실현되어 문장 화제가 된다고 본 점이 다르다. 이러한 담화 중심적 견해들은 화제가 담화 속에서 구체적인 기능이 잘 드러난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지만, 화제와 초점이 문장 내부에서 별도의 구조를 갖는 정보 구조의 관점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2.2.2. 구정보와 신정보

앞에서 언급한 논의들은 통사나 담화 차원에서 한국어의 화제를 다룬 것들이다. 한편으로는, 인구어에서 시작된 정보구조 연구를 받아들여 한국어에 적용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채완(1976), 홍사만(1983, 1986), 박철우(2003), 전영철(2006, 2009) 등이 대표적으로, 문장이 화제-초점 즉 구정보-신정보의 구조로 되어있다는 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문장이 ‘무엇’에 대해 서술할 때 이 ‘무엇’에 해당하는 부분이 화제이고, 그것에 대한 서술에 해당하는 부분은 초점이다. 이때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하여 얘기하는 행위는 화자와 청자가 동시에 그 대상을

---

24) 박승윤(1986)은 화제 표지를 인정하지 않고 보조사로 인해 격 기능을 상실한 명사구가 문두위치에서 주제가 된다고 하였다.

인식할 수 있음을 전제할 때 가능하다. 그러므로 화제는 화자와 청자에게 주어진 정보이고, 서술되는 내용인 초점은 새로운 정보이다. 한국어는 보통 화제가 두드러지는 화제부각 언어로 분류되는데, 그 이유는 구정보인 화제를 {-는}으로 표시한다는 점에 대부분이 동의하기 때문이다.

이 논의에 따르면 초점은 신정보여야 한다. 하지만 구정보임에도 초점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3) Q: 너는 야구가 좋니? 축구가 좋니?

A: 저는 야구가 좋아요.

이 예문의 경우 대답의 ‘야구가’는 분명히 초점에 해당한다. 그런데 질문에서 이미 주어진 구정보이기도 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영철(2006:174)과 임동훈(2012:223)은 ‘관계적 신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sup>25)</sup> 대답의 ‘야구가’는 주어진 정보란 측면에서 ‘지시적 구정보’이지만, 문장 내부의 성분들 간 관계에서 새로운 정보가 제시된다는 측면에서 ‘관계적 신정보’라고 설명하였다. 즉 화제와 초점은 ‘지시적 구정보-지시적 신정보’의 관계가 아니라 ‘관계적 구정보-관계적 신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박철우(2003)도 신정보-구정보의 시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앞에서 살펴본 Vallduví(1992)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연결(link)-꼬리(tail)-초점(focus)의 삼분구조를 통해 한국어의 정보구조를 분석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삼분구조 중 초점이 신정보에 해당되고, 연결과 바탕 부분은 각각 화제와 구정보 중 화제성이 없는 부분으로서 구정보에 해당된다.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서양학계와 한국어학계에서 이루어진 정보구조 관련 연구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정보구조의 기본 개념인 화제와 초점을 중심으로 유형론적 연구를 통해 밝혀진 몇 가지 현상

---

25) 전영철(2006) 및 임동훈(2012)은 Reinhart(1982), Gundel(1999), Gundel & Fretheim(2004) 등의 논의를 도입하여 ‘관계적 주어집성’과 ‘지시적 주어집성’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 제3장 정보구조의 유형론

### 3.1. 개관

이 장에서는 앞 장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간략히 다룬 정보구조의 기본 개념을 더 자세히 다루고, ‘화제-초점 부각(topic-focus prominent) 언어’ 간에 유형론적으로 어떤 다양성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하여 이후 본격적인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우선 정보구조의 기본적인 개념인 화제와 초점이 보편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되는지를 정리한 후, 그러한 보편적 현상 내부에 언어 간 차이점이 어떻게 다양하게 나타나는지를 검토해볼 것이다. 또한 정보구조와 관련하여 많이 언급되는 의미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결부되어 있는지도 유형론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정보구조와 관련된 의미 요소들로는 대조성, 명사구의 특정성, 개체술어/장면술어 등을 꼽을 수 있다.

화제가 형태통사적으로 실현되는 언어를 화제부각 언어라고 한다. 화제부각 언어는 영어, 스웨덴어, 헝가리어처럼 화제가 구조적 위치에 의해 정해지기도 하고, 한국어, 일본어, 아이마리어, 케추아어처럼 형태소로 표시되기도 한다. 화제는 문장 내부에서 ‘서술어의 주어’로 기능하는 문장 화제가 있고, 담화의 응집성을 위해 여러 문장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는 담화 화제가 있다. 담화 화제는 이미 담화영역에 존재하는 개체를 지시함으로써 담화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화제 실현의 부차적인 변수로는 격제한과 통사 범주, 화제의 개수, 화제 간의 상대적 순서 등이 있다.

한편, 초점이 문법적으로 실현되는 언어는 초점부각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초점은 질문-대답 쌍을 통한 표준적인 점검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초점은 총망라성(exhaustiveness)이나 대조성을 띠는 경우의 배제적 초점과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전달할 때의 정보초점으로 구분된다. 초점은 언어에 따라 통사적으로 고정된 위치에 부여되기도 하고 형태적 표지를 지니기도 한다. 세부적으로는 초점의 수의성, 복합문에서의 제약 등에서



언어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정보구조와 관련하여 대조성은 주요한 자질이다. 대조성이 담화 문맥에서 주어진다는 주장도 있으나,<sup>26)</sup> 많은 언어에서 대조성이 문법적 장치를 통해 나타난다는 점에서 정보구조의 문법 측면에서 살펴야 한다. 대조성은 대조초점(확인초점 또는 배제적 초점)과 대조화제로 구분할 수 있다.<sup>27)</sup>

특정성도 정보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정성은 명사구가 한정적이거나 총칭인 경우, 또는 비한정적이더라도 도입된 집합의 일부분을 지시하는 경우에 주어진다. 화제는 담화영역에 존재하는 개체를 가리키므로 특정성을 지녀야 한다. 정언문(categorical sentence)은 화제를 포함하는 문장으로 특정성과 관련이 있고, 제언문(thetic sentence)은 화제가 없는 문장으로 특정성을 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개체총위술어와 장면총위술어도 정보구조에서 많이 언급된다. 하지만 술어의 성격은 특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정보구조를 결정하는 요소라고 보기는 힘들다.

### 3.2. 화제와 초점의 확인

정보구조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문법 현상은 화제와 초점의 구분이다. 문장이나 발화의 초점은 보통 담화에서 전제되지 않은 부분으로 간주된다. 종종 '신정보'로 기술되지만, 초점이 담화에서 반드시 새로운 것이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담화의 '구정보'도 전제되지 않았다면 초점을 받을 수 있다.<sup>28)</sup> 초점의 표준적인 판별법은 설명의문문에 대한 대답에서 의문대명사에 대응되는 부분을 초점으로 보는 것이다. 다음은 각각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아이마라어에서의 동일한 구조의 질문-대답 쌍 예문이다.

---

26) Vallduvi(1992)와 Lambrecht(1994)는 정보구조 범주에 대조성을 넣지 않고, 화자와 청자 간에 이루어지는 함의와 추론의 결과로 대조성이 부여된다고 주장했다.

27) 배제적 초점은 총망라성(exhaustiveness)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고, 대조화제는 화제에 해당하는 부분이 담화에서 전제된 개체 집합의 부분집합을 지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28) 2.2.2에서 언급한 관계적 신정보를 의미한다.

- (1) Q: 누가 책을 샀니?  
A: 철수-가/\*는/\*Ø 샀어.
- (2) Q: Who bought the books?  
A: **John** bought the book.
- (3) Q: Quién compró los libros?  
who bought the books  
A: Los compró **Juan**.  
those bought Juan
- (4) Q: **Khiti-s** uka pank-Ø al-i?  
who-FOC that book-ACC buy-3P  
'누-가 그 책-을 샀어?'  
A: **Juanu-w** al-i.  
Juan-FOC buy-3P  
'후안-이 샀어.'

영어 예문 (2)의 경우 초점이 부여되는 주어 부분에 핵역양(nuclear pitch accent)이 부가된다. 스페인어 예문 (3)의 경우는 절의 억양 패턴은 변하지 않고, 문말 위치로 초점 성분이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구어를 포함하여 많은 언어들에서 어순이나 억양을 통해 초점을 표현한다.

반면에 한국어의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데 (1)번 예문에서 보면 초점이 부여된 성분이 '철수가'로 표현되었다. 한국어의 초점성분에 강세가 주어진다고 보기도 하지만, 강세는 필수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봐야할 듯하다. 한편 {-가}가 초점표지라고 보는 시각은 {-가}가 초점성분에 항상 붙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주어에 결합하는 표지 {-Ø/-는/-가}에 국한하여 본다면 {-가}에 초점표지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의 아이마라어에서는 명확한 초점표지의 성격을 가지는 형태소 {-wa}가 '-w'로 실현된다.<sup>29)</sup> 이에 대해 5장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29) 'Juanu-w'의 '-w'가 초점표지로서 {-wa}에서 모음이 탈락하였다. 아이마라어에서는 3음절 이상의 문중 성분에서 항상 어말 모음이 탈락한다.

화제는 보통 담화에서 전제된 구정보 부분을 말한다. 아래 예문의 (가)의 대답에서 화제는 ‘철수는’이 된다. 앞에서 보았듯이 초점은 질문의 ‘무엇을 했니’에 대응하는 ‘밥을 먹었어’가 신정보로서 초점이 된다.

- (5) 가. Q: 철수는 무엇을 했니?  
A: 철수는 밥을 먹었어.  
나. Q: 철수는 무엇을 먹었니?  
A: 철수는 밥을 먹었어.  
다. Q: 무슨 일이니?  
A: 철수가 밥을 먹었어.

마찬가지로 (5나)의 경우도 ‘철수는’이 화제이고, ‘밥을’은 초점이다. 그런데 (5가)와 달리 동사 ‘먹었어’는 질문에서 전제된 구정보이기 때문에 화제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입장이 다르다. 화제-초점의 이분법으로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화제로 간주하겠지만, 삼분법으로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먹었어’가 화제도 초점도 아닌 성분이므로 화제-바탕-초점 구조의 분석이 필요함을 주장할 것이다. (5다)는 문장 전체가 신정보로서 문장 전체가 초점이고 제언문(thetic sentence)이라고도 한다.<sup>30)</sup>

화제는 대부분의 언어에서 문두에 위치한다. 인구어에서는 대개 주어의 위치가 구조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주어가 문두에 위치하게 된다. 그러므로 화제와 주어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국어나 일본어, 아이마라어처럼 격표지가 명확한 형태소로 표시되는 언어들의 경우에는 주어 외의 다른 성분들이 쉽게 화제화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여러 언어에서 화제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살펴보겠다.

---

30) 제언문(Kuroda 1972, Sasse 1987 등)에 대해 Schmerling(1973)은 ‘뉴스-문(news sentence)’, Gussenhoven(1983)은 ‘사건문(eventive sentence)’이라고 하였고, ‘전체 초점 문장’이라는 용어도 사용된다(박철우 2003:42). 제시적 초점(presentational focus) 또는 중립기술(neutral description: Kuno 1972)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한편 제언문과 대비되는 정언문(categorical sentence)은 화제가 주어지고 그 화제에 대해 단언하는 문장이다.

### 3.3. 화제부각 언어

정보구조와 관련하여 가장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관점은 문장이 두 부분으로 나뉜다는 것이다. 한 부분은 화제로서 문장이 무엇에 대해 얘기하는지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 화제에 대해 서술하는 부분이다. 화제는 문법관계로서의 주어와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한국어 등의 화제부각(topic-prominent) 언어에서는 문법적 주어가 아닌 목적어 등의 성분도 빈번히 화제가 되기 때문이다.<sup>31)</sup> 주어부각(subject-prominent) 언어인 영어의 경우에도 주어와 화제가 일치하지 않는 비인칭 주어 같은 예외들이 있다. 그럼에도 문법적 주어와 화제가 종종 혼동되는 이유는 이 둘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절에서는 화제부각 언어의 유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É. Kiss(2001)를 참고하여 정리하고 일부 논점을 비판해 보고자 한다.

대다수의 언어는 화제-부각 유형인데,<sup>32)</sup> 화제 실현의 유형에서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화제가 영어, 스웨덴어, 헝가리어 등에서는 어순으로 표시되고, 한국어, 일본어, 아이마라어, 케추아어 등에서는 형태적으로 표시된다. É. Kiss(2001)는 기타 화제부각 유형의 부차적 차이로 화제의 격 제한과 통사 범주, 화제의 개수, 화제의 상대적 순서 등이 있다고 하였다.

한국어와 같은 화제부각 언어들은 논항 중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화제를 선택한다. 다음 예는 목적어나 부사어도 화제로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 (6) 가. Q: 밥은 철수가 먹었니?  
A: 응, 밥은 철수가 먹었어.

---

31) Li & Thompson(1976)은 리수어, 라후어, 중국어, 한국어 등에서 다양한 문장 성분이 문두에서 화제 역할을 한다는 점 들어 '화제부각 언어(topic-prominent languages)'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반면에 영어와 같은 언어들은 '주어 부각 언어(subject-prominent languages)'로서 문두의 주어가 화제로 기능한다.

32) É. Kiss(2001)에 의하면, 순수한 주어-술어 유형은 매우 드물고, 대부분의 언어가 화제부각 언어이다. 그러므로 화제-부각의 어떤 하부유형인지, 어떤 제약에 따라 화제가 선택되는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하였다.

- 나. Q: 방에는 누가 있니?  
 A: 방에는 철수가 있어.

위의 각 예문에서 ‘밥은’과 ‘방에는’이 문법적 주어 아님에도 화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주어진 구정보를 화제라고 한다면 (6가)의 ‘철수가’와 (6나)의 ‘있어’도 화제라고 보아야 하겠지만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 연구에서는 이 ‘철수가’와 ‘있어’가 화제도 초점도 아닌 바탕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화제 관련 통사 구조를 논의할 때 화제 이동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화제 이동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예를 많이 든다.

- (7) 그리스어 (Tsimplici 1995:177)  
to vivlio to-edhose i Maria sto Yani.  
 the.ACC book it-gave.3P the.NOM Maria to.the.ACC Yani  
 'The book, Maria gave it to Yani.'

위의 문장에서 화제화된 목적어 ‘the book’이 화제위치인 문두로 이동하고, 동사구 내부 논항 위치에는 복원적 대명사(resumptive pronoun) ‘to’가 채워진 것으로 분석한다. 하지만 이동이란 기제는, 통사 심층구조의 구조적 위치에서 격을 받는다고 설명이 가능한 영어에서는 적합할지 모르나, 격표지가 형태적으로 드러나는 언어들에까지 이런 설명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특히 격표지나 화제표지가 동시에 형태소로 실현되는 한국어, 아이마라어 등은 관련 형태 표지들이 통사적 기제와 상관없이 의미부에서 직접적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간결하고 설득력이 있다.

카탈란어(Vallduví 1992)나 헝가리어(É. Kiss 1987)는 다중 화제 구조를 낳는 중복 화제 이동을 허용한다는 주장이 있다.

- (8) 카탈란어 (Vallduví 1992: 박철우(2003:48)에서 재인용)  
El bròquil a l'amo l'hi **van regalar**.  
 the broccoli to the boss it.him AUX.3P.PAST give  
 ‘브로콜리는 사장에게는 (그것을 그에게) 거저 주었다.’

(9) 헝가리어(É. Kiss 1987: 76)

Mari-t Jano-s meg hívta.  
Mary-ACC John-NOM PREV invited  
'매리(를)는 존은 초대했다.'

É. Kiss(1987)는 헝가리어 예문 (9)에서 주어와 목적어의 무표적인 위치는 동사 뒤인데, 위의 문장은 두 논항 모두 동사 앞에 위치하므로 문두의 화제 위치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한다. 그에 따르면 두 화제는 서로 위치를 바꿀 수 있고 의미 상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화제-술어 구조의 술어 내부에 또 하나의 화제-술어 구조가 내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술어에 두 참여자가 복수의 화제로 기능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논항이 화제 위치에 있다고 해서 둘 다 화제로 보아야 할지는 의문이다. 한국어나 아이마라어와 대조해볼 때 둘 중 하나는 대조성을 띠거나 아니면 화제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sup>33)</sup> 즉, 정보구조 삼분체계의 바탕일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É. Kiss(2001)는 아래의 예를 통해, 복수의 화제 구조를 허용하는 언어 중에서 스페인어는 두 화제의 상대적 위치가 자유롭지만, 반대로 영어는 고정되어 있다고 하였다.

(10) 스페인어 (É. Kiss 1997)

가. A Juan, Maria llegó a conocer-lo.  
John, Mary got to know.

나. Maria, a Juan, llegó a conocer-lo.  
John, Mary got to know.

위의 예문 (가)의 경우 주어가 일반적으로 화제라는 견해 때문에 화제가

---

33) 이 연구의 결론 중 하나는 아이마라어의 경우 화제 관련 표지가 바탕에도 붙는 언어 유형이라는 것이다. 즉, 이런 언어 유형의 경우 화제 표지 두 개가 실현되어 있더라도, 하나는 바탕을 표시한다. 또는 대조 화제 표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대조화제일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관찰을 토대로 위의 카탈란어나 헝가리어의 경우도 아이마라어와 같은 유형의 언어일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화제가 둘이 아니라, 둘 중 하나는 바탕이거나 대조화제일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둘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별도의 화제가 제시된 경우에 주어를 화제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개 화제가 둘인 문장을 억지로 만들게 되면 대조성을 띤 특수한 문맥을 제시해야만 이해되지만, (가)의 문장은 자연스러운 문장이기 때문에 화제는 하나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바탕의 존재를 인정하고 바탕으로 해석하면 이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이다. (나)의 문장은 조금 더 복잡한 데, 동사 앞의 'a Juan'을 화제로 볼 수 있는지가 의심스럽다. 유표적 어순에 의한 강조의 효과 또는 초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어, 케추아어(Muysken 1994), 일본어(Kuroda 1972)에서 화제는 형태소로 표시되는데 반해, 헝가리어는 주로 강세로 확인된다. 즉 헝가리어는 서술부의 첫 번째 성분에 강세가 오므로(É. Kiss 1987: 43) 서술어 강세 앞이 화제 위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어순과 강세를 관련 표지로 하는 유형의 경우, 어순과 강세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화제와 초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강세가 오는 위치가 서술부의 첫 번째 성분이라든지 그에 따라 화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든지 하는 설명은 너무 단순화된 것으로 보인다.

부사가 화제로 기능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동사구 외부에 위치한 것이 분명한 문장 부사 '아마도', '분명히' 등은 동사의 논항 위치를 결속하지 않으므로 화제 역할에 적합하지 않지만, 시간 공간 부사는 동사의 선택적 논항을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화제로 분석될 수 있다고 한다(É. Kiss 1987). 그러나 이러한 주장도 이동의 기제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화제 이동을 확신할 수 없는 언어들까지 적용하기에는 무리이다. 그러므로 한국어나 아이마라어처럼 관련 형태소가 발달한 언어를 우선적으로 분석하여 화제의 본질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한다.

대조화제는 연구자와 언어에 따라 의견이 달라서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다. Erteschik-Shir(2007)은 아래 예문 (11)을 들어 대답문에서 JOHN은 전제된 부분이고 술어가 개체층위 술어이므로 초점이 아니라 화제라고 하였다. 그러나 영어처럼 억양으로 화제와 초점을 구분하는 언어는 억양이 가진 모호성 때문에 화제인지 초점인지에 대한 판단이 연구자마다 제각각

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화제-초점의 명확한 형태 표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마라어나 한국어와 대조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아래의 (12)는 (11)에 대응하는 아이마라어 문장과 한국어 해석이다. (12)의 대답(A,A')의 아이마라어와 한국어 해석을 보면 대조화제와 배제적 초점(확인 초점)이 둘 다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11) Q: Tell me about your brothers John and Bill.

A: JOHN is the smart one.<sup>34)</sup>

(12) Q: Juma-n jilata-naka-ma Juanu-mp Billu-mp-xat parl-ita.

2P-of brother-PL-your Juan-and Bill-and-about tell-2>1P.IMP  
 '너-의 형제-들 후안-과 빌-(과)-에 대해 얘기해 줘.'

A: Juanu-sti ch'iki-wa.

Juan-TOP.CONTR smart-FOC  
 '후안-은 영리해.'

A': Juanu-w ch'iki.

Juan-FOC smart  
 '후안-이 영리해.'

위 예문 (12)의 대답 둘 다 질문자가 예상하는 전형적인 대답은 아니기 때문에 어색할 수는 있지만, (A)는 '빌은 후안과 다르게 어떡하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 (A')는 '영리한 것은 후안이야'라는 의미를 띤다. 사실 질문-대답 쌍은 표준적인 대답에서의 화제-초점을 확인하는 데는 좋은 도구가 되지만, 대답하는 화자가 질문의 의도나 방향을 바꾸어 자신의 의도를 새롭게 반영하는 경우는 사정이 달라진다. 그 경우는 대답문에서 나타나는 표지를 통해서만 점검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정보구조의 연구는 명확한 화제-초점의 형태표지를 가진 언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더 정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대조성을 다룰 때, Vallduví(1992)와 Lambrecht(1994)

34) Erteschik-Shir(2007)가 대문자로 표시한 'JOHN'이 A-악센트를 표시한 것이라면 왜 이것을 확인초점(배제적 초점)으로 보지 않았는지가 이상하다. 영어 또한 아이마라어의 초점표지와 대조화제 표지처럼 초점의 A-악센트와 대조화제의 B-악센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는 이 대조성을 정보구조 범주에 넣지 않았다. 대신 화자와 청자 간에 이루어지는 함의와 추론의 결과로 대조적 의미가 가능해진다고 간주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아이마라어와 같은 언어들에 대조적 화제를 표현하는 별도의 문법 표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

제언문(thetic sentence)은 문장 전체가 초점이 되는 경우로서 화제가 없는 문장이다. 제언문은 화제와 관련하여 언어별로 다양한 유형을 보여준다. 영어, 스웨덴어 등은 제언문의 비어있는 화제 위치를 허사(expletive)로 채우는 독특한 유형이다.

- (13) 스웨덴어 (É. Kiss 2001)  
Det står en katt vid dörren.  
 there stands a cat at the.door

대부분의 유럽어들은 화제가 내포절에서 주절로 이동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때 화제 성분은 복원성 대명사(resumptive pronoun) 또는 빈 논항에 부여된 격을 가져야 한다. 다음 스페인어의 예에서 화제인 'a Juan'이 내포절에서 부여되는 원래의 격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14) A Juan, dudo que lo conozca Maria. (É. Kiss 1997)  
 John, I.doubt that him knows Maria  
 'John, I doubt that Mary knows.'

그리스, 이탈리아, 러시아어는 화제가 원래의 격 외에 주격도 허용하는 현상을 보여준다고 한다.

- (15) 그리스어 (Tsimpli 1995: 180)  
 가. Tus fitités, óli i kathijités tus-ipostirízun  
 the.ACC students all the lecturers them-support.3PL  
 '그 학생들을 모든 선생님들이 지원한다.'  
 나. I fitités, óli i kathijités tus-ipostirízun  
 the.NOM students all the lecturers them-support.3PL  
 '그 학생들은 모든 선생님들이 지원한다.'

이 경우 영어의 화제 이동 현상을 바탕으로 (가)의 대격도 화제로 취급하

였다. 그러나 그리스어는 영어와 달리 대격도 별도의 형태적 격표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장성분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데 영어와 동일한 분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물론 대부분의 언어에서 문두 성분이 화제가 되는 현상은 보편적이다. 그러나 (가), (나) 각각의 의미가 완전히 동일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즉 (가)의 ‘그 학생들을’이 화제가 아니고, 초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sup>35)</sup>

### 3.4. 초점부각 언어

문장의 초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확인초점(identification focus)과 정보초점(informational focus)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확인초점은 담화 상 주어진 개체의 집합 중 일부를 확인하는 초점이고, 정보초점은 신정보 또는 비전제 정보에 부여되는 초점으로서 가장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초점이다. Kuno(1972)는 이 두 초점에 대해 각각 총망라적 거론(exhaustive listing)과 중립 기술(neutral description)이라고 했다. 초점을 형태, 통사, 음운적으로 표시하는 문법표지를 가진 언어를 초점부각 언어(focus-prominent)언어라고 할 수 있다(É. Kiss 2001). 이 절에서는 초점부각 언어의 유형론을 É. Kiss(2001)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비판하였다. 우선 아래의 헝가리어를 예로 들어 확인초점의 유형론을 살펴보자.

(16) 헝가리어 (É. Kiss 2001)

Jáno-s **MARI-T** hívta meg vacsorára.  
 John-NOM Mary-ACC invited PREV to.dinner  
 ‘존-은 **매리**-를 초대했어 저녁식사에.’

위의 헝가리어 예를 보면, 확인초점이 주어진 성분은 동사 앞으로 이동하

---

35) 유표적인 어순 또는 억양이 화제와 초점을 표현하는 명확한 두 개의 표지로 나뉘지 않는다면, 그 유표적인 어순 또는 억양은 단순히 강조에 의한 초점일 수 있다. 이 예에서는 문두의 ‘그 학생들을’이 초점이 되고, 화제는 담화에서 전제되어 생략된 요소일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우리학교에서는’ 정도의 논항이 실제 화제일 수 있다.

고 강세가 주어진다. 이 확인초점의 의미는 담화에 주어진 잠재적 후보군 중에 다른 이가 아니라 매리를 초대했다는 의미이다. 이런 예문을 바탕으로 É. Kiss(2001:1449)는 확인초점을 구조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언어를 초점부각 언어라고 하였다. 이런 현상은 한국어 해석문에서도 ‘매리를’에 강세가 주어지면 동일하게 확인초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엄밀히 따져보면, 확인초점을 요구하는 문맥이라고 하더라도 강세는 필수가 아니다. 한국어의 경우를 보면, ‘존은 친구들 중에 누구를 초대했니?’라는 질문에 반드시 ‘매리를’에 강세를 부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반대로 정보초점을 요구하는 문맥인 ‘존은 누구를 초대했니?’라는 질문에도 ‘매리를’에 강세를 줄 수 있다. 이 경우는 단순히 정보초점을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초점에 배제적 해석을 부여하는 것은 화용론적 문맥이지 별도의 확인초점 표지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헝가리어에서도 동일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확인초점 표지가 있는 언어가 초점부각 언어’라는 É. Kiss(2001:1449)의 주장은 재검토되어야 할 듯하다.

앞의 예와 동일한 관점에서 영어 분열 구문 (17)에 대해 확인초점으로 간주하는 입장이 있다(Rooth 1996, É. Kiss 1998).

(17) It was a coffee that I ordered.

그러나 이 영어 분열문도 마찬가지로 확인초점뿐만 아니라 정보초점을 강조하는 용법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확인초점 표지로 볼 수 없다.<sup>36)</sup> 이러한 혼란 때문에 초점에 대조 표지가 없다고 확신하는 연구자들이 생겼고, 대조화제 표지까지 부정하는 상황이 된 것으로 추측된다. 앞 절에서 언급했듯이 Vallduví(1992)와 Lambrecht(1994)가 정보구조 범주에 대조성을 넣지 않은 것이 그 예이다.

만약 한국어, 헝가리어, 영어에 확인초점 표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확인초점 표지를 가진 언어 유형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 아래의

---

36) É. Kiss (2001:1451) 스스로도 “If Rooth(1996) and É. Kiss(1998) are right in claiming that the identificational focus in English is the cleft constituent...”라고 불확실한 어투로 주장하고 있다.

아랍어 예문 (18)의 비문 판단이 확실하다면 확인초점의 형태-통사적 존재를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18) Arabic (Ouhalla 1994: 66)

Q: maaḏaa sariba Zayd-un?  
 what drank Zayd-NOM  
 'What did Zayd drink?'

A: sariba Zayd-un **saay-an**.  
 drank Zayd-NOM tea-ACC  
 'Zayd drank tea.'

A':\* **Saay-an** sariba Zayd-un  
 tea-ACC drank Zayd-NOM  
 'It was tea that Zayd drank.'

(19) **Saay-an** sariba Zayd-un laa 'asiir-an.  
 tea-ACC drank Zayd-NoM not juice-ACC  
 'It was tea that Zayd drank, not juice.'

아랍어 예문 (18)의 질문에는 음료의 집합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대답에서 요구하는 초점은 확인초점이 아니라 정보초점이다. 즉 차 외의 다른 음료를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문두 성분이 확인초점이 되는 아랍어의 (A') 구조는 질문에 대해 비문이 된다. 반면 (19)의 경우 '주스가 아닌 차'를 먹었다는 의미로서 개체의 집합이 주어진 문맥이므로 확인초점 구조가 가능해진다.

초점 구조의 유효성 정도에 대해 살펴보면, 그리스어, 헝가리어는 초점 구조가 영어보다 흔하게 나타난다. 즉 영어에서는 분열구문으로 나타나는 초점 구조가 드물고 유효적인데 반해, 그리스어, 헝가리어에서는 무표성이 강하다. 이 언어들과 달리 소말리아어는 초점이 형태적으로 실현되는데 모든 문장이 초점 구조를 가져야 한다(Svolachhia 1994).

확인초점을 통사적 표지로 나타내는 언어는 루마니아어, 이탈리아어, 카탈란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등이 있다. 이 중 그리스어와 헝가리어는 확인초점이 반드시 통사적 이동을 통해 실현되지만, 루마니아어, 이탈리아어, 카탈란어는 이동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진다.<sup>37)</sup> 반면에 키쿠유어, 소말리어, 케추아어, 하이다어, 한국어는 초점이 형태적으로 실현된다. 아랍어

의 경우는 초점이 형태적으로 표시되면 초점이동이 필요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초점 위치로 이동해야 한다.

초점의 분포도 언어 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소말리어, 케추아어, 하이다 방언 일부는 초점이 주절과 시제절로 제한되고, 그리스어는 복합문에서 주절, 내포절 상관없이 한 개의 초점만 허용된다.

### 3.5. 요약 및 논의

지금까지 정보구조가 실현되는 방식과 관련 개념들을 언어 유형의 보편성과 특수성 차원에서 함께 살펴보았다. 이는 5장의 본격적인 논의 전개에 필수적인 배경을 마련해준다. 왜냐하면 5장에서 제시된 예문과 설명은 모두 이 장에서 제시된 유형론적 기준에 따라 구성-수집-분석된 자료들이기 때문이다. 즉 아이마라어 정보구조를 조사함에 있어서 왜 그러한 질문지를 만들고 그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였는지, 또 분석의 기준과 방향은 왜 그렇게 설정하였는지에 대해 근거를 제공해준다. 다시 말하면, 이 장에서 정리한 유형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아이마라어 화제-초점 표지가 갖는 대조성, 특정성, 제언문의 특성 등 화제-초점과 결부하여 분석해야 할 요소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다.

화제를 분석할 때는 화제가 문장 내부에서 어떻게 구조적으로 표시되는지를 보아야 하고, 해당 문법 표지가 담화 상 기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아야 한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화제가 어떤 문법관계를 표시할 수 있는지, 복수의 화제가 가능한지, 그렇다면 화제 간 상대적 순서가 존재하는지 등을 점검해 볼 수 있다.

초점을 분석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질문-대답 쌍을 통해 실현 양상을 점검할 수 있으므로 초점이 통사적으로 실현되는지 형태적으로 실현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배타적 초점과 정보초점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따

---

37) É. Kiss(1998)는 선택적인 확인초점의 실현에 대해 초점 이동이 LF까지 연기된다고 보았다.

져보아야 한다. 또한 초점 표지의 수의성과 복합문에서의 제약 등도 확인이 필요하다.

대조성은 정보구조를 통해 나타나는 중요한 자질이므로 대조초점과 대조화제의 문법적 표현 기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정성은 화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특정성이 부여되는 여러 문맥 속에서 정보구조 표지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특히 주목하는 구조로서 화제가 없는 제언문은 화제표지 점검의 좋은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정보구조를 분석할 때 필수적인 요소이다.

위에서 살펴본 정보구조 유형론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분석(5장)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 4장에서는 아이마라어 정보구조 분석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아이마라어 문법 범주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 제4장 아이마라어 문법 특징

### 4.1. 개관

이 장에서는 다음 5장에서 본격적으로 아이마라어의 정보구조를 분석하기 전에, 정보구조의 분석에 필요하거나 정보구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문법 범주들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보구조는 명사구의 표현을 위주로 실현되므로, 명사구의 구조, 명사구를 만드는 명사화 및 관계화 기제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상관관계절을 포함한 종속절 구조에서 아이마라어의 화제에 사용되는 {-xa}가 ‘배경(background)’을 표시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장의 전반부는 아이마라어의 기본 문형이나 격 체계 등의 기본적인 문법을 다루고 있는데, 아이마라어라는 지구 반대편 남미의 생소한 언어를 처음 소개하는 만큼 최대한 간략하면서도 필요한 내용을 간추리려 하였다.

또한 아이마라어의 독특한 문법 현상 중 하나로 복잡한 동사 인칭 활용이 있다. 동사와 논항 간의 일치 현상 및 논항 생략은 화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분석해 볼 것이다. 이는 다음 5장에서 다루는 많은 아이마라 예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

우선 언어를 유형론적으로 분석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타동성 관련 논항의 정렬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 언어의 정렬 유형은 정보구조와의 관련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온 문제이기도 하다.

### 4.2. 아이마라어 문법 특징

#### 4.2.1. 아이마라어의 기본적 구조

아이마라어는 영어나 한국어와 같이 주격-대격 정렬(nominative-accusative alignment) 언어이다. 즉 1자리 동사<sup>38</sup>가 요구하는 논항을 S

라고 하고, 2자리 동사가 요구하는 논항 중 행위주(agent)를 A, 피동주(patient)를 P라고 하고 할 때, A와 S를 주격으로 표시하고 P를 대격으로 표시한다. 이 논항들은 동사의 인칭 활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주격으로 표시되는 주어는 항상 동사의 인칭 활용에 반영되고, 대격 등의 논항은 조건에 따라 동사의 인칭 활용에 반영 여부가 결정이 된다.

(1) 자동사 행위주 주어

Anu-x jala-ya:ta-wa.<sup>39)40)</sup>  
 dog-BG<sup>41)</sup> run-3P.PAST-FOC  
 ‘개-가 달렸다.’<sup>42)</sup>

(2) 자동사 피동주 주어

Qala-x jalaqt-i-wa.  
 stone-BG fall-3P-FOC  
 ‘돌-이 떨어졌다.’

(3) 타동사 행위주 주어

Uka jaqi-x quqa-law-∅ katthap-i.  
 that man-TOP tree-stick-ACC grab-3P  
 ‘그 남자-는 나무-가지-를 붙잡았다.’

---

38) 이 글에서는 개념의 혼란이 없는 경우에 1자리 동사는 자동사로, 2자리 동사는 타동사로 취급하였다.

39) ‘x’표기는 /x/ 즉 목젓 마찰음(보다 정확하게는 post-velar fricative)이다. 동일한 조음점의 목젓 파열음 표기는 ‘q’ /q/이다. ‘ñ’과 ‘ll’은 각각 경구개 비음 /ɲ/과 경구개 유음 /l/이다. ‘j’는 연구개 마찰음 /x/이다. 이와 같이 이 연구의 표기법은 대부분 현지 스페인어식 표기를 따랐다.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사용한 표기법은 장모음 표기 ‘:’이다. 이 기호는 현지 표기에서 ‘¨’(예를 들면 ä, ï, ü)로 표기된다.

40) 이 문장의 주어에 결합한 정보구조 표지 {-xa}는 어말모음이 탈락되어 ‘x’가 되었다. 아이마라어는 문장 앞이나 가운데의 성분이 3음절 이상이면 항상 어말모음이 탈락하고, 문장 끝에서는 어말모음이 항상 유지된다.

41) {-xa}접사는 화제 표지, 연화사(attenuator) 등의 명확하게 분석되지 않는 다양한 기능으로 알려져 있는데(Hardman 2001), 정보구조의 측면에서 분석하면 초점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인 배경(Background)을 표시하는 표지로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단순히 ‘TOP(화제)’로 표기하고 화제가 아닌 경우 ‘BG(배경)’로 표기하였다.

42) 아이마라어의 형태소 구조가 한국어와 동일한 경우, 번역문에도 형태소 경계를 ‘-’로 표시하였다.



(4) 타동사 피동주 목적어

Jupa-x naya-ru-w<sup>43)</sup> katthap-itu.

3P-TOP 1P-ACC-FOC grab-3>1P

‘그-는 나-를 붙잡았다.’

다음으로 아이마라어의 가장 단순한 문장 구조를 보자. 아이마라어의 문장은 명사 술어문과 동사 술어문으로 나눌 수 있다. 명사 술어문은 일반적인 계사 구문에 해당하는데 아이마라어의 계사는 장모음화로 나타난다. 다음 (5)에서 예문 (가), (나)는 1,2인칭 주어 명사 술어문에서 술어 명사가 계사적 장모음을 통해 동사화되고 인칭활용까지 하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에 (다)에서 보듯이 3인칭 주어의 경우는 계사적 장모음도 없고 인칭활용도 하지 않는다.

(5) 가. Naya-x yatiqiri-:-t-wa.<sup>44)</sup>

1P-TOP student-COP-1P-FOC

‘나-는 학생-이다.’

나. Juma-x yatichiri-:-ta-wa.

2P-TOP teacher-COP-2P-FOC

‘당신-은 교사-이다.’

다. Aka-x pank-a-wa.

this-TOP book-FOC

‘이것-은 책-이다.’

존재나 소유를 나타내는 -nka 명사 술어문도 있다. ‘~에 있다’의 구문이 문법화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동사화 파생접미사로만 쓰인다. 아래는 그 예이다.

(6) 가. Liwru-x aka-nk-i-wa.

book-TOP here-at.be-3P-FOC

‘책-은 여기 있다.’

43) 무정물이 목적어일 때는 대격 표지가 ‘-ø(어말모음 탈락)’로 실현되지만, 유정물(특히 사람)이 목적어일 때는 대개 -ru(여격 표지)로 실현된다.

44) 전통적인 Yapita문법서는 계사로 기능하는 장모음화를 ‘...’(예를 들면 ä, ï, ü)로 표기하지만, 볼리비아 학자에 따르면 최근 현지의 문법서에서는 표기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연구에서는 장모음화를 ‘:’로 표기하였다.

나. Aka-x naya-nk-i-wa.  
 this-TOP 1P-at.be-3P-FOC  
 '이것-은 나-에게 있다.' (이것은 나의 것이다)<sup>45)</sup>

동사 서술어의 경우는 아래의 예문만 간단히 언급하고 뒤에서 동사 인칭 활용체계를 설명할 때 자세히 다루겠다. (7)의 (가,나,다)는 각각 1, 2, 3인칭이 주어로 나오는 문장이다.

- (7) 가. Naya-x manq'-t-wa.  
 1P-TOP eat-1P-FOC  
 '나는 먹었다.'  
 나. Juma-x qillq-ta-wa.  
 2P-TOP write-2P-FOC  
 '너는 썼다.'  
 다. Jupa-x ull-i-wa.  
 3P-TOP read-3P-FOC  
 '그-는 읽었다.'

다음으로 명사구에 결합하는 접미사 중 격표지를 소개하려 한다. 편의상 동사의 인칭활용에 참여하는 경우를 격표지로 하여 포함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후치사로 분류하여 제외하였다.

- (8) 가. **대격 : -∅ (어말모음 탈락)**  
 Jupa-x t'ant-∅ manq'-i.<sup>46)</sup>

45) 소유 표현을 다음과 (가)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나)처럼 utja-ña '존재하다' 동사를 써서 존재구문으로 표현하면 의미가 조금 달라진다.

- 가. Jupa-x panka-ni-wa.  
 3P-TOP book-owner-FOC  
 '그-는 책-소유자이다.'  
 나. Jupa-n panka-x utj-i.  
 3P-at book-BG exist-3P  
 '그-에게 책-이 있다.'

46) 이 문장에서 대격 표지 뒤에 영형태의 초점표지 {-wa}가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Hardman(2001:172)은 처격 '-n', 탈격 '-t', 대격 -∅ 뒤에서 {-wa}가 영형태 -∅ 로 나타나지만 예외적으로 문말에서는 복원된다고 보고 있는데 적절하지 않은 분석이다. 반면에 이 연구에서는 모든 격표지 뒤에서 기본적으로 초점표지가 실현되지만, 자음 뒤의 음운환경에서만 영형태로 실현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다른 격표지의 경우는 모두 어기가 어말모음으로 끝나는 환경에서 초점표지가 결합하는데, 이 세 경우만 어말자음

3P-TOP bread-ACC eat-3P  
'그-는 빵-을 먹었다.'

나. 여격 : -ru

Juma-x Jupa-ru-w manq'-∅ chur-ta.  
2P-TOP 3P-to-FOC food-ACC give-2P  
'너-는 그-에게 음식-을 주었다.'

다. 탈격 : -t

Naya-x Corea-t jut-ta.  
1P-TOP korea-from come-1P  
'나-는 한국-에서 왔다.'

라. 수혜격 : -taki

Jupa-x wawa-pa-taki-w sar-i.  
3P-TOP baby-his-for-FOC go-3P  
'그-는 아이-를 위해 갔다.'

마. 도구격 : -mpi<sup>47)</sup>

Jiwasa-x panka-mpi yatiq-tan.  
we-TOP book-with learn-1P.INCL  
'우리-는 책-으로 배운다.'

바. 처격/속격 -n

Na:-naka-x uta-ja-n utja-px-t-wa.  
1P-PL-TOP house-my-at exist-PL-1P.EXCL-FOC  
'우리-들은 집-에 있다.'  
Juma-n tareya-m-∅ lura-m.  
2P-of task-your-ACC do-IMP  
'너의 숙제-를 해라.'

다음으로 아이마라어의 의문문과 부정문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겠다. 우선 설명의문문은 의문사에 항상 {-sa} 접사가 결합하여 의문사구를 형성한다. (9가)의 경우 어순은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정보구조의 차이가 있는지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sup>48)</sup>

---

뒤에 초점표지가 결합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어말자음인 C\_의 환경에서 Cw는 발음되기 힘들기 때문에, 음운론적 제약으로 -w가 -∅로 실현된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원어민 조사결과 생략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강조하여 말할 때는 -w가 발음될 수 있는 것으로 관찰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이 접사들을 Hardman(2001)의 표기법에 따라 음운제약을 표기하면 -vna<sub>c</sub>, -vta<sub>c</sub>, -c∅<sub>c</sub> 로 표기하는 것이 맞고, 이들을 후행하는 {-wa}의 이형태는 모두 -∅로 보아야 한다.

47) 'Naya-mp Juma-mpi sar-i.(나랑 너랑 갔어)'처럼 공동격으로도 쓰인다.

- (9) 가. **Kuna-s aka-xa?** / **Aka-x kuna-sa?**  
 what-FOC this-TOP this-TOP what-FOC  
 ‘이것은 무엇이나?’  
 나. **Khiti-s sar-i?**  
 who-FOC go-3P?  
 ‘누가 갔니?’  
 다. **Kawki-ru-s sar-ta?**  
 where-to-FOC go-2P  
 ‘어디로 가니?’  
 라. **Qhawqh-ø-s mun-ta?**  
 how.much-ACC-FOC want-2P  
 ‘얼마를 원하니?’

‘왜’나 ‘어떻게’에 해당하는 의문문은 별도의 의문사가 없고 ‘무엇’에 해당하는 의문사 **kuna**와 여러 가지 격표지를 결합하여 사용한다.

- (10) ‘왜’ 의문사구: **Kuna-ru-s** “무엇을 위해” (무엇을 향해)  
 what-to-FOC  
**Kuna-t-s** “무엇 때문에”  
 what-from-FOC  
**Kuna-taki-s** “무엇을 위해”  
 what-for-FOC  
 (11) ‘어떻게’ 의문사구: **Kun-jama-s** “어떻게”  
 what-like-FOC

판정의문문은 일반적으로 (12)와 같이 문말에 {-ti}를 붙여서 표현한다. 하지만 부정문 형태의 판정의문문은 (13)처럼 부정부사 **jani**에 {-ti}가 결합한다.

- (12) **Juma-x eskuela-r sar-ta-ti?**  
 2P-TOP school-to go-2P-FOC?

---

48) 이 연구의 결론 중 하나는 배경표지 {-xa}가 문두에서 화제를 표시하는데, 이 경우 한국어는 화제표지 {-는}에 대응된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xa}가 바탕을 표시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한국어의 {-가}에 대응된다. 이러한 점을 미리 적용해서 분석해보면 (9 가)는 주어가 바탕으로 ‘이것이 무엇이나?’로 해석 가능하고, (나)는 주어가 화제로서 ‘이것은 무엇이나?’로 해석할 수 있다.

‘너-는 학교-로 갔니?’

- (13) **Jani-t** Juma-x eskuela-r sar-k-ta?  
 not-FOC? 2P-TOP school-to go-NEG-2P  
 ‘너는 학교로 가지 않았니?’

부정문은 부정부사 jani<sup>49)</sup>를 써서 표현하는데 독특한 것은 서술어에도 항상 부정과 호응하는 접사 두 가지가 붙는다는 점이다. 즉 부정문에서는 동사 뒤에 항상 미완료상을 나타내는 -ka-가 결합하고, 그 뒤에 활용 어미가 붙은 후에, 마지막으로 {-ti} 접사가 붙는다.<sup>50)</sup>

아래는 전형적인 부정문의 예이다. 부정부사구 ‘jani-w’의 어순은 문장 내 어디에 위치하더라도 상관없다.

- (14) **Jani-w** iskuela-r sar-k-i-ti.  
 not-FOC school-to go-NEG-3P-NEG  
 ‘학교로 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아이마라어의 복문 구성을 보도록 하겠다. 아이마라어는 한국어의 연결어미와 유사한 접미사를 가지고 복문을 구성한다. 하지만 그 개수는 4~5개로 단순한 편이다. 이 접미사들은 동사에 시제나 양태를 포함하지 않는 비시제절 또는 비한정절(infinite clause)을 형성한다. 아래는 각각의 예이다.

- (15) -iri : ~하러, ~하려고 (목적)  
 Pank-∅ al-iri-w sar-i.  
 book-ACC buy-SUB-FOC go-3P  
 ‘책-을 사-러 간다.’
- (16) -sa : ~하며, ~하면서, ~하고 (동시, 병렬)  
 Cafe-∅ uma-sa-x pank-∅ ull-ta.  
 coffee-ACC drink-SUB-BG book-ACC read-1P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었다.’

---

49)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j’표기는 스페인어 표기법을 따라서 연구개 마찰음 /x/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jani’ 표기는 /xani/를 나타낸다.  
 50) 부정문의 {-ti} 접사는 방금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판정의문문을 만드는 접사와 동일한 형태이다. 의문문의 {-ti}와 부정문의 {-ti}가 동일한 의미에서 파생된 것인지도 흥미로운 주제이다.

(17) -sina : ~하고서, ~하고나서 (계기)

uta-r juta-sin-x<sup>51)</sup> samar-i.

house-to come-SUB-BG rest-3P

‘집-에 와-서 쉬었다.’

(18) -ipan : ~하면(조건), ~해서/~하자(이유)

awki-naka-x jiw-ipan-x<sup>52)</sup> jaya marka-r sar-i.

parent-PL-BG die-SUB-BG far city-to go-3P

‘부모-들이 죽-자 먼 마을-로 갔다.’

복문을 구성할 때 유일하게 시제절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마라어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xa} 접미사를 활용한 복문이다. 아래 (19)에서 {-xa} 접사가 조건을 나타내는 종속문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잘 보면 앞의 (16)~(18)의 종속문에서도 종속문의 끝에 이 {-xa} 접사가 결합했는데, 이처럼 다양한 용법으로 쓰이는 {-xa}의 정확한 기능이 무엇인지가 이 연구의 핵심이 되는 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19) {-xa} : ~하면 (조건)

Pacha<sup>53)</sup> utj-i-x sar-t-wa.

time exist-3P-BG go-1P-FOC

‘시간 있으면 간다.’

복문을 구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접속부사는 한국어와 일본어처럼 대명사에 여러 접미사를 결합하여 만든다.

- |                            |                   |
|----------------------------|-------------------|
| (20) 가. ukatx ‘그리고, 그래서’ : | uka-t-xa          |
|                            | that-from-BG      |
| 나. ukhamax ‘그러면’:          | uk-jama-xa        |
|                            | that-like-BG      |
| 다. ukampis ‘그러나, 그래도’ :    | uka-mpi-sa        |
|                            | that-with-also    |
| 라. ukhamsipan ‘그런데’ :      | uk-jama-sa-ipan   |
|                            | that-like-say-SUB |

51) (17), (18) 예문의 경우 -sina와 -ipan을 바꿔 써도 의미가 통한다고 한다.

52) switch reference: 주절과 종속절의 주어가 다르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고 한다.

53) pacha-x가 불가능한 이유는 문장 전체의 주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 4.2.2. 아이마라어 동사의 인칭 활용

아이마라어 동사의 인칭 활용은 단순화하여 말하면 주어와 목적어를 동시에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sup>54)</sup> 주의할 점은 주어를 반영한 활용은 인구어에서 보이는 인칭활용과 유사하지만, 목적어를 반영한 활용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점이다. 주어 인칭별 동사 활용 어미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21) 주어 인칭에 따른 동사 일치

주어의 인칭	인칭대명사	동사 활용 어미
1인칭	naya	-t 55)
2인칭	juma	-ta
3인칭	jupa	-i
4인칭 (1인칭복수 청자포함)	jiwasa	-tan

(22) Juan-x Mario-r jayll-i.

Juan-TOP Mario-DAT sing-3P

‘후안-은 마리오-에게 노래했다.’

다음으로, 목적어와 관련한 동사의 인칭 활용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1, 2인칭의 대격, 여격, 탈격 등을 반영하므로 ‘2차 참여자(secondary participant)’를 반영한다고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sup>56)</sup> 다시 말하면, 화자와 청자의 사건 참여 여부를 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아래는 2차 참여자가 반영된 동사 인칭 활용 표이다. 그 다음 예문은 3인칭 주어 및 1인칭

54) 이는 아메리칸 인디언어에서 흔히 발견되는 문법현상이다. 그러나 아이마라어가 보이는 차이점은 주어와 목적어 인칭을 표시하는 접사가 각각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형태소로 융합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55) 다른 문법서들은 1인칭 활용어미를 -ta로 기술하고 있는데, 2인칭과의 차이를 부각하기 위해 어중형 -t를 기본으로 삼았다.

56) 주어를 ‘1차 참여자(primary participant)’라고 할 때, 동사 인칭 활용에 반영되는 제 2의 논항을 ‘2차 참여자(secondary participant)’라고 정의하였다. 엄밀한 정의라기보다 문법 설명을 위해 편의상 취한 개념이다.

2차 참여자와 일치하는 동사 활용을 보여준다.

(23) 주어와 목적어 인칭에 따른 동사 일치 (타동사)<sup>57)</sup>

주어 인칭	2차 참여자	인칭대명사	활용어미
1인칭	2인칭	naya-xa jupa-ru	<b>-sma</b>
2인칭	1인칭	juma-xa naya-ru	<b>-ista</b>
3인칭	1인칭	jupa-xa naya-ru	<b>-itu</b>
	2인칭	jupa-xa juma-ru	<b>-tam</b>
	4인칭 (1인칭복수 청자포함)	jupa-xa jiwasa-ru	<b>-istu</b>

(24) Jupa-x naya-r katthap-itu.

3P-TOP 2P-ACC catch-3>1P  
그-는 나-를 잡았다.

만약 2차 참여자 논항 중 1인칭과 2인칭이 충돌하면 1인칭을 선택하게 된다. 우선 2차 참여자 간의 충돌이 없는 경우를 먼저 살펴보자.

(25) Maria-x naya-r ma: waxt' chur-itu.

Maria-TOP 1P-DAT one present give-3>1P  
'마리아-는 나-에게 선물을 하나 주었다.'

한편, 1인칭과 2인칭이 동시에 여격 또는 대격으로 나타날 때는 이 중 어떤 것을 활용에 반영할지에 대한 충돌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1인칭이 2인칭보다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아래 예들에서 알 수 있다.

(26) Carlo-x juma-r irpa-n-itu.

Carlos-TOP 2P-ACC-FOC carry-here-3>1P  
'까를로-는 너-에게 (나를) 데리고 왔다.'

(27) Carlo-x juma-n-uk-∅ irpa-n-itu.

Carlos-TOP 2P-GEN-that-ACC carry-here-3>1P  
'까를로-는 너-를 (나에게) 데리고 왔다.'

57) 2차 참여자가 3인칭인 경우가 없는 이유는, 이 연구가 3인칭 2차 참여자는 인칭 활용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이다.



위의 예문에서 동사의 활용어미와 참여하는 논항은 동일하지만 여격과 대격에 해당하는 논항은 서로 다르다. 단 의미의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해 (26)의 여격 논항은 여격 표지 -ru를 그대로 쓰고, (27)의 대격 논항은 대격임을 강조하기 위해 -n-uk-ø ‘-의 그것-을’의 의미를 가진 문법화된 표지를 도입하였다.

1, 2인칭 2차 참여자 논항 간에 충돌이 생기는 경우 1인칭을 우선으로 한다는 점은 사동문, 추가태 등 3자리 동사라면 항상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가끔 예외적인 문장도 나타난다.

(28) Mario-w juma-mp uñja-y-itu.  
 Mario-FOC 2P-INST see-CAUS-3>1P  
 ‘마리오가 너로 하여금 (나를) 보게 했다.’

(29) Mario-w naya-r uñja-y-tam.  
 Mario-FOC 2P-ACC see-CAUS-3>2P  
 ‘마리오가 나-를 (너로 하여금) 보게 했다.’

위의 예문 (28)에서는 일치 논항으로 1, 2인칭 선택이 충돌할 때,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1인칭 우선권을 적용하였다. 그런데 (29)는 동일한 의미를 지니면서도, 2인칭이 활용에 참여하였다. 이런 경우는 2인칭의 사건 관련성을 강화하여 유표적인 문맥을 만들어낸다. 자료제공인에 따르면 ‘너를 억지로 시켜서’라는 의미가 더해진다고 한다. 그러므로 첫 번째 문장은 사건을 둘러싼 주어와 나의 관계를 중심으로 기술한 것이고, 두 번째 문장은 주어와 피사동주인 너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 4.2.3. 아이마라어의 명사화

명사화소(nominalizer)를 통해서 명사절을 만드는 경우, 어휘적 명사화와 절의 명사화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어의 명사 파생접미사와 명사형 전성어미에 해당한다. Hardman(2001)에서는 이 둘의 구분이 불분명한데, 여기서는 둘을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어휘적 명사화는 동사의 행위주를 의미하는 -iri 접사와 동사의 목적어 또는 결과물을 의미하는 -ta 접사처럼 명사화된 의미가 사건 참여자를 지시하는 부류가 있고, 동사 자체의 의미를 추상명사화하는 -ña, -wi 등의 부류가 있다. 우선 사건 참여자를 의미하는 명사화를 아래 예문에서 볼 수 있다.

(30) -iri : agentive, ~하는 것/~하는 사람  
 Naya-x yatiq-iri:-t-wa.  
 1P-TOP learn-NMZ-COP-1P-FOC  
 ‘나-는 배우-는 사람-이다.’ (나는 학생이다.)

(31) -ta : resultative(past/passive), ~한 사람/~한 것  
 Jupa-x uma-ta-wa.  
 3P-TOP drink-NMZ-FOC  
 ‘그-는 취하-ㄴ 사람-이다.’ (그는 취했다.)

동사 자체의 의미를 추상명사화하는 접사는 -ña와 -wi 두 가지로서 아래와 같이 쓰인다.

(32) -ña : ~하기/~해야 함  
 Aymar aru ulla-ñ-∅ yatiqa-ñ-∅ mun-t-wa.  
 Aymara language read-NMZ-ACC learn-NMZ-ACC want-1P-FOC  
 ‘아이마라 말 읽-기-를 배우-기-를 원한다.’

(33) -wi : 장소/행위/의식 등의 추상명사  
 utja-wi sar-naqa-wi  
 exist-NMZ go-around-NMZ  
 ‘있는 곳’ (사는 곳, 터전) ‘돌아다님’ (문화, 관습)

절의 명사화는 서술어의 논항(participants)을 지시하거나 사건 자체(event)를 지시하는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참여자 명사화(participant nominalization)’는 명사절이 지시하는 것이 절 내부의 논항 일 때의 명사화이다(Koptjevskaja-Tamm 1993). 아래의 예문 (34)에서 보면 명사화소 -iri는 내포절의 주어를 지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4) Naya-x biblioteca-n utj-ir pank-a-nak-∅ ull-ta.<sup>58)</sup>  
 1P-TOP library-in exist-NMZ book-PL-ACC read-1P

‘ 나는 도서관-에 있는 (것) 책-들-을 읽었다.’

명사화소 -ta는 Hardman(2001)에서는 ‘resultative’로 기술하고 있고, Huanca(2011)는 과거분사로 설명하고 있다. 아래의 (35)는 참여자 명사화이고 (38)은 ‘사건 명사화(event nominalization)’이다. (35)처럼 명사화소 -ta는 대개 목적어를 지시하지만, (36가)처럼 수식구가 될 때는 주어를 지시하기도 한다. 이 경우 행위를 완료한 상태의 주어를 지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36나)에서 보듯이 명사절 자체적으로 주어를 지시하지는 못한다. (37)은 독특한 구조로서 명사절이 절 내부의 목적어를 지시한다. ‘내핵 관계절’의 구조와 유사하다. (38)은 사건 명사화의 전형적인 예이다.

(35) Juma-n naya-r chura-ta-ma-x ma: lapiza-wa.  
 2P-of 1P-to give-NMZ-2POS-BG one pencil-FOC  
 ‘네가 나에게 준 것 -은 연필이다.’

(36) 가. Wasu:ru-x korea-t juta-t jaqi-x Mario-wa.  
 yesterday-BG Korea-from come-NMZ man-TOP Mario-FOC  
 ‘어제 한국-에서 온 (것) 사람-은 마리오이다.’  
 나. \*Wasu:ru-x korea-t juta-ta-x Mario-wa.  
 yesterday-BG Korea-from come-NMZ-TOP Mario-FOC

(37) Panka waxt'-∅ chura-ta-ma-x mara-phuqh waxt'a-wa.  
 book gift-ACC give-NMZ-2POS-TOP year-complete gift-FOC  
 ‘책 선물-을 준 것 -은 생일 선물이다.’

(38) Yant'a-w-∅ sum chura-ta-ma-t kisis-t-wa.  
 test-NMZ-ACC well give-NMZ-2POS-from happy-1P-FOC  
 ‘(네가) 시험-을 잘 친 것으로 인해 기쁘다.’

명사화소 -ta가 종종 피동 형태소로 언급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Huanca(2012)에서는 과거분사로 기술하고 있는데, 학습서의 성격상 영어 또는 스페인어와의 비교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Hardman(2001)에서는 피동 구조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아래는 피동 의미에 대응하는 문장이다.

58) 이 문장은 전형적인 명사절이라기보다 명사절의 기능 중 하나인 관계절 구조이다.

- (39) Uta-ja-x      suma lura-ta-wa.  
house-my-TOP good make-NMZ-FOC  
‘나의 집-은      잘      만들어졌다.’      (lit. 좋은 만들어진 것이다.)

#### 4.2.4. 아이마라어의 관계절

아이마라어의 관계절은 두 가지 유형을 활용한다. 하나는 -iri, -ta의 명사절이 수식구로 기능하는 분사 관계절 구조인데, Hardman(2001)에서는 기술되지 않았다. 앞의 명사절 예문 (34, 36)이 이 구조에 해당된다. 또 다른 관계절 유형은 상관관계절 구조인데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구조이다.

상관 관계절은 주절과 종속절(제한절)이 둘 다 완전한 문장구조로서 느슨하게 연결된다. 가장 큰 특징은 종속절과 주절에 핵어명사가 반복되는 점이다. 핵어명사가 반복될 때는 완전한 형태 또는 대명사, 지시사 형태로 반복된다. 그리고 종속절 내에 특별한 표지가 붙는 경우가 많고, 종속절이 선행하는 경향이 있다.<sup>59)</sup> 다음은 Keenan(1985: 164)의 Hindi 예이다.

- (40) Hindi  
jis a:dmi ka kutta bema:r hai, us a:dmi ko mai ne dekha  
CREL man GEN dog sick is that man DO I ERG saw  
‘Which man’s dog is sick that man I saw’  
(I saw the man whose dog is sick)

아이마라어도 동일한 구조의 상관관계절을 보인다. Hardman(2001: 214)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uka를 이용한 종속절’ (의문사-ti-xa + 대명사 uka)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종속절 내의 의문사와 -ti-xa를 관계절의 표지로 보고 있다. 의문사를 관계사로 활용하기 위해 -ti의문문(판정의문문)으로 바꾸고, {-xa}접사를 통해 종속절을 표시해주며, 주절의 uka로 반복해준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이 구조가 스페인어에서 차용된 구조라고 보고 있다.<sup>60)</sup>

59) 상관관계절에서 종속절이 선행하는 경향이 있지만 입증된 것은 아니다.(Keenan 1985)

60) “It is doubtlessly a borrowed structure, and importation of Spanish

- (41) *Kuna aru-naka-ti-x aka uraqi-n utj-k-i-x uk-xat yati-ña-wa.*  
 what language-PL-Q-BG this earth-at be-ASP-3P that-about know-N-FOC  
 ‘Whatever language on this earth there be about that it is necessary to know.’

이제, 이러한 설명이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는지 논의하기 위해, 아이마라어 상관관계절 유형을 분류해보자. 관계절은 핵어명사의 위치에 따라 내핵, 상관, 외핵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고, 관계절 내부의 핵어명사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명사 유지, 관계대명사, 생략의 3가지 전략으로 나눌 수 있다. 위의 (41)은 관계대명사 전략을 사용한 예이다.

다음으로 내핵구조를 보자. (42)는 주절에서 대명사 *uka*를 사용하고, (43)은 ‘*uka*+명사’를 사용하고 있다. 종속절 내부에는 명사나 명사구의 일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 (42) *Mario-x lawa-mpi anu-r jawq'a-nt-k-i-x uka-x ch'ama-wa.*  
 Mario-BG stick-with dog-DAT hit-into-REL-3P that-TOP hard-FOC  
 ‘마리오가 막대기로 개를 때렸는데 그것-은 단단하다.’

- (43) a. *t'alpha laq' puraka-r mant-k-i-xa uka laqu-w jiwa-y-i.*  
 Talpha worm stomach-to enter-REL-3P-BG that worm-FOC die-CAUS-3P  
 ‘talpa 벌레가 배로 들어가는데, 그 벌레가 죽게 한다.’  
 b. *kha: jawira-n ma: jisk'a ch'iyar-∅ uñicha-y-k-sma-xa uka laq'u-w utj-i.*  
 that river-in one small black-ACC look-CAUS-REL-1>2P-BG that worm-FOC exist-3P  
 ‘그 강-에, 하나 작은 검은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벌레-가 있다.’

하지만, 상관관계절의 일반적 정의에 따르면 다음은 상관관계절이 아니라 생략 전략을 쓰는 외핵관계절이다. 종속절 내부의 핵어 논항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이다.<sup>61)</sup>

---

subordination patterns. A similar thing has also happened in Quechua [Bills 1969],... This borrowed type of subordination does not occur at all in Jaqaru or Kawki.”(Hardman 2001: 214)

61) 아이마라어는 동사에 인칭활용이 있으므로 주어에 해당하는 굴절소를 핵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후의 다른 예문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44) Naya-x marka-n jak-k-i-x uka-naka-ru-w ar-xat-ta.  
 1P-TOP town-in live-REL-3P that-PL-to-FOC speak-up-1P  
 ‘나는 마을에 (그들이) 사는데, 그-들-을 변호한다.’<sup>62)</sup>

Hardman(2001)의 견해처럼 ‘의문사-ti-xa’를 관계화소로 보아야 할까? 그러나 예외가 있다. (45)는 해당 구조에서 주절과 종속절의 지시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의문사-ti-xa’를 관계화소로 볼 수 없다. 관계대명사로 설명해 온 이 요소들은 비한정 명사구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위의 예문들에서 한국어의 ‘언젠가, 누군가’로 자연스럽게 번역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조어법 또한 동일함이 관찰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조에서 대명사 uka가 관계화소인가? 아래의 (45)와 (46)에서는 uka가 아닌 다른 명사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 (45) kunawsa-ti-x jawasa-ka-:n-x aka pampa-x wali suma-:n-wa.  
 when-REL-BG sow-REL-3P.PAST-BG this field-TOP very good-3P.PAST-FOC  
 ‘언젠가 파종했는데 이 들판-은 매우 좋았다.’

- (46) a. Paula-r mun-k-i-x jupa-x Mario-wa.  
 Paula-to want-REL-3P-BG he-TOP Mario-FOC  
 ‘빠울라-를 (그가) 좋아하는데 그-는 마리오이다.’  
 b. Nayrapacha-x jak-ka-ya:t-x marka-x Korea-wa.  
 before.time-BG like-REL-1P.PAST town-TOP Korea-FOC  
 ‘옛날 살았던 나라는 한국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예문을 살펴보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는 종속절의 서술어에 항상 -ka 접사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것을 논거로 삼아 -ka를 관계화소로 보는 입장도 있다.<sup>63)</sup> 그러나 -ka는 기본적으로 미완료상을 표현하는 형태소라는 점에서, 관계화소라기보다 아이마라 관계절의 독특한 상을 표시하는 것으로 봐야할 것 같다.

62) 한국어 직역을 ‘나는 마을에 사는데 그들을 변호한다.’로 하면 의미가 달라진다. 하지만 아이마라어의 동사 인칭활용을 감안하면 ‘나는 (그들이) 마을에 사는데 그들을 변호한다.’임을 알 수 있다.

63) 자료제공자인 원어민 학자가 기술한 Uscamayta(2010)에서 관계절과 관련한 설명이 체계적이진 않지만 -ka를 relativizer로 제시하고 있다.

이 문장들의 또 다른 공통점으로 종속절의 마지막에 위치한 {-xa}가 있다. 앞서 종속절을 구성하는 연결어미의 뒤에 {-xa}가 결합하는 현상을 보았으므로 이 {-xa}는 종속절을 표현해주는 기능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므로 아이마라어와 같은 상관관계절의 경우에 단일한 관계화소를 정하는 것보다 상관관계절의 느슨한 구조 전체가 관계절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절 구성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형태소를 택하라고 하면, 미완료상을 표현하는 -ka와 종속절을 만드는 {-xa}를 고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아이마라어의 종속절과 관계절은 이 연구의 핵심 소재인 {-xa}를 활용하고 있다. 이 형태소의 기능은 종속절 구조와 관계절 구조를 고려할 때 배경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듯하다. 마지막 6장에서는 이와 관련한 논의를 통해 {-xa}가 ‘배경표지’라는 결론을 뒷받침하므로 관계절을 포함한 종속절 구조는 이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 제5장 아이마라어의 정보구조

### 5.1. 개관

이 장에서는 앞서 3장까지 검토한 정보구조의 기존 연구 성과 및 유형론적인 기준들을 근거로 하고, 4장의 기본적인 아이마라 문법 분석을 활용하여 아이마라어 정보구조가 다양한 환경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여기서는 아이마라어 정보구조의 여러 현상들 속에서 한국어와의 비교를 거쳐 어떤 현상이 보편적인 현상인지, 또 어떤 현상이 아이마라어의 독특한 특징인지를 가려낼 것이다. 이 장에서 포착된 아이마라어 화제-초점의 특수성들은 다음 6장의 세밀한 대조 작업을 통해 화제-초점 현상 이면에 숨겨진 정보구조의 보편적 원리를 찾는데 소재로 삼고자 한다.

정보구조(Information structure)란 문장의 화제와 초점을 표현하는 구조이다. 정보구조는 문장 구조와는 별개로 무엇에 대한 정보인지 또는 기존에 주어진 정보인지 여부를 표현해주기 때문에 담화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

정보구조를 분석함에 있어서 연구자에 따라 크게 이분법적 견해와 삼분법적 견해로 나뉜다. 이분법적 견해는 다시, 초점을 중심으로 두면 초점-배경(focus-background) 구조로,<sup>64)</sup> 화제를 중심으로 두면 화제-논평(topic-comment) 구조로<sup>65)</sup> 나눌 수 있다.

반면에, 삼분법적 시각은 이 두 가지 이분법적 관점을 동시에 고려하여 화제도 초점도 아닌 요소를 구분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Vallduví(1992)와 Lambrecht(1994)가 대표적인데, Vallduví(1992)는 문장의 정보구조를

64) Chomsky(1969), Jackendoff(1972) 등은 이미 주어진 정보인지 새로 주어지는 정보인지(givenness, 주어짐성)에 따라 문장의 정보구조를 초점-전제(focus-presupposition)의 구조로 나누었다.

65) Hockett(1958), Gundel(1974, 1988), Reinhart(1982) 등은 무엇에 대한 정보인지(aboutness, 대하여성)에 의해 화제-논평(topic-comment) 이분구조를 논의하였다.



‘연결-꼬리-초점(link-tail-focus)’의<sup>66)</sup> 삼분구조로 제시했다.

이 연구는 Valldví(1992)의 삼분법 개념을 수용하되, 각 요소에 해당하는 용어를 재정의하여 ‘화제-바탕-초점’의 용어를 쓰고자 한다. 왜냐하면, Valldví(1992)의 ‘연결’부는 담화 상 ‘연결’ 기능과 혼동되므로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화제’를 그대로 쓰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한편, 화제도 초점도 아닌 ‘tail’에 대해서는 ‘꼬리’(박철우 2003)가 아직 정착된 번역어가 아니므로 ‘바탕(tail)’으로 부르는 것이 좋겠다.<sup>67)</sup> 이러한 바탕의 정의는 배경 중에 화제로 부각되지 못하고 아래에 깔려있는 부분이란 점을 잘 드러내준다. 다시 정리하면, 이 연구에서는 문장의 정보구조를 배경-초점(background-focus)으로 구분하고, 이 중에서 배경(background)을 화제-바탕(topic-ground)으로 구분하여 재정의하였다. 즉 문장의 정보구조에 대한 용어로 ‘화제-바탕-초점’의 삼분구조를 사용할 것이다.

이 장의 논의는 주로 아이마라어 화제-초점 표지의 문법적 분포와 기능을 기술하는 데 맞춰져 있다. 한국어와의 대조는 아이마라어 문장에 한국어 번역문을 대응시켜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간략히 언급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6장에서 한국어와 아이마라어의 대조를 통해 바탕부가 반드시 필요함을 보이고, 아이마라어의 ‘화제표지’는 화제뿐만 아니라 바탕을 표시하기도 하는 ‘배경표지’임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정보구조 표지의 유형론을 새롭게 제안할 것이다.

## 5.2. 화제-초점의 문장 유형

---

66) Valldví(1992)는 ‘연결-꼬리-초점’(link-tail-focus)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즉, 문장은 ‘바탕-초점’(ground-focus)의 구조로 분석할 수 있고, 이 중 바탕부는 다시 ‘연결-꼬리’(link-tail)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꼬리’는 박철우(2003)에서 ‘tail’의 번역어로 택한 용어이다.

67) ‘바탕(ground)’은 Valldví(1992)에서 초점-배경 구조의 배경(background)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썼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 개념에 대한 용어로서 ‘배경’을 그대로 사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배경은 초점과 상보적인 개념을 가장 직관적으로 잘 설명해주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배경 중에 화제가 아닌 부분인 ‘tail’을 ‘꼬리’ 대신 ‘바탕(tail)’으로 정의하겠다.

다음 절에서 아이마라어의 화제-초점을 구체적으로 다루기기 전에, 화제와 초점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분류법에<sup>68)</sup> 따라 각각에 해당되는 아이마라어 문장을 정리해 보자. (1가,나)는 아이마라어의 화제표지를 잘 보여준다. 각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은 한국어 화제표지 {-는}에 그대로 대응된다. 예문 (가)에서는 일반적인 화제표지 {-xa}를, (나)에서는 별도의 대조화제표지 -sti를 보여준다. 초점표지의 경우는 (다,라,마)에서 {-wa}로 나타내는데 한국어 {-가}와 정확히 대응됨을 알 수 있다.

(1) 가. 일반적 화제 (theme, topic)

Yatichiri-x Pedro-r irnaqaw-∅ chur-i, Pedro-x jani-w lur-k-i-ti.  
 teacher-TOP Pedro-to task-ACC give-3P Pedro-TOP not-FOC do-NEG-3P-NEG  
 ‘선생님-이 빠드로-에게 숙제-를 내주었는데, 빠드로-는 하지 않았다.’

나. 대조적 화제 (contrastive topic)

Pedro-x<sup>69)</sup> jani-w irnaqaw-∅ lur-k-i-ti, Edgara-sti lur-i-wa.  
 Pedro-TOP not-FOC task-ACC do-NEG-3P-NEG Edgar-TOP.CONTR do-3P-FOC  
 ‘빠드로-는 숙제-를 하지 않았는데, 에드가르-는 했다.’

다. 문장 전체 초점 또는 중립 기술 (neutral description)

Q: Kuna-s kamach-i?  
 what-FOC.Q what.happen-3P  
 ‘무슨 일이니?’  
 A: Edgara-w irnaqaw-∅ lur-i.  
 Edgar-FOC task-ACC do-3P  
 ‘에드가르-가 숙제-를 했어.’

라. 일반적 초점 또는 정보초점 (informational focus)

Q: Khiti-s irnaqaw-∅ lur-i?  
 what-FOC.Q task-ACC do-3P  
 ‘누가 숙제-를 했니?’  
 A: Edgara-w lur-i.

68) 박철우(2003:92)에서 인용한 Kuno(1972)를 참고하였다. 문장은 아이마라어 현지조사에 적절하도록 수정하였다.

69) 이 경우 선행절의 주어도 대조성을 띠게 되므로 대조화제 표지인 -sti를 결합하여 ‘Pedro-sti’로 표현할 수 있다.

Edgar-FOC do-3P  
'에드가르-가 했어.'

마. 배제적(exclusive) 초점 또는 확인초점(identificational focus)<sup>70)</sup>

Q: Yatiqiri-naka-n *khiti-s* irnaqaw-∅ lur-i?  
student-PL-among who-FOC.Q task-ACC do-3P  
'학생-들-중에 누가 숙제-를 했니?'

A: *Edgara-w* lur-i.  
Edgar-FOC.EX do-3P  
'에드가르-가 했어.'

(마) 유형 확인초점(identificational focus)의 경우, 담화상 주어진 요소의 부분집합을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 이에 따라 초점이 부여된 부분집합이 부각되면서 그 여집합과의 대조 효과가 자연스럽게 생긴다. 여기에서 배제성이 생겨난다. 그렇다면 확인초점 (마)와 정보초점 (라) 유형의 차이는 초점이 부여된 지시체가 주어진 정보의 부분집합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다,라)의 초점 유형과 (가,나)의 화제 유형을 중심으로 아이마라 정보구조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 5.3. 초점의 실현 양상

#### 5.3.1. 아이마라 명사구 구조와 화제-초점 표지

아이마라어의 명사구 구조, 즉 격표지와 화제-초점 표지가 어떻게 결합되는지 살펴보겠다. 아이마라어 명사구는 단순화하여 다음의 (2)와 같은 형태라고 할 수 있다.

(2) 명사 어기 + (격표지/후치사) + (독립접사)<sup>71)</sup> + (화제/초점 표지)

70) Kuno(1972)에서는 총망라적 거론(exhausting listing)이라고 하였다.

71) '독립접사'(independent suffixes)는 주로 부사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접사로서 -ki '단지', -raki '또한', -puni '항상, 정말' 정도만이 해당된다. 명사구, 동사구 등 어떠한

아래 (3,4)의 예는 명사구에 접사들이 차례로 결합되고, 마지막으로 초점표지 {-wa} 또는 화제 관련 표지 {-xa}가 붙는 것을 보여준다.

(3) Naya-x jawira-ru-w<sup>72)</sup> jala-ya:ta.  
 1P-TOP river-to-FOC run-1P.PAST  
 ‘나는 강-으로 달려갔다.’

(4) Juma-ru-ki-w aka pank-∅ chur-sma.  
 2P-to-only-FOC this book-ACC give-1P  
 ‘너-에게-만 이 책-을 준다.’

아이마라어의 여러 격표지와 초점표지의 결합 양상은 아래와 같다. 주격, 여격<sup>73)</sup>, 도구격, 수혜격의 경우는 초점표지가 생략되지 않고 명확하게 드러난다.

(5) 주격: 무표형  
 Anu-w t'iju-n-i.  
 dog-FOC run-here-3P  
 ‘개-가 달려왔다.’

(6) 여격, 방향격: -ru  
 Anu-x anqa-ru-w jal-su-way-i.  
 dog-TOP outside-to-FOC run-away-there-3P  
 ‘개-는 밖-으로 달아났다.’

(7) 도구격, 공동격: -mpi  
 na:-naka-x kuchara-mpi-w manq'a-si-px-ta.  
 1P-PL-TOP spoon-with-FOC eat-ASP-PL-1P  
 ‘우리들-은 숟가락-으로 먹고 있다.’

(8) 수혜격: -taki  
 Tata-ja-x naya-taki-w sapatu-nak-∅ ala-rap-itu.  
 father-my-TOP me-for-FOC shoe-PL-ACC buy-BENEF-3>1P

---

성분에도 결합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Hardman(2001)의 용어를 임시로 빌려와서 사용하였다.

72) {-wa}'는 경우에 따라 모음이 탈락된다. 아이마라어는 3음절 이상의 명사구에서 어말 모음이 항상 탈락한다. 그런데 아이마라어 어근은 2음절 이상이기 때문에 뒤에 결합되는 접사의 모음은 항상 탈락한다. 하지만 문장 끝에서는 탈락하지 않는다.

73) 여격 -ru는 유정물과 결합할 때 대격으로도 쓰인다.

‘아버지-는        나-를 위해        신발-을        사주셨다.’

그런데 초점표지 {-wa}는 처격 -n, 탈격 -t, 대격 -∅ 다음에서 생략된다. 아래의 (9,10,11)를 보면 이 격표지들 뒤에서 초점표지 {-wa}가 생략되었다. 이 경우 {-wa}는 영형태인 변이형 -∅로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sup>74)</sup> 그러므로 초점표지가 영형태 -∅로 적용되는 경우는 주의하여야 한다. 이 (9,10,11)의 격표지들이 위의 (5,6,7,8)번과 다른 점은 자음으로 끝난다는 점이므로, 음운론적 환경에 의해 {-wa}의 변이형이 선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9) 대격: -∅(여기 마지막 모음 탈락)

Naya-x qhathu-t arus-∅-∅ ala-n-ta.  
 1P-TOP market-from rice-ACC buy-here-1P  
 ‘나는 시장-에서 쌀-을 사왔다.’

(10) 처격: -n

Jupa-x Achachkala-n-∅ utjas-i.  
 3P-TOP Achachakala-at-FOC live-3P  
 ‘그-는 아차차칼라-에 산다.’

(11) 탈격: -t

Mario-x Escoma-t-∅ kutt'a-n-x-i.  
 Mario-TOP Escoma-from-FOC return-here-ASP-3P  
 ‘마리오-는 에스코마-에서 돌아왔다.’

여기에서 초점표지가 탈락된 경우 초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예문들의 (A')와 같이 한 단어로 된 조각문(sentence fragment)이나 해당 성분이 어말로 도치된 문장을 통해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12) Q: Kawkha-ru-s sar-ta?

where-to-FOC.Q go-2P?  
 ‘어디-로 갔니?’

A: Uta-ja-ru-w sar-ta.

house-my-to-FOC go-1P  
 ‘(나의) 집으로 갔어.’

74) 4장 각주 (46) 참조.

A': **Uta-ja-ru-wa.** / Sar-ta, **uta-ja-ru-wa.**  
house-my-to-FOC go-1P house-my-to-FOC  
'나의 **집으로.**' '갔어, **집으로.**'

위 (12)의 경우는 대답문 (A,A') 모두에서 여격에 붙은 초점표지 {-wa}가 생략되지 않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래 (13,14,15)의 경우 각각의 대답문 (A)에서는 앞서 (9,10,11)에서 본 것처럼 초점표지가 생략되었지만, 각각의 대답 (A')의 조각문과 도치문을 보면 초점표지가 어말에서는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13) Q: **Kun-∅-s** ala-n-ta.  
what-ACC-FOC.Q buy-here-2P  
'무엇-을 사왔니?'

A: **Arus-∅-∅** ala-n-ta.  
rice-ACC-FOC buy-here-1P  
'쌀-을 사왔어.'

A': **Arus-∅-wa.** / Ala-n-ta, **arus-∅-wa.**  
rice-ACC-FOC buy-here-2P rice-ACC-FOC  
'쌀-을.' '사왔어, **쌀을.**'

(14) Q: Jupa-x **kawkha-n-s** utjas-i.  
3P-TOP where-at-FOC live-3P  
'그-는 어디-에 사니?'

A: Jupa-x **Achachakala-n-∅** utjas-i.  
3P-TOP Achachakala-at-FOC live-3P  
'그-는 아차차칼라-에 살아.'

A': **Achachakala-n-wa.** / Jupa-x utjas-i, **Achachakala-n-wa.**  
Achachakala-at-FOC 3P-TOP live-3P Achachakala-at-FOC  
'아차차칼라-에.' '그-는 살아, **아차차칼라에.**'

(15) Q: Mario-x **kawkha-t-∅** kutt'a-n-x-i.  
Mario-TOP Escoma-from-FOC return-here-ASP-3P  
'마리오-는 어디-에서 돌아왔니?'

A: Mario-x **Escoma-t-∅** kutt'a-n-x-i.  
Mario-TOP Escoma-from-FOC return-here-ASP-3P  
'마리오-는 에스코마-에서 돌아왔다.'

A': **Escoma-t-wa.** / Mario-x kutt'a-n-x-i, **Escoma-t-wa.**  
Escoma-from-FOC Mario-TOP turn-here-ASP-3P Escoma-from-FOC  
'에스코마-에서.' '마리오-는 돌아왔어, **에스코마-에서.**'

이렇게 선행하는 격표지에 따라 변이형태가 달라지는 현상과 관련하여 Hardman(2001: 38, 172)에서는 이 격표지들에 붙는 초점표지가 기본적으로 영형태이고 문말에서 유표적으로 복원된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영형태의 초점표지에 대해, 일부 격표지가 쓰이는 특정한 어휘적 환경에 따른 변이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격표지와 상관없이 초점표지가 자음 뒤의 환경에서만 영형태로 실현된다는 형태음운론적 분석이 더 명료하고 적절하다.<sup>75)</sup>

### 5.3.2. 일반적인 초점의 실현

#### 5.3.2.1. 초점의 확인

초점에 관한 일반적인 합의의 하나로서, 문장의 초점은 어떤 언어이든지 설명의문문과 그 대답 쌍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런 유형의 초점이 가장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초점인데, 널리 쓰이는 용어로 정보초점(information focus)이라고 한다(Halliday 1967, É. Kiss 1998 등).

질문-대답 쌍에서 나타나는 초점, 즉 정보초점은 전제되는 질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부여되는 위치가 다르다. 다음 각각의 (나) 문장은 똑같이 ‘마리오가 어제 볼리비아로 갔어.’라는 문장이지만, 전제되는 질문에 따라 초점표지 {-wa}가 붙는 문장 성분이 달라진다. 전제되는 의문문에는 의문사에 초점표지 {-sa}가 붙는다.

- (16) 가. Khiti-s wasu:r Bolivia-r sar-i?  
 who-FOC.Q<sup>76)</sup> yesterday bolivia-to go-3P  
 ‘누가 어제 볼리비아로 갔니?’  
 나. Mario-w wasu:r Bolivia-r sar-i.  
 Mario-FOC yesterday Bolivia-to go-3P  
 ‘마리오가 어제 볼리비아로 갔어.’

75) 4장 각주 (46) 참조.

76) 주석문에 문법형태소를 밝힐 때, 일반적으로 화제와 초점을 ‘TOP’ (topic), ‘FOC’ (focus)로 표시하는데, 평서문의 초점표지와 구분하기 위해 설명의문문의 초점표지 -sa와 판정의문문의 초점표지 -ti는 ‘FOC.Q’로 표기하였다.

- (17) 가. Mario-x Kunapacha-s Bolivia-r sar-i?  
 Mario-TOP when-FOC.Q Bolivia-to go-3P  
 ‘마리오-는 언제 볼리비아-로 갔니?’  
 나. Mario-x wasu:ru-w Bolivia-r sar-i.  
 Mario-TOP yesterday-FOC Bolivia-to go-3P  
 ‘마리오-는 어제 볼리비아-로 갔어.’
- (18) 가. Mario-x wasu:r kawkha-ru-s sar-i?  
 Mario-TOP yesterday where-to-FOC.Q go-3P  
 ‘마리오-는 어제 어디-로 갔니?’  
 나. Mario-x wasu:r Bolivia-ru-w sar-i.  
 Mario-TOP yesterday Bolivia-to-FOC go-3P  
 ‘마리오-는 어제 볼리비아-로 갔어.’

### 5.3.2.2. 초점표지의 종류와 특징

초점표지는 문장 유형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즉 평서문에서는 {-wa}로, 설명의문문에서는 {-sa}로, 판정의문문에서는 {-ti}로 실현된다. 아래는 간단히 표로 정리한 것이다.

(19) 아이마라어의 초점표지

문장 유형		초점표지
평서문		-wa
의문문	설명문의문문	-sa
	판정의문문	-ti

아래 (20)은 각 초점표지가 사용된 예이다. 이 셋은 한 문장에서 서로 같이 나타날 수 없다. 그리고 이 표지들 각각은 인용문이 아니라면 한 문장에 한 개씩만 붙을 수 있다.

- (20) 가. Wasu:ru-x jall-u-wa.  
 yesterday-TOP rain-3P-FOC  
 ‘어제-는 비가 왔다.’  
 나. Q: Aymar-∅ ars-ta-ti?  
 Aymara-ACC speak-2P-FOC.Q  
 ‘아이마라어-를 말하니?’



A: Jisa, Aymar-∅ **ars-ta-wa.**  
 yes, Aymara-ACC speak-2P-FOC  
 ‘그래, 아이마라어-를 **말해.**’

다. Q: Suti-ma-x **kuna-sa?**<sup>77)</sup>  
 name-your-TOP what-FOC.Q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A: Naya-n suti-ja-x **Edgara-wa.**  
 1P-of name-my-TOP Edgar-FOC  
 ‘나의 이름-은 **에드가르-이다.**’

(21)은 예외적으로 인용문에서 두 개 이상의 초점표지가 쓰인 예이다. 아이마라어에는 간접인용이 없고 직접인용만 있기 때문에 직접인용문의 내포절에 초점이 실현된다.

(21) <P’iqi-**w** wal us-utu> s-i-**wa.**  
 head-FOC much hurt-3>1P say-3P-FOC  
 “머리-가 많이 아파” (라고 그는) **말했다.**

초점표지는 명사구 논항뿐만 아니라 서술어나 부사어에도 결합할 수 있다. 위의 (20)에서 동사구 서술어 및 명사구 서술어에 붙은 초점표지를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동사구에 결합하는 초점표지는 아래의 질문-대답 쌍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22) 가. Mario-x wasu:r Bolivia-r **sar-i-ti** jan sar-i-cha?  
 Mario-TOP yesterday Bolivia-to go-3P-FOC.Q not go-3P-ALT.Q  
 마리오-는 어제 볼리비아-로 갔니? 안 갔니?  
 나. Mario-x wasu:r Bolivia-r **sar-i-wa.**  
 Mario-TOP yesterday Bolivia-to go-3P-FOC  
 마리오-는 어제 볼리비아-로 **갔어.**

---

77) 어순을 바꿔서 ‘Kuna-s suti-ma-xa?’로 해도 같은 문장이다. 자료제공인은 본문의 어순이 더 자연스럽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서 기록에는 의문대명사가 어두에 위치해 있다. 이를 의문사가 문두에 오는 스페인어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단순히 처리해버릴 수도 있겠지만, 주어-서술어 관계와 그 어순을 따지기 위해서는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가능성으로, 아이마라어는 화제표지와 초점표지가 명확해서 초점에 해당하는 의문사구가 고정된 어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사구에 결합한 초점표지는 아래 두 예문에서 잘 나타난다.

(23) Jupa-naka-x **chikt'ata-w** sara-px-i.  
 3P-PL-TOP together-FOC go-PL-3P  
 '그-들은 함께 갔다.'

(24) Jasintu-x uka tinta-r **wasitata-w** sar-i.  
 Jasinto-TOP that shop-to again-FOC go-3P  
 '하신평-는 그 가게-로 다시 갔다.'

초점에 대한 테스트로 설명의문문뿐만 아니라 판정의문문을 써도 된다. 아이마라어에는 설명의문문의 초점표지 {-sa}와 판정의문문의 초점표지 {-ti}가 명확하게 구분되기 때문이다. 판정의문문의 경우 질문-대답 쌍은 아래와 같이 의문을 표시하는 접사 {-ti}가 초점을 받는 성분에 붙는다. 이는 평서문임을 표시하는 {-wa}가 결합한 성분에 초점이 주어지는 점과 동일하다. 아래 예문 각각의 판정의문문 (가)와 평서문 (나)에서 초점이 주어지는 성분이 동일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25) 가. **Mario-t** wasu:r Bolivia-r sar-i?  
 Mario-FOC.Q yesterday Bolivia-to go-3P  
**마리오-가** 어제 볼리비아-로 갔니?

나. Jisa, **Mario-w** wasu:r Bolivia-r sar-i.  
 Yes, Mario-FOC yesterday Bolivia-to go-3P  
 그래, **마리오-가** 어제 볼리비아-로 갔어.

(26) 가. Mario-x **wasu:ru-t** Bolivia-r sar-i?  
 Mario-TOP yesterday-FOC.Q Bolivia-to go-3P  
 마리오-는 **어제** 볼리비아-로 갔니?

나. Jisa, Mario-x **wasu:ru-w** Bolivia-r sar-i.  
 Yes, Mario-TOP yesterday-FOC Bolivia-to go-3P  
 그래, 마리오-는 **어제** 볼리비아-로 갔어.

(27) 가. Mario-x wasu:r **Bolivia-ru-t** sar-i?  
 Mario-TOP yesterday Bolivia-to-FOC.Q go-3P  
 마리오-는 어제 **볼리비아-로** 갔니?

나. Jisa, Mario-x wasu:r **Bolivia-ru-w** sar-i.  
 Yes, Mario-TOP yesterday Bolivia-to-FOC go-3P  
 그래, 마리오-는 어제 **볼리비아-로** 갔어.

한국어는 아이마라어와 같은 명확한 초점표지가 없기 때문에 분열문 (cleft sentence)으로 바꾸어 표현하면 초점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아이마라어는 초점표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초점을 확인하기 위해 굳이 분열문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아이마라어의 초점과 분열문의 대응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분열문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아래 (28,29)는 주어와 부사어에 초점이 주어진 문장 (가)를 분열문 (나)로 표현한 예문들이다. 아이마라어의 분열문은 앞장에서 기술한 관계절 또는 관형절 구조를 사용하는데, 한국어와 유사한 구조이다.

- (28) 가. Wasu:ru-x **Mario-w** Corea-t jut-i.  
 yesterday-TOP Mario-FOC Korea-from come-3P  
 ‘어제-는 **마리오-가** 한국-에서 왔다.’  
 나. Wasu:r Corea-t jut-k-i-x jupa-x **Mario-wa**.  
 yesterday Korea-from come-IMP-3P he-TOP Mario-FOC  
 ‘어제 한국-에서 온 그(사람)-는 **마리오이다**.’

- (29) 가. Mario-x **wasu:ru-w** Corea-t jut-i.  
 Mario-TOP yesterday-FOC Korea-from come -3P  
 ‘마리오-는 **어제** 한국-에서 왔다.’  
 나. Mario-x Corea-t jut-k-i-x ukja-x **wasu:ru-wa**.  
 Mario-BG Korea-from come-IMP-3P that.time-TOP yesterday-FOC  
 ‘마리오-가 한국-에서 온 그때-는 **어제이다**.’

아래의 판정의문문도 위의 (29)와 마찬가지로 분열문으로 표현 가능하다.

- (30) 가. Mario-x **wasu:ru-t** Corea-t jut-i.  
 Mario-TOP yesterday-FOC.Q Korea-from come-3P  
 ‘마리오-는 **어제** 한국-에서 왔어?’  
 나. Mario-x Corea-t jut-k-i-x ukja-x **wasu:ru-ti**.  
 Mario-BG Korea-from come-IMP-3P that.time-TOP yesterday-FOC  
 ‘마리오-가 한국-에서 온 그때-는 **어제니?**’

### 5.3.3. 제언문의 초점

앞에서 다른 초점은 질문-대답 쌍에서 새롭게 주어지는 정보에 해당하는 논항에 부여되는 초점, 즉 정보초점이었다. 이번에는 제언문(提言文,thetic sentence)의<sup>78)</sup> 초점을 다루고자 한다. 제언문은 담화에서 처음 제시되는 문장이거나, ‘무슨 일이니?’, ‘What happened?’ 등의 질문에 대한 대답문인데, 전제 또는 화제 없이 문장 전체가 새로운 정보로서 화제-논평 체계의 논평에 해당하는 문장이다. 주어진 질문이나 담화 상 전제가 상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정보가 제시되는 것이므로 정보초점의 일부로 취급되기도 한다. 아래 예문들을 통해 제언문의 초점이 아이마라어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점검해보기로 하자. (32)~(40)은 모두 (31)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31) Q: 가. Kuna-s kamach-i? (또는 Kamach-i-sa?)  
           what-FOC.Q what.happen-3P                    what.happen-3P-FOC.Q  
           ‘무슨 일이니?’

제언문의 초점은 가장 무표적인 초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사가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 또는 주어의 의미역이 행위주(agent)인지 대상(theme)인지에 따라서 초점 논항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어순으로 초점을 표현하는 스페인어의 경우 자동사 제언문의 대상 주어는 초점위치로 이동하고 행위자 주어는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제언문의 초점을 조사할 때, 자동사와 타동사, 행위주 주어와 대상 주어를 나누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아래는 대상 주어 제언문의 예이다. (32)~(34) 모두 주어에 초점이 부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

78) 제언문(Kuroda 1972, Sasse 1987 등)에 대해 Schmerling(1973)은 ‘뉴스-문(news sentence)’, Gussenhoven(1983)은 ‘사건문(eventive sentence)’이라고 하였고, ‘전체 초점 문장’이라는 용어도 사용된다(박철우 2003:42). 제시적 초점(presentational focus) 또는 중립기술(neutral description: Kuno 1972)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한편 제언문과 대비되는 정언문(categorical sentence)은 화제가 주어지고 그 화제에 대해 단언하는 문장이다.

(32) A: **Juanu-w** escalera-t jalaqt-i.  
Juan-FOC stairs-from fall-3P  
'후안-이 계단-에서 떨어졌어.'

(33) A: **Achachila-ja-w** jiw-x-i.  
grandfather-my-FOC die-ASP-3P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34) A: **Wuti-w** jala-nt-i.  
boat-FOC run-into-3P  
'배-가 침몰했어.'

다음 (35, 36)은 행위자 주어 자동사의 제언문이다. 마찬가지로 주어에 초점표지가 나타난다. 흥미로운 점은 자료제공인 중 한 명은 아래 예문과 같이 초점표지 {-wa}가 주어에 항상 붙는다고 했지만, 다른 한 명은 화제 관련 표지 {-xa}도 붙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화자 간 직관이 차이가 있는 것은 몇 가지 요인을 가정할 수 있는데, 방언차이이거나 매개 언어인 스페인어의 영향이거나 또는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다. 다른 측면에서 담화 문맥에 의해 정보구조가 달라졌을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예문들에 대해서는 추후 더 섬세한 조사가 필요한데, 뒤에 유사한 예문 (39)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35) A: Juanu-**w**/<sup>?</sup>x wal irnaq-i.  
Juan-FOC/BG much work-3P  
'후안-이 열심히 일했어.'

(36) A: Juanu-**w**/<sup>?</sup>x wali k'ach sarnaq-i.  
Juan-FOC/BG much slowly walk.around-3P  
'후안-이 매우 천천히 걸어.'

아래 타동사의 경우도 방금 본 행위자 주어와 동일하다. 자료제공인 한 명은 주어에 초점표지 {-wa}가 반드시 붙어야 한다고 했고, 다른 한 명은 화제 관련 표지 {-xa}도 붙을 수 있다고 했다.

(37) A: Juanu-**w**/<sup>?</sup>x uka libr-∅ al-i.  
Juan-FOC/BG that book-ACC buy-3P  
'후안-이 그 책-을 샀어.'

(38) A: Juanu-**w**/<sup>2</sup>x Maria-r ma: q'api rusa-nak-∅ chur-i.  
 Juan-FOC/BG Maria-to one bundle rose-PL-ACC give-3P  
 '후안-이        마리아-에게 한    다발    꽃-을        줬어.'

위 (35)~(38)에서 나타난 의문점은 제언문에서, 특히 행위주 주어의 제언문에서 초점이 반드시 주어에 주어지느냐이다. 다음 (39)의 예를 보면 제언문에서의 초점이 유동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제언문들 중 주어에 초점이 부여된 (가)가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목적어나 서술어에 초점이 부여된 (나,다)는 어색하지만 가능한 문장이고, 초점표지가 아예 없는 (라)는 불가능한 문장이다.

(39) 가. A: **Anu-w** wawa-r achj-i.  
 dog-FOC baby-ACC bite-3P  
 '개-가    아이-를 물었다.'  
 나. A: Anu-x **wawa-ru-w** achj-i.  
 dog-BG baby-ACC-FOC bite-3P  
 '개-가    **아이-를** 물었다.'  
 다. A: Anu-x wawa-r **achj-i-wa**.  
 dog-BG baby-ACC bite-3P-FOC  
 '개-가    아이-를    **물었다**.'  
 라. A: \*Anu-x wawa-r achj-i.  
 dog-BG baby-ACC bite-3P  
 '개-가    아이-를    물었다.'

이 (39)의 문장들을 분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가능할 것이다. 첫째, (나,다)가 실제로는 제언문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즉 '무슨 일이니?'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하더라도 문장의 일부는 구정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질문 이전에 화자-청자 간에 공유하는 정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정보가 있다면 그 외의 새로운 정보에 초점이 부여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제언문이 아닌 대답을 하는 상황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갑작스러운 장면을 제시하면서 대답을 유도하였다. 그러므로 반대되는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문장들 모두를 제언문으로 다루어도 무방할 듯하다.

둘째, (가,나,다) 세 문장이 모두 제언문이라고 전제한다면, 제언문의 경우도 담화 문맥 또는 화자의 의도에 따라 정보구조가 다르게 선택될 수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즉 화자가 새로운 정보로만 구성된 문장을 전달할 때, 어떤 성분을 부각시켜 초점을 부여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가)는 행위의 주체인 개를 부각시키고, (나)는 누구에게 일어난 일인지를, 마찬가지로 (다)는 어떤 행위가 일어났는지를 부각시켜서 새로운 장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다음 예문 (40)도 갑작스럽게 사건이 생긴 경우에, 그것이 무슨 일인지를 질문했을 때 가능한 대답이다. (가)가 가장 자연스러운 대답이고, (나)도 허용이 된다. (다)는 초점이 아예 없으므로 비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 (40) 가. A: **achachila-ja-w** jiw-x-i.  
 grandfather-my-FOC die-ASP-3P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나. A: achachila-ja-x **jiw-x-i-wa**.  
 grandfather-my-BG die-ASP-3P-FOC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다. A: \*achachila-ja-x jiw-x-i.  
 grandfather-my-TOP die-ASP-3P-FOC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39, 40)의 한국어 번역문에서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한국어의 경우 동일한 문맥에서 제언문의 주어에 {-가}만 쓸 수 있다는 점이다. 아래 (41)의 한국어 대화를 통해 이를 점검해 볼 수 있다.

- (41) A: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  
 B: 왜? 무슨 일 생겼어?  
 A: \*방금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  
 A’: \*방금 개는 아이를 물었어

#### 5.3.4. 초점 실현의 예외

그런데 아이마라어의 어말 모음 탈락 현상으로 인해 초점표지와 문장

유형이 동시에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생긴다. 아래 (42가,나)의 ‘korea-t-t’와 ‘korea-t’는 음성적으로 분간하기 힘들다. 이에 대해 자료제공인은 문말의 억양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였다.<sup>79)</sup> (가)는 동사 ‘juti’의 마지막 두 번째 음절에서 억양이 상당히 높아지는 반면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바로 앞의 복자음 tt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원래 의문문이 갖는 억양인지를 앞으로 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아이마라어의 문법 표지가 발달해 있어서 운율적 요소는 거의 간과되어 왔는데, 초점 및 화제와 관련된 운율적 장치가 더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 (42) 가. Wasu:ru-x Mario-x **korea-t-t** jut-i.  
 yesterday-BG Mario-BG Korea-from-FOC.Q come-3P  
 ‘어제 마리오가 **한국-에서** 왔어?’  
 나. Wasu:ru-x Mario-x **korea-t-∅** jut-i.  
 yesterday-BG Mario-BG Korea-from-FOC come-3P  
 ‘어제 마리오가 **한국-에서** 왔어’

지금까지의 문장들은 하나의 문장 성분에 초점이 주어지는 좁은 초점이다. 두 개 이상의 성분에 초점이 주어지는 넓은 초점의 경우는 어떨까? Hardman(2001:170)과 자료제공인 2인 모두 초점표지 {-wa/-sa/-ti}는 한 문장에 한 번밖에 못 나온다고 하였다. 예외적으로 (43가)처럼 두 개의 성분에 초점이 부여되도록 질문을 한 경우에도, 대답하는 문장은 (다,라)처럼 하나의 성분에만 {-wa}가 붙을 수 있다. (나)는 초점표지 {-wa}가 두 개가 붙었으므로 비문이다.

- (43) 가. Kunapacha-s-s<sup>80)</sup> **khiti-s-s** Korea-t jut-i?

79) Hardman(2001:178)에서 문법적 기능을 가진 억양은 <A-ti B-cha> ‘A 또는 B’의 구조가 유일하다고 하였지만, 아이마라 프로젝트의 원어민 조사에서 그렇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80) 두 번째 {-sa}는 나열기능의 문장접사이다(Hardman 2001:176). 두 개의 다른 {-sa}가 연속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이번 조사에서 처음 발견한 사실이다. 이것은 음성적인 길이가 더 길다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자료제공인은 이런 문장을 평소엔 잘 쓰지 않고,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의문문으로 나누어서 말한다고 했다.

**khiti-s** jut-i? **Kunapacha-s** jut-i?



- when-FOC.Q-SS    who-FOC.Q-SS Korea-from come-3P  
 ‘언제                    누가            한국-에서    왔니?’
- 나. \*Wasu:ru-w Mario-w Korea-t jut-i.  
 yesterday-FOC Mario-FOC Korea-from com-3P  
 ‘어제            마리오-가    한국-에서    왔어.’
- 다. Wasu:ru-w Mario-x Korea-t jut-i.  
 yesterday-FOC Mario-BG Korea-from com-3P  
 ‘어제            마리오-가    한국-에서    왔어.’
- 라. Wasu:ru-x Mario-w Korea-t jut-i.  
 yesterday-BG Mario-FOC Korea-from com-3P  
 ‘어제            마리오-가    한국-에서    왔어.’

### 5.3.5. 부정문과 유표적 어순의 초점

부차적인 논의이긴 하지만, 아이마라어 부정문과 유표적 어순에서 초점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자. 아이마라어는 대부분의 문장 성분에 초점표지 {-wa}가 주어질 수 있으므로 어순에 따른 초점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하지만 부정문의 경우에는 주로 부정부사 jani에 초점표지 {-wa}가 붙으므로 유표적 어순과 초점(부정의 대상)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부정문의 구조를 보자. 아이마라어는 한국어보다 더 자유로운 어순을 보이는 만큼 부정부사 jani도 문장의 어느 위치에나 올 수 있다. 아래 예문에서 그 특성이 잘 나타난다. 부정되는 부분을 [<sub>F</sub>]로 나타내었는데, 부정부사 jani의 위치와 상관없이 부정의 범위는 동일하다.

- (44) Mario-x Korea-t sapa paxsi-w jut-i, [<sub>F</sub> marzo-n-sti] jani-w  
 jut-k-i-ti.  
 Mario-TOP Korea-from each month-FOC come-3P march-in-TOP.CONTR not-FOC  
 come-NEG-3P-NEG  
 ‘마리오-는 한국-에서    매달            온다. (그런데)    3월-에-는    안 왔다.’
- (45) 가. [<sub>F</sub> Marzo-n-sti ] jani-w Mario-x jut-k-i-ti.  
 march-in-TOP.CONTR not-FOC Mario-BG come-NEG-3P-NEG  
 ‘3월-에-는    마리오-가 오지 않았다’

---

who-FOC.Q come-3P    when-FOC.Q    come-3P  
 누가    왔니?    언제    왔니?

나. **jani-w** [<sub>F</sub> **Marzo-n-sti**] Mario-x jut-k-i-ti.  
 not-FOC march-in-TOP.CONTR Mario-BG come-NEG-3P-NEG  
 ‘3월-에-는 마리오-가 오지 않았다’

위의 예문에서는 부정부사 jani에 초점표지 {-wa}가 결합하였다. 아이마라 화자에게 부정문을 제시하고 아이마라어를 번역하라고 하면 대부분 이러한 구조의 부정문을 사용한다. 그러나 예문 (44)를 전제로 하여 아래와 같이 문맥을 제공하면 초점 {-wa}가 다른 곳에 올 수 있다.

(46) 가. **Khiti-s** marzo-n-x Korea-t jan jut-k-i?  
 who-FOC.Q march-at-BG Korea-from not come-NEG-3P  
 ‘누가 3월-에 한국-에서 안 왔니?’

나. [<sub>F</sub> **Mario-w**] Korea-t marzo-n jan jut-k-i-ti.  
 Mario-FOC Korea-from march-at not come-NEG-3P-NEG  
 ‘마리오-가 한국-에서 3월-에 안 왔어.’

위 (44,45,46)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부정문의 경우 초점이 부정부사 자체에 주어질 수도 있고, 부정의 대상에 주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한국어의 경우, 부정되는 대상에 초점이 주어진다고 하지만(박철우 2003:82), 언어 보편성의 측면에서 아이마라어에 비추어 본다면 부정문의 초점이 부정부사에도 주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음은 어순에 따라서 부정의 대상이 달라지는 경우이다. 이 경우도 초점은 부정부사 jani에 있지만 부정의 대상이 어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47) 가. Edgara-x patamarka-t **jani-w** [<sub>F</sub>**jach'a marka-r**] sarx-k-i-ti.  
 Edgar-TOP rural.village-from not-FOC big city-to leave-NEG-3P-NEG  
 ‘에드가르-는 시골-에서 도시로 이사하지 않았다.’(도시로 이사한 것이 아니다)<sup>81)</sup>

나. Edgara-x **jani-w** [<sub>F</sub>**Patamarka-t-pach**] jach'a marka-r sarx-k-i-ti.  
 Edgar-TOP not-FOC rural.village-from-self big city-to leave-NEG-3P-NEG  
 ‘에드가르-는 도시로 시골-에서 이사하지 않았다.’(시골에서 이사한 것이 아니다)<sup>82)</sup>

81) 박철우(2003:100)의 예를 빌려왔다. 한국어에서는 동사의 바로 앞에 초점이 위치한다는 설명인데, 이 경우도 부정문의 경우 초점이라기보다 부정의 범위(대상)으로 보는 것이 좋다.

82) 구술조사에서는 두 문장이 똑같다는 대답을 들었다. 아마도 대조되는 두 문장의 의미 차이가 금방 인식되지 않기 때문인 듯하다. 이는 한국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반면에

## 5.4. 화제의 실현 양상

### 5.4.1. 화제의 문두성

아이마라어도 일반적으로 문두에 화제가 위치한다. 문장 성분은 주어, 목적어, 부사어 어떤 것이든지 화제가 될 수 있다. 아래 (48)의 예에서 화제 관련 표지 {-xa}가 문두에 올 때 화제성을 띠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어 {-는}이 문두에서 화제로 실현되는 것과 대응된다.

- (48) 가. Pablo-x wasu:ru-x irnaqaw-∅<sup>83</sup> lur-i.  
Pablo-TOP yesterday-BG task-ACC do-3P  
'파블로-는 어제 숙제-를 했다.'
- 나. Wasu:ru-x Pablo-w irnaqaw-∅ lur-i.  
yesterday-TOP Pablo-FOC task-ACC do-3P  
'어제-는 파블로-가 숙제-를 했다.'
- 다. Irnaqaw-∅-x Pablo-w wasu:ru-x lur-i.  
task-ACC-TOP Pablo-FOC yesterday-BG do-3P  
'숙제-는 파블로-가 어제 했다.'

그런데 화제 관련 표지 {-xa}가 결합된다고 해서 모두 화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48가,다)에서 문중의 wasu:ru '어제'에 {-xa}가 붙어 있지만 화제로 보기는 힘들다. 이 표지는 화제가 아니라 바탕을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 5.4.2. 대조적 화제 표지

그렇다면 화제 관련 표지 {-xa}가 한국어 {-는}처럼 문두가 아닌 위치에

---

자료제공인이 고민할 시간을 가지고 응답한 서면 자료에서는 두 문장이 차이를 보였다.  
83) 여기서는 드러나는 초점표지 -w(a)가 없는데, 초점이 없는 문장일 수도 있고 대격 뒤에서 ∅형태로 실현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만약 초점이 ∅형태로 실현된 것이라고 할 때, 운율적 돌돌림이 수반되는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올 때 대조성을 띠는 것일까? 결론은 그렇지 않다. 위의 (48) 문장들은 대조적 문맥이 아니라 일반적인 문맥에서 얻어낸 문장들이다. 그 대신 아이마라어에는 대조적 화제표지 -sti가 별도로 존재한다. 다음은 그 예시이다. (49)는 주어가 화제 또는 대조적 화제로 쓰였고, (50)는 목적어가 화제화되었다.

- (49) 가. Mario-mp Edgara-mpi-x **kun-∅-s** manq'a-px-i?  
 Mario-and Edgar-and-TOP what-ACC-FOC.? eat-PL-3P  
 '마리오-와 에드가르-는 **무엇-을** 먹었니?'
- 나. Mario-x **manzan-∅-∅** manq'a-nt-i, Edgara-sti **puqut-∅-∅**  
 manq'a-nt-i.  
 Mario-TOP apple-ACC-FOC eat-inward-3P Edgar-TOP.CONTR banana-ACC-FOC  
 eat-inward-3P  
 '마리오-는 **사과-를** 먹었고, 에드가르-는 **바나나-를**  
 먹었어.'
- (50) 가. **Khiti-s** manzana-mp puquta-mp-∅ manq'a-nt-i?  
 who-FOC.? apple-and banana-and-ACC eat-inward-3P  
 '누가 사과-와 바나나-를 먹었니?'
- 나. Manzan-∅-x **Mario-w** manq'a-nt-i, puqut-∅-sti **Edgara-w**  
 manq'a-nt-i.  
 apple-ACC-TOP Mario-FOC eat-inward-3P banana-ACC-TOP.CONTR Edgar-FOC  
 eat-inward-3P  
 ' 사과-는 **마리오-가** 먹었고, 바나나-는 **에드가르-가**  
 먹었어.'

위의 예문은 대조되는 대상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이다. 그런데 아래의 예문처럼 대조의 대상이 화용적으로 주어지는 경우에도 -sti를 통해 대조성을 표현한다.

- (51) Roberto-x Juana-ru-x mun-i-wa, ampara-p-∅-sti jani-w  
 katthap-k-i-ti.  
 Roberto-TOP Juana-to-BG like-3P-FOC hand-her-ACC-TOP.CONTR not-FOC  
 hold-NEG-3P-NEG  
 '로베르토-는 후안나-를 좋아하는데, 손-은 안  
 잡았다.'

위의 예문에서 ampara-p-sti를 써서 ‘손은 안 잡았다’란 대조적 의미를 표현할 때는 ‘발이나 머리는 잡았는데 손은 안 잡았다’의 의미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여자의 손은 잡았는데 그녀의 손은 안 잡았다’의 의미도 아니다. ‘좋아하는 것’의 의미는 고백을 하거나, 관심을 표현하거나 선물을 하는 등의 다양한 행위나 상태를 포함하는데, 그 중에 ‘손을 잡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sti의 대조성은 명사구 ‘ampara-pa’ (그녀의 손)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ampara-p katthap-i’(그녀의 손을 잡았다)의 동사구에 주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도 한국어의 대조적 화제 {-는}과 동일하다.

## 5.5. 아이마라어 정보구조의 특성

### 5.5.1. 특정성과 화제 표지

화제와 관련된 논의에서 한정성, 특정성, 총칭성, 개체층위 술어 등이 많이 언급되어 왔다. 박철우(2003:132)는 한정성이 명사구와 지시체 간의 관계일 뿐이고 화제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개체층위-장면층위의 술어의 해석도 단순히 동사 어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아이마라어의 대조를 위해, 이러한 논의를 모두 특정성과 관련한 논의로 단순화하였다.<sup>84)</sup> 왜냐하면 이 개념들 중 대부분이 화제-초점과 어느 정도 상관성은 있지만, 그 관계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말하기가 어렵는데, 단지 불특정 명사구의 화제화 제약을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특정 명사구의 화제화 제약이란 ‘불특정 명사구는 화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화제는 특정 명사구이다’라고도 할 수 있다.

이때의 불특정 명사구는 비한정 명사구의 부분집합이다. 불특정 명사구

84) 아직 구체적이지 않은 논지이지만 두 언어의 특정성 관련 대조를 위해 단순화하여 언급하였다.

는 비한정 명사구에서 담화 상 주어진 개체 집합의 부분집합으로서의 비한정 명사구를 제외한 것이다. 아래 예문에서 ‘어떤 애들’은 비한정 명사구이지만 ‘철수네 반 애들’의 주어진 집합 속의 부분집합이므로 특정 명사구이다.

- (52) A: 철수네 반 애들은 어땠니?  
 B: 어떤 애들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

다시 말하면, 비한정 명사구가 담화 상 전제된 집합의 부분을 지시하게 되면 특정성을 띠게 된다. 이에 따라 특정 명사구에는 대명사, 고유명사, 한정명사구, 총칭명사구에 더하여 부분집합으로서의 비한정 명사구가 포함된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불특정 명사구를 중심으로 한정성, 총칭성 등과 관련한 화제-초점 표지의 기능과 분포에 대해 점검해보고자 한다.

총칭성과 관련하여 비한정 명사구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한국어에서 ‘개’는 총칭적 류(類)로서의 ‘개과’도 되고 개별적 개체인 ‘개’도 된다. 개별 개체로서는 비한정적인 ‘어떤 개’도 될 수 있고 특정한 ‘그 개’도 될 수 있다. ‘개체총위 술어’와 함께 쓰이면 ‘개’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고, ‘장면총위 술어’와 쓰이면 어떤 시점 상의 ‘개’가 된다. 이는 아이마라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아래의 예에서 각각의 쓰임새를 볼 수 있다.

- (53) 가. Anu-x ch'iki-wa.  
 dog-TOP smart-FOC  
 ‘개는 영리하다.’  
 나. Anu-w ch'iki.  
 dog-FOC smart  
 ‘개-가 영리하다.’

위에서 (가)는 우선 류(類)로서의 개가 영리하다는 의미로 다가온다. 동일한 의미에서 접근하면 (나)는 ‘어떤 동물이 영리하니?’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자료제공인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두 문장 모두 총칭문으로서 해석될 수 있고 이때의 의미는 한국어와 동일하였다.

예문의 아이마라어와 한국어 해석문을 비교하면 {-xa}, {-wa}가 각각 {-는}, {-가}와 대응됨을 볼 수 있다. 한편 다음과 같이 문맥에 따라서 개체로서의 개를 나타내기도 한다.

(54) 가. **Ma:** anu-w wal t'iju-n-i.  
 one dog-FOC very run-here-3P  
 '개 한 마리가 막 달려왔다.'

나. Uta-pa-n-x anu-w utj-i. (Uka) Anu-x wal ch'iki-wa.  
 house-his-at-TOP dog-FOC exist-3P that dog-TOP very smart-FOC  
 '그의 집-에는 개가 있다. (그) 개-는 아주 영리하다.'

위의 (가)는 개별적이고 비한정적인 '어떤 개'를 의미하고, 동사는 '장면 층위 술어'에 해당한다. (나)의 두 번째 문장을 보면 '개'는 앞에서 언급된 '그 개'이다. 그러므로 한정적이다. 또한 '영리하다'는 그 개의 일반적 속성을 얘기하고 있으므로 '개체층위 술어'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도 한국어 {-는}, {-가}와 쓰임새가 동일하다.

그런데 (54)의 (나)에서 쓰인 화제 관련 표지 {-xa}가 명사구 자체의 한정성이나 '개체 층위 술어' 자체의 의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은 다음 예에서 드러난다. 아래의 예문 (55)의 'uka anu'는 한정적인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화제표지가 아닌 초점표지 {-wa}가 쓰였다. 그리고 술어인 '영리하다'는 보통 개체의 일반적인 속성으로 쓰이지만, 이 경우는 해당 순간 또는 장면에서의 개를 묘사하고 있다.

(55) Anu-w lunthat-∅ katthap-i. (Uka) **Anu-w** wali ch'iki.  
 dog-FOC thief-ACC catch-3P that dog-FOC very smart  
 '개가 도둑-을 잡았다. (그) 개가 참 영리하다.'

더구나 (53)에서는 총칭문인데도 불구하고 두 표지가 같이 쓰임을 볼 수 있고, (54,55)에서는 개별문인데도 마찬가지로 두 표지가 모두 쓰이고 있다. 이는 화제-초점 표지가 총칭성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음 절에서 담화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논하도록 하겠다.

의미론적인 논의와는 별개로, 위의 예문들을 고려할 때 명백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아이마라어의 화제-초점표지는 총칭성과 관련된 다양한 문장에서 한국어와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즉 화제 관련 {-xa}는 한국어 {-는}에, 초점표지 {-wa}는 한국어 {-가}에 각각 대응된다.

### 5.5.2. 담화 속 화제

화제와 초점의 부여는 근본적으로 담화 상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담화 속에서 화제표지와 초점표지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면 아이마라어의 {-xa}, {-wa}의 기능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다음은 정보구조가 담화 상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문이다. 이야기의 도입부에서, 처음 등장하는 지시체는 초점표지 {-wa}가, 이미 언급된 지시체는 화제 관련 {-xa}가 결합한다. 각각을 ‘도입’ 기능과 ‘유지’ 기능이라 할 수 있다.

- (56) *Nayrapacha-n-x ma: uywiri-w utjasi-:na. uywiri-x aymara-:n-wa.*  
 before.time-at-TOP one farmer-FOC live-3P.PAST farmer-TOP aymara-3P.PAST-FOC  
 ‘옛날-에 한 농부-가 살았다. 농부-는 아이마라인이었다.’

다음은 더 다양한 화제-초점 기능이 드러나도록 구성된 이야기이다. (56)에서 확인된 도입-유지 기능 말고도 총칭성-개별성, 대조적 화제-배타적 초점이 모두 사용되고 있다. 이 기능들은 해석문 아래에 별도로 표시했다.

- (57) *Qamaqi-x qhuru uywa-wa. (Qamaqi-x) iwij-∅ manq'-i.*  
 fox-TOP bad animal-FOC fox-TOP sheep-ACC eat-3P  
 ‘여우-는 나쁜 동물이다. (여우-는) 양-을 먹는다.  
 화제<총칭/중립<sup>85)</sup>> 화제<총칭/중립>

*Walru:ru-x qamaqi-w uñs-ta:na.*  
 before.2day-TOP fox-FOC appear-3P.PAST  
 그저께-는 여우-가 나타났다.  
 초점<개별/도입>

85) 담화 상 도입과 유지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중립’으로 표시하였다.



**Uka Qamaqi-w/x** iwij jak'a-n muyu-ska-:na.  
 that fox-FOC/TOP sheep near-at go.around-ASP-PAST  
 그 여우-가/는 양 가까이-에서 맴돌고 있었다.  
 초점/화제<개별/유지>

Masu:ru-x **allqamari-w** uñs-ta:na. Ma:sarma-x  
 yesterday-TOP falcon-FOC appear-3P.PAST last.night-TOP  
 어제-는 매-가 나타났다. (그리고)어제 밤  
 초점<개별/도입>

**naya-n iwija-ja-w**<sup>86)</sup> jiw-x-i. Nayrapacha-t-x  
 I-of sheep-my-FOC die-ASP-3P the.past-from-TOP  
 나-의 양-이 죽었다. (그런데)옛날-부터  
 초점<개별/도입>

allqamari-x jani-w iwij-∅ jway-ka-:n-ti.  
 falcon-TOP not-FOC sheep-ACC kill-NEG-3P.PAST-NEG  
 매-는<sup>87)</sup> 양-을 죽이지 않았다.  
 화제<총칭/중립>

**qamaqi-w** iwij-∅ manq'a-:na. Allqamari-sti jani-w  
 fox-FOC.EX sheep-ACC eat-3P.PAST falcon-TOP.CONSTR not-FOC  
 (대개)여우-가 양-을 먹었다.<sup>88)</sup> (그러나) 매-는  
 배타초점<총칭/중립> 대조화제<총칭/중립>

iwij-∅ manq'-k-i-ti. **Uka qamaqi-w** lunthata-xa.  
 sheep-ACC eat-NEG-3P-NEG that fox-FOC.EX criminal-BG  
 양-을 안 먹는다. (그러므로)그 여우-가 범인이다.  
 배타초점<개별/유지>

위 담화에서의 분포를 보면 총칭성-개별성은 화제-초점과 일치하지 않는다. 비록 총칭성이 화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배타적 초점

86) 자료제공인은 화제표지 {-xa}도 가능하지만 의미가 다르다고 했다. 대조적 의미는 별도로 -sti가 있으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도입과 유지의 차이인지 또 다른 의미의 차이인지 점검이 필요하다.

87) '원래는 매가', '원래 매는'으로도 번역될 수 있다. 스페인어 원문은 'originalmente falcons...'이다.

88) 이 문장이 총칭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아이마라어로 번역하기 이전의 스페인어 문장에 부사 *usualmente* '보통'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의 경우 그렇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도입-유지 기능도 화제-초점과 일치하지 않는다. 단 도입 기능의 경우 모두 초점표지로 실현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편, 도입도 유지도 아닌 ‘중립’의 경우 총칭성에 해당하는데, 총칭성을 띤 지시체는 개념 자체를 지시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지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화제-초점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정보구조 전반에 대한 것이므로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아이마라어 화제와 초점 표지의 기능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 이는 한국어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아이마라어 이야기와 그에 대응하는 한국어 해석문을 대조해 보면, 특정성이나 담화의 구조와 관련하여 {-xa}는 {-는}과, {-wa}는 {-가}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두 언어의 정보구조 체계가 어떻게 대응되는지는 다음 장에서 도표로 제시할 것이다.

## 5.6. 정리 및 요약

이 장에서는 이제까지 검토한 정보구조의 일반 이론과 유형론 연구들을 기반으로 삼고, 직접 분석한 아이마라 문법 지식을 활용하여 아이마라어 정보구조의 특징들을 다양하게 포착해보려 하였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아이마라어의 화제 관련 표지 {-xa}는 한국어 화제 표지 {-는}에 대체로 대응되지만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마라 {-xa}는 문중에도 자유롭게 중복적으로 쓰일 수 있는데, 이 경우 한국어의 {-는}이 문중에서 대조성을 띠는 것과 달리 아이마라 {-xa}는 유표적인 의미자질을 갖지 않는다. 대신 아이마라어는 대조적 화제의 경우 별도의 -sti라는 문법 표지를 갖고 있다. 이 대조화제 -sti는 한국어 대조화제 {-는}에 그대로 대응된다. 그리고 아이마라 초점표지 {-wa}도 한국어의 {-가}에 대응됨을 확인하였다.

아이마라 정보구조 표지의 특징을 점검하기 위해 한정성, 총칭성 등 명

사구의 특정성과 관련하여 화제-초점 표지의 적용 양상을 살펴보고, 개체/장면층위 술어와의 관련성도 따져보았다. 특히 화제-초점의 담화 기능이 어떤 표지로 나타나는지를 한국어와의 대조를 통해 분석했다. 그 결과 명사구의 특정성, 개체/장면층위 술어 및 담화기능과 관련하여 아이마라어 화제 관련 표지 {-xa}와 초점표지 {-wa}는 한국어의 {-는}, {-가}와 각각 일치함을 보였다.

다음 6장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논의를 종합하여 한국어와 아이마라어의 차이점을 부각시키고, 그 차이점이 의미하는 정보구조의 하부 유형을 일반화하여, 정보구조 표지 실현의 유형론을 새롭게 제시할 것이다.

## 제6장 한국어와 아이마라어의 화제-초점 대조 및 정보구조 표지 실현의 유형론

### 6.1. 개관

이 장에서는 아이마라어의 독특한 제언문 현상과, 한국어의 독특한 현상인 동일격 중출구조를 중심으로 두 언어를 대조하여, 한국어와 아이마라어 정보구조 표지의 가장 큰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어는 초점성분에 쓰이는 {-가}가 중출이 가능한 반면, 아이마라어는 화제에 해당하는 {-xa}가 중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차이점은 ‘화제-바탕-초점’의 삼분구조를 설정할 때만이 설명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아이마라어는 바탕성분이 화제와 표지를 공유하고, 한국어는 바탕성분이 초점과 표지를 공유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차이점은 정보구조의 유형론을 수립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즉 모든 언어에 보편적인 정보구조는 문법 표지를 통해 실현이 되는데, 화제와 초점에 대응되는 표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언어를 ‘정보구조 부각 언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때 화제-초점의 표지들은 일종의 의미지도를 구성하고 있으며, 화제-바탕-초점의 삼분구조와 대조성의 조합은 하나의 척도 상에 표현할 수 있다. 이는 최소한, 정보구조를 형태소로 표현하는 한국어와 아이마라어에서는 명확히 드러나는 사실이다. 이를 바탕으로 아이마라어는 초점과 배경 사이에 관련 표지의 경계가 있는 ‘초점-배경 정렬’ 유형이고 한국어는 화제와 논평 사이에 그 경계가 있는 ‘화제-논평 정렬’ 유형임을 보일 것이다.

이에 따라 아이마라어의 {-xa}는 화제와 바탕을 동시에 표시하는 ‘배경 표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배경표지가 종속절 구조에서도 배경제시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지금까지의 주장에 의미론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 6.2. 한국어와 아이마라어의 화제-초점 대조

### 6.2.1. 제언문의 대조

제언문(thetic sentence)는 화제가 없는 문장이므로 정보구조의 이분법적 관점인 ‘화제-논평’ 구조 또는 ‘화제-초점’ 구조에서는 문장 전체가 초점인 문장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화제-바탕-초점’의 삼분구조에서 접근하면 바탕-초점을 확인하기에 좋은 기준이 된다.

아래 예문들은 앞에서 다루었던 제언문들인데 한국어와의 대조 측면에 중점을 두고 다시 살펴보자. 예문 (2,3)은 모두 질문 (1)에 대한 대답으로 제언문이다.

(1) Q: Kuna-s kamach-i? (또는 Kamach-i-sa?)  
what-FOC.? what.happen-3P what.happen-3P-FOC.?  
‘무슨 일이니?’

(2) A: **achachila-ja-w** jiw-x-i.  
grandfather-my-FOC die-ASP-3P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A’: achachila-ja-x **jiw-x-i-wa**.  
grandfather-my-BG die-ASP-3P-FOC  
‘할아버지-가/\*는 돌아가셨어.’

(3) A: **Wuti-w** jala-nt-i.  
boat-FOC run-into-3P  
‘배-가 침몰했어.’  
A’: Wuti-x **jala-nt-i-wa**.  
boat-BG run-into-3P-FOC  
‘배-가/\*는 침몰했어.’

(2,3)의 (A)는 (1)의 질문에 대해 가장 자연스러운 대답이다. 담화 상 새로운 지시체를 주어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 ‘할아버지’와 ‘배’에 초점 표지 {-wa}가 결합하였다. 한국어의 번역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초점 관련 표지 {-가}가 쓰인다. 반면에 (2,3)의 (A’)는 아이마라어에서 허용되는

대답으로 주어에 화제 관련 {-xa}가 결합하였다.

앞의 (2)의 경우에 대해 주어 ‘할아버지’는 화자-청자가 이미 공유하는 구정보이기 때문에 화제로 쓰인 것이라고 보는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어와 대조해 보면 이 주어 ‘할아버지’의 성분이 화제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난다. 왜냐하면 아이마라어와 한국어가 동일한 문맥에서 동일한 정보 구조를 띠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한국어 번역문에서 볼 수 있듯이 화제 표시 {-는}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2A')의 주어는 아이마라어 문장에서 서술어의 초점표지를 고려하면 초점이 아니고, 한국어 문장에서 화제표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화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화제도 초점도 아닌 바탕 성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예문처럼 목적어 논항이 하나 더 추가된 경우에도 동일한 현상을 볼 수 있다. 이 예문 (4)도 새로운 장면을 기술하는 문장으로 모두 신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초점은 다양한 성분에 부여된다.

- (4) 가. **Anu-w** wawa-r achj-i.  
dog-FOC baby-ACC bite-3P  
'개-가 아이-를 물었어.'
- 나. Anu-x **wawa-ru-w** achj-i.  
dog-BG baby-ACC-FOC bite-3P  
'개-가/\*는 아이-를 물었어.'
- 다. Anu-x wawa-r **achj-i-wa**.  
dog-FOC baby-ACC bite-3P-FOC  
'개-가/\*는 아이-를 물었어.'

위 (4가)의 아이마라어는 가장 무표적인 대답으로서 새로 도입되는 지시체 중에 주어에 초점이 된다. 그러나 (4나,다) 또한 허용되는 대답이므로, 반드시 주어만이 아니라 목적어나 서술어도 초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가,나,다) 각각이 어떤 문맥에서 나타나는지는 확인하기가 힘들었다. 추후 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이 연구는 화자가 어떤 성분을 더 부각시키고자 하는지의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므로, 담화 상 신정보-구정보인지의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위의 예문 (4)에서 각각의 한국어 번역문을 보면 (2,3)과 마찬가지로 아이마라어와 한국어의 차이점을 잘 드러내준다. 즉 아이마라어는 제언문의 주어에 초점표지 {-wa} 외에도 화제 관련 표지 {-xa}가 쓰일 수 있는 반면에, 한국어는 제언문 주어에 초점 관련 표지 {-가}만 가능하고 화제 표지 {-는}은 쓰일 수 없다는 점이다. 이 역시 (4)의 (나,다)처럼 제언문의 주어가 초점이 아닐 때, 한국어를 통해 이 주어가 화제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위 두 사례의 경우, 한국어의 문법성 판단에 대해 이의가 있을 수도 있다. 즉, 위 예문들에서 아이마라어처럼 한국어 화제표지 {-는}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려면, 위 문장들 각각의 (나) 또는 (다)는 제언문이 아니라 화제인 구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들이어야 한다. 하지만 아래 (5)처럼 문장 전체가 신정보로서 제언문이 확실한 문맥을 설정하면 한국어의 문법성 판단이 명확한 것으로 여겨진다.

- (5) A: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  
 B: 왜? 무슨 일 생겼어?  
 A: \*방금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  
 A': \*방금 개는 아이를 물었어.

지금까지 예문들은 아이마라어의 제언문에서 주어에 초점표지와 화제 관련 표지가 둘 다 가능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초점 관련 표지만 가능한 경우를 잘 드러내주었다. 다음 예문 (6)~(10)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대답에서 주어인 '후안'은 위의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화자와 청자가 동시에 알고 있는 구정보로 가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각 예의 (A)는 초점이 부여될 때는 구정보이지만 주어진 지시체 집합 중의 부분집합을 지시하는 '관계적 신정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A)의 경우는 주어가 초점 성분이기 때문에 아이마라어와 한국어가 큰 차이가 없다. 이와 달리, 각 (A')의 주어가 화제도 초점도 아닌 문장이 중요한데, 이 경우 아이마라어는 화제 관련 표지 {-xa}가 쓰이고 한국어는 화제표지가 불가능하다. 다시 강조하지만 한국어의 {-는}은 화제에만 쓰일 수 있으므로, 화제가 없는

제언문에서는 나타날 수 없다.

- (6) A: **Juanu-w** wal irnaq-i.  
Juan-FOC much work-3P  
A': Juanu-x wal **irnaq-i-wa**.  
Juan-BG much work-3P-FOC  
'후안-이/\*은 열심히 일했어.'
- (7) A: **Juanu-w** wali k'ach sarnaq-i.  
Juan-FOC much slowly walk.around-3P  
A': Juanu-x wali k'ach **sarnaq-i-wa**.  
Juan-FOC/BG much slowly walk.around-3P  
'후안-이/\*은 매우 천천히 걸어.'
- (8) A: **Juanu-w** uka libr-∅ al-i.  
Juan-FOC that book-ACC buy-3P  
A': Juanu-x uka libr-∅ **al-i-wa**.  
Juan-BG that book-ACC buy-3P-FOC  
'후안-이/\*은 그 책을 샀어.'
- (9) A: **Juanu-w** Maria-r ma: q'api rusa-nak-∅ chur-i.  
Juan-FOC Maria-to one bundle rose-PL-ACC give-3P  
A': Juanu-x Maria-r ma: q'api rusa-nak-∅ **chur-i-wa**.  
Juan-BG Maria-to one bundle rose-PL-ACC give-3P-FOC  
'후안-이/\*은 마리아-에게 한 다발 꽃-을 줬어.'
- (10) A: **Juanu-w** escalera-t jalaqt-i.  
Juan-FOC stairs-from fall-3P  
A': Juanu-x escalera-t **jalaqt-i-wa**.  
Juan-BG stairs-from fall-3P-FOC  
'후안-이/\*은 계단-에서 떨어졌어.'

여전히, 위의 (A')의 한국어 문장에 화제표지 {-는}이 가능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어 {-는}이 가능한 경우는 담화 문맥이 다른 경우로서, 아래와 같이 전제되는 질문 자체에 화제가 포함되어 있거나, 담화 상 화제가 전제된 것으로 보아야한다.

- (11) Q: Juanu-x kamach-i-sa?  
what-TOP what.happen-3P-FOC.?  
'후안은 어땠니?'



A: Juanu-x wal irnaq-i-wa.

Juan-TOP much work-3P-FOC

‘후안-은 열심히 일했어.’

## 6.2.2. 동일격 중출 구조의 대조

앞에서 보았듯이 아이마라어는 정보구조가 한국어와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지만, 제언문의 경우 주어가 화제도 초점도 아닌 바탕에 해당될 때, 두 언어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는 한국어에 독특하게 나타나는 주격 및 대격 중출 구조가 아이마라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점검해보겠다. 다양한 문형을 조사지에 포함시켜 조사하였으나 결과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대격 중출 구조가 일부 나타났으나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본 제언문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동일격 중출 구문의 대조를 통해서 두 언어가 바탕을 어떻게 표시하는지를 잘 알 수 있다. 다음 각 예문의 (가)는 한국어 주격 중출 구문으로서<sup>89)</sup> 속격에 해당하는 논항이 {-가}로 실현된 문장이고, (나) 또는 (나')는 그에 대응되는 아이마라어 문장이다.

(12) 가. 코끼리가 코가 길다.

나. Elefante-n nasa-pa-x jach'a-wa.

elephant-of nose-its-BG big-FOC

‘코끼리-의 코-가 길다.’

다.\*Elefante-w nasa-pa-w jach'a.

elephant-FOC nose-its-FOC big.

‘코끼리-가 코-가 길다.’

(13) 가. 코끼리는 코가 길다.

나. Elefante-n nasa-pa-x jach'a-wa.

elephant-of nose-its-TOP big-FOC

‘코끼리-의 코-는 길다.’

---

89) 일반적으로 주격 중출 구문은 {-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장을 의미하므로 “코끼리가 코가 길다.” 같은 문장을 의미한다. 화제를 포함한 문장 “코끼리는 코가 길다.”까지 아울러서 논의할 때는 소위 ‘이중 주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여기서는 ‘이중 주어’ 문장도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 나'. Elefante-n-x nasa-pa-x jach'a-wa.  
 elephant-of-TOP nose-its-BG big-FOC  
 '코끼리-에-는 코-가 길다.'
- 다.\*Elefante-x nasa-pa-x jach'a-wa.  
 elephant-TOP nose-its-BG big-FOC  
 '코끼리-는 코-가 길다.'
- 다'.\*Elefante-x nasa-pa-w jach'a.  
 elephant-TOP nose-its-FOC big.  
 '코끼리-는 코-가 길다.'

(14) 가. 마리오는 딸이 예쁘다.

- 나. Mario-n phuchha-pa-x jiwaki-wa.  
 mario-of daughter-his-BG look.good-FOC  
 '마리오-의 딸-이 예쁘다.'
- 나'. Mario-n-x phuchha-pa-x jiwaki-wa.  
 mario-of-TOP daughter-his-BG look.good-FOC  
 '마리오-에게-는 딸-이 예쁘다.'
- 다.\*Mario-x phuchha-pa-x jiwaki-wa.  
 mario-TOP daughter-his-BG look.good-FOC  
 '마리오-는 딸-이 예쁘다.'

위의 예문들에서 (다) 또는 (다')가 보여주듯이 주격 중출 구조는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12다)는 초점 표지 {-wa}가 두 개 이상 올 수 없기 때문에 비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화제화할 때 속격<sup>90)</sup> 표지를 생략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한국어의 경우 화제표지 {-는}이 붙을 때 격조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지만, 아이마라어는 한국어와 달리 화제-초점 표지가 붙을 때에도 항상 격표지가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3나)의 속격을 화제화하면 (13나') 또는 (14나')처럼 처격 표지 뒤에 화제 관련 표지가 결합할 수 있다. 만약 (13가)의 의미가 대조적 문맥을 포함한다면 다음과 같이 대조화제 표지 {-sti}를 사용한 화제화가 가능하다.

90) 아이마라어의 속격 접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즉 속격에 해당하는 성분은 처격 접사 {-na}로 표시하고, 실제 속격에 해당하는 기능은 피수식 명사의 뒤에 붙는 후치 소유 접사 {-ja/-ma/-pa/-sa} (각각 1,2,3,4 인칭)이 담당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 (15) Elefante-n-sti<sup>91)</sup> nasa-pa-x jach'a-wa.  
 elephant-at-TOP.CONTR nose-its-BG big-FOC  
 '코끼리-에-는 코-가 길다.'

위와 유사한 예로, 다음 두 예문은 처격 논항이 한국어에서 {-가}로 실현된 문장이다. 이 예문들에 해당하는 아이마라어 문장도 마찬가지로 해당 성분에서 처격 표지가 결합한 후에 화제-초점 표지가 오게 된다.

- (16) 가. 시장이 구두가 값이 100볼리비아노가 싸다.  
 나. Qhathu-n-x sapatu-n chani-pa-x patak bolivian iraqata-wa.  
 maket-in-TOP shoe-of price-its-BG 100 boliviano cheap-FOC  
 '시장-에-는 신발-의 값-이 100 볼리비아노 싸다.'  
 나'. Qhathu-n-Ø sapatu-n chani-pa-x patak bolivian iraqata.  
 maket-in-FOC shoe-of price-its-BG 100 boliviano cheap-FOC  
 '시장-에서-가 신발-의 값-이 100 볼리비아노 싸다.'  
 다.\*Qhathu-w sapatu-n chani-pa-x patak bolivian iraqata.  
 maket-FOC shoe-of price-its-BG 100 boliviano cheap-FOC  
 '시장-이 신발-의 값-이 100 볼리비아노 싸다.'

- (17) 가. 한국이 남자가 수명이 짧다.  
 나. Korea-n-xa chacha-naka-n jakawi-pa-x juk'aki-wa.  
 Korea-in-TOP man-PL-of life-his-BG short-FOC  
 '한국-에-는 남자-들-의 수명-이 짧다.'  
 다.\*Korea-xa chacha-naka-n jakawi-pa-x juk'aki-wa.  
 Korea-TOP man-PL-of life-his-BG short-FOC  
 '한국-은 남자-들-의 수명-이 짧다.'  
 다'.\*Korea-w chacha-naka-n jakawi-pa-x juk'aki.  
 Korea-in-FOC man-PL-of life-his-BG short  
 '한국-이 남자-들-의 수명-이 짧다.'

이 외에도 한국어에는 다음과 같이 전체-부분의 관계를 맺는 명사구들에 주격 중출이 이루어지는 문장들이 있다. 이 경우들도 아이마라어에서는 격 중출 구조는 불가능하고, (18)처럼 격표지가 먼저 실현된 후에 화제-초

91) -n(a) 접사는 속격, 처격으로 동시에 쓰이는데, (35)에서는 처격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확인하기 힘들었다. 원어민 화자라고해서 문법 범주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점 표지가 붙거나, (19)처럼 수식어-피수식어 구조로 표현해야만 한다.

(18) 가. 장미가 세 송이가 피었다.

나. Rosa-naka-t-xa **kimsa-w** panqara-px-i.  
 Rose-PL-from-TOP 3-FOC bloom-PL-3P  
 '장미-중에는 셋-이 피었다.'

(19) 가. 고추가 작은 것이 맵다.

나. **Jisk'a wayk'a-naka-w** juk'amp jaxu-naka.  
 small chili-PL-FOC more spicy-PL  
 '작은 고추-들이 더 맵다.'

마지막으로 대격 중출 구문을 보자. 조사 시 맨 처음 (20가)의 구조를 얻었다. 그리고 '선물을 주다'의 구조로 유도하여 (나)도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나)의 두 개의 목적어가 각각 분리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의 구조도 가능한지를 물었다. 자료제공인은 가능하긴 하나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이 문장이 두 개의 목적어를 갖는지, 아니면 여러 성분이 생략된 두 개의 문장을<sup>92)</sup> 말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20) 가. Mario-x Edgara-r lente-nak-∅ waxt'-i.

Mario-TOP Edgar-to glass-PL-ACC present-3P  
 '마리오-는 에드가르-에게 안경-을 선물했다.'

나. Mario-x Edgara-r lente-nak-∅ waxt'-∅ chur-i.

Mario-TOP Edgar-to glass-PL-ACC present-ACC give-3P  
 '?마리오-는 에드가르-에게 안경-을 선물-을 주었다.'<sup>93)</sup>

92) 예를 들면, '마리오는 안경을 (주었다) 에드가르에게 선물을 주었다.'

93) 원래는 '마리오는 에드가르에게 선물을 안경을 주었다.'의 문장을 유도하려 하였다. 목적격 중출 구조의 경우 부류-성원 관계의 순으로 나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0나)의 한국어 해석문이 어색한 이유이다. 자료제공인은 (20나) 문장에 두 개의 목적어가 있다고 대답하였으나, 다음 (나)와 같은 수식-피수식 관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 lente-nak-∅ waxt'-∅ (이중 목적어 구조)

glass-PL-ACC present-ACC  
 안경-을 선물-을

나. lente-nak waxt'-∅ (수식 명사 - 피수식 명사)

glass-PL present-ACC  
 안경 선물-을

다. <sup>?</sup>Mario-x lente-nak Edgara-r waxt'-ø chur-i.  
 Mario-TOP glass-PL-ACC Edgar-to present-ACC give-3P  
 '마리오-는 안경-을 에드가르-에게 선물-을 주었다.'

### 6.3. 화제-초점 표지 분포 및 기능의 차이점

앞서 5장에서 아이마라어 정보구조의 특징과 한국어와의 유사성을 다양한 예문을 통해 확인하였고, 이 장에서는 제언문과 동일격 중출 구문에서 아이마라어와 한국어가 보이는 차이점을 점검했다. 이를 토대로 아이마라어와 한국어를 대조하고 일반화하여 두 언어의 유형론적인 차이점을 설정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예로 든 문장들 중 화제와 초점이 동시에 주어지는 문장을 보면, 두 언어 모두 화제와 초점에 붙는 표지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즉 두 언어의 유사성을 부각시켜 보면, 두 언어는 모두 화제와 초점이 각각 일정한 문법 표지로 명시된다는 점에서 '정보구조 부각 언어'라고 부를 수 있다.

반면에 두 언어의 차이점에 주목해보면, 제언문과 동일격 중출 구문에서 보았듯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차이점은 화제도 초점도 아닌 부분을 어떻게 표시하는가이다. 그 외의 차이점까지 포함하여 정리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21) 한국어와 아이마라어 화제/초점 표지의 차이점

	아이마라어	한국어
전통적 문법 범주	문장접사	-이/가: 주격조사 -은/는: 보조사
정보구조 표지와 결합시 격표지의 실현	격표지는 항상 실현.	격표지 생략의 경우 많음.
문장유형 구별 기능	문장유형별 초점표지: 평서문 -wa 설명의문문 -sa 판정의문문 -ti	별도의 종결어미

	아이마라어	한국어
화제표지의 세분화	-xa: 화제 -sti: 대조적 화제	-은/는: 구분 없음
화제표지의 분포	-xa: 중출 구조 가능 (-sti도 -xa와 함께 쓰임)	-은/는: 중출 불가. 중출 시 유 표적 성분은 대조 의미
초점표지의 분포	-wa: 중출 불가. 모든 문장성분에 결합.	-이/가: 중출 구조 가능. 주어성 성분에 결합.

앞서 보았듯이 정보구조의 측면에서 {-가}는 아이마라어의 명확한 초점 표지 {-wa}와 기능이 유사하다. 그러나 두 형태소의 분포는 상이하다. 즉, 두 언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이마라어 초점표지 {-wa}가 어떤 문장 성분이든 상관없이 초점을 표시하지만, 한국어의 {-가}는 초점이 부여되더라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즉 {-가}는 주격 위주로 일부 환경에서만 나타난다.<sup>94)</sup> 그리고 {-wa}가 문장에서 한 번만 쓰일 수 있는 반면에 {-가}는 ‘주격 중출 구조’로 중복 출현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화제 관련 표지 {-xa}와 {-는}의 차이는 아이마라어의 경우 화제 관련 표지 {-xa}가 여러 번 반복해서 쓰인다는 사실이다. 편의상 앞에서 나왔던 예문 몇 가지를 아래에 옮겼다.

- (22) 가. Wasu:ru-x Mario-x korea-t-∅ jut-i.  
yesterday-TOP Mario-BG Korea-from-FOC come-3P  
나. 어제-는 마리오-가 한국-에서 왔어.  
나'. \*어제-는 마리오-는 한국-에서 왔어.

- (23) 가. Nayrapacha-t-x allqamari-x jani-w iwij-∅ jway-ka-:n-ti.  
the.past-from-TOP falcon-BG not-FOC sheep-ACC kill-NEG-3P.PAST-NEG  
나. 원래-는 매-가 양-을 죽이지 않았다.  
나'. \*원래-는 매-는 양-을 죽이지 않았다.

94) 아이마라어와 달리 한국어 {-가}의 분포가 왜 제약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답하기 힘들다. 만약 한국어도 아이마라어처럼 {-가}의 기본적 기능이 초점표지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유추 등의 통시적 변화를 거쳐 주격 조사의 기능과 결합되면서 그 분포가 ‘주어성 성분’에 제한되게 되었다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설은 입증하기가 힘들고,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추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24) 가. Qhathu-n-x sapatu-n chani-pa-x patak bolivian iraqata-wa.  
 maket-in-TOP shoe-of price-its-BG 100 boliviano cheap-FOC  
 나. 시장-에-는 신발-의 값-이 100 볼리비아노 싸다.  
 나'. \*시장-에-는 신발-의 값-은 100 볼리비아노 싸다.
- (25) 가. Korea-n-xa chacha-naka-n jakawi-pa-x juk'aki-wa.  
 Korea-in-TOP man-PL-of life-his-BG short-FOC  
 나. 한국-에-는 남자-들-의 수명-이 짧다.  
 나'. \*한국-에-는 남자-들-의 수명-은 짧다.

위의 예문에서 각 문장의 (나')는 (가)에 대해 화제표지를 직역한 문장이지만, 대조의 문맥이 아니므로 모두 비문이다. 반면에 (나)는 (가)에 대한 자연스러운 번역문이다. 그러므로 (가,나)는 동일한 정보구조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5나)에서 문두의 '한국에는'은 화제이고 '짧다'는 초점이다. 화제는 문두의 {-xa} 또는 {-는}을 통해 잘 드러난다. 초점은 한국어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아이마라어의 {-wa}를 보면 명백히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문장성분 '남자들의 수명이'는 화제도 초점도 아닌 바탕이라고<sup>95)</sup> 할 수 있다. 이 바탕에 해당되는 성분에 아이마라어는 화제 관련 표지 {-xa}가 붙고, 반대로 한국어는 {-가}가 붙었다. (39나')에서 보듯이 '수명은'이 화제의 {-는}이면 비문이 된다. 이는 이 예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화제-바탕-초점'으로 이루어진 문장에서 주격이 바탕부에 위치하면 항상 그렇다.<sup>96)</sup> 이 현상이 이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관찰이다.

다음은 일반적인 예문으로 한 문장에서 {-xa}가 중복적으로 일부분을 가져왔다. 위의 (22)~(25)가 주로 시간, 장소의 부사에 화제 관련 표지

95) 관련 개념과 용어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언급하면, 박철우(2003)은 Vallduví(1992)에서 가져온 'link(연결)-tail(꼬리)-focus(초점)' 구조를 제시하였고, 연결부와 꼬리부를 합쳐서 'ground(바탕)'이라고 했다. 하지만 '연결'과 '꼬리'는 정착되지 않은 용어 및 번역어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보다 직관적인 '화제-바탕-초점'의 용어를 썼다.

96) 목적어나 부사어가 바탕부에 위치할 때, 아이마라어는 화제표지 {-xa}가 붙을 수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초점표지 {-가}가 붙지 않는다. 즉 한국어는 바탕부의 {-가}의 분포가 주격에 제한된다.

{-xa}가 붙었는데 반해, 아래 (26가)에서는 필수논항인 목적격(또는 여격)에도 {-xa}가 결합하여 바탕부를 표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6) 가. Roberto-x Juana-ru-x **mun-i-wa**.

Roberto-TOP Juana-to-BG like-3P-FOC

로베르토-는 후안나-를 **좋아한다**.

나. Roberto-x **Juana-ru-w** mun-i.

Roberto-TOP Juana-to-FOC like-3P

로베르토-는 **후안나-를** 좋아한다.

아래의 예문은 (15)를 다시 옮겨 쓴 것으로, 대조화제 표지 -sti와 일반적 화제 관련 표지 {-xa}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이다. (가)에서 문두의 ‘코끼리는’이 화제이고 {-wa}가 붙은 ‘길다’가 초점이므로, ‘코가’는 바탕임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나)에서는 ‘코가’가 초점이고 ‘길다’가 바탕이다. 이 경우도 바탕부에 아이마라어는 {-xa}가, 한국어는 {-가}가 결합됨을 보인다.

(27) 가. Elefante-n-x<sup>97)</sup> nasa-pa-x **jach'a-wa**.

elephant-of-TOP nose-its-BG big-FOC

‘코끼리-는 코-가 **길다.**’

가. Elefante-n-x nasa-pa-w jach'a.

elephant-of-TOP nose-its-FOC big

‘코끼리-는 코-가 **길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제언문을 검토할 때 다른 예문을 옮긴 것이다. (나’)를 보면 바탕부에서 아이마라어는 화제 관련 표지 {-xa}를 쓰고, 한국어는 초점표지 {-가}를 쓴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나)는 질문 (가)에 대한 가장 자연스러운 대답으로서 전형적인 제언문이고, (나’)는 조금 어색하지만 가능한 문장이라고 한다. 즉 초점이 동사구에 부여된 (나’)의 경우 화제 관련 표지 {-xa}가 바탕부에 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97) -n 접사는 속격, 처격으로 동시에 쓰이는데, 이 문장에서는 처격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이 점을 확인하기 힘들었다. 원어민 화자라고해서 문법 범주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 (28) 가. Kuna-s kamach-i? (또는 Kamach-i-sa?)  
 what-FOC.? what.happen-3P what.happen-3P-FOC.?  
 ‘무슨 일이니?’
- 나. achachila-ja-w jiw-x-i.  
 grandfather-my-FOC die-ASP-3P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 나’. achachila-ja-x jiw-x-i-wa.  
 grandfather-my-BG die-ASP-3P-FOC  
 ‘할아버지-간 돌아가셨어.’

## 6.4. 정보구조 표지 실현의 유형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화제표지와 초점표지가 아이마라어와 한국어에서 각각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도식화하면, 다음 표와 같이 정보구조 표지 실현의 유형론을 나타낼 수 있다. 이 표는 각 언어의 정보구조 표지들이 정보구조의 의미 영역을 어떻게 차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므로 정보구조 표지의 의미지도라고 해도 좋겠다.

(29) 정보구조 표지 실현의 유형론

	화제		바탕	초점	
	대조화제	일반적 화제		정보초점	배제적 초점
아이마라	-sti	-xa	-xa	-wa	-wa
한국어	-는	-는	-가	-가	-가

가. 초점-배경 표시 언어 (아이마라어 등<sup>98)</sup>)

<-----배경-----> | <-----초점----->

나. 화제-논평 표시 언어 (한국어, 일본어 등)

<-----화제-----> | <-----논평----->

98) 케추아어는 화제표지 -qa, 대조화제표지 -ri, 초점표지 -mi를 가지고 있다(Noble 2007:17,68,72). 앞으로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주어에 화제/초점 표지가 아예 붙지 않는 문장이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 초점-바탕-화제의 삼분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도 있다.

정보구조라는 의미화용적 요소는 모든 언어에 보편적이지만, 한국어와 아이마라어에서는 정보구조가 문법형태로 실현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두 언어는 화제와 초점에 대응되는 형태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언어를 ‘정보구조 부각 언어’라고<sup>99)</sup>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언어의 상대적인 차이점으로 아이마라어는 초점표지가 명확하고, 한국어는 화제표지가 명확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아이마라어는 화제표지가 불명확하고, 한국어는 초점표지가 불명확하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의 표에서 보듯이, 두 언어의 문장들을 동일한 담화 문맥에서 대조를 해보면 각각의 화제와 초점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바탕도 명료하게 분간해낼 수 있게 된다. 이때 각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실현되는 초점 부분을 초점성분으로, 공통적으로 실현되는 화제 부분을 화제성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화제 성분도 초점 성분도 아닌 나머지 부분을 바탕성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정보구조 부각 언어는 이렇듯 정보구조라는 의미화용적 요소가 문법적 표지를 통해 문장의 성분으로 실현된 언어이다. ‘정보구조 부각 언어’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일반화할 수 있다.

- 가. 초점에 해당하는 표지와 화제에 해당하는 표지가 둘 다 있다.
- 나. 초점 표지가 명확한 경우, 화제성분에 붙는 표지가 바탕에도 붙는다.
- 다. 화제 표지가 명확한 경우, 초점성분에 붙는 표지가 바탕에도 붙는다.

---

99) 기존 연구들에서 화제가 부각되는 언어를 ‘화제부각 언어’, 초점이 부각되는 언어를 ‘초점부각 언어’라고 하고, 이 둘 모두가 드러나는 언어를 ‘화제-초점 부각언어 (topic-focus prominent)’라고 지칭하였는데(É. Kiss 2001), 이 개념은 주로 화제와 초점이 각각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언어들을 통해 설명된 개념이라는 점에서 ‘정보구조 부각 언어’와 다르다. 즉 ‘정보구조 부각 언어’는 정보구조가 두 개의 형태 표지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문장 구조를 화제-바탕-초점 구조로 확연히 드러내는 언어이다. 이 언어 유형은 화제-초점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탕까지 유표적으로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 다시 말해, 정보구조 부각 언어는 화제 관련 표지와 초점 관련 표지를 둘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 두 표지를 화제-바탕-초점의 세 영역에 배분하여 할당하는 언어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가)는 아이마라어와 한국어 정보구조의 공통적 특징을 나타낸 것이고, (나,다)는 각각 아이마라어와 한국어의 유형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다시 정리하면, 정보구조 부각 언어에서는 세 가지의 정보구조 성분이 표면적으로는 두 개의 표지로 실현이 된다. 그러므로 정보구조의 삼분체계를 양분할 때 두 표지의 경계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언어 유형이 결정된다. 이 유형들에 대해 ‘정보구조의 정렬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100)</sup> 그리고 정보구조 표지의 실현에 있어서, 아이마라어는 관련 표지들이 ‘초점-배경’으로 나뉘므로 ‘초점-배경 정렬’ 유형이라고 할 수 있고, 한국어는 관련 표지들이 ‘화제-논평’으로 나뉘므로 ‘화제-논평 정렬’ 유형이라 할 수 있다.

## 6.5. 배경표지의 증거 : 아이마라어 종속절

앞 절에서 내린 결론에 따른다면, 아이마라어 화제 성분의 {-xa}는 화제 표지가 아니라 ‘배경표지(background marker)’이다. 아이마라어의 종속절은 이러한 주장에 좋은 근거를 제시해준다. 왜냐하면, 아이마라어 배경표지 {-xa}는 명사구뿐만 아니라 절에도 결합하고, 해당 절(종속절)의 의미가 다른 절(주절)의 배경 제시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4장에서 언급한 복문 구성의 예를 참고하여, 배경표지가 결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서 설명해보고자 한다.

아래의 문장들은 종속절에 배경표지 {-xa}가 결합되는 경우로서, 일반적인 연결어미 중 동시 관계의 -sa, 계기 관계의 -sin, 인과관계의 -ipan 등에 배경표지가 결합하였다.

---

100) 화제-바탕-초점 표지의 정렬(또는 배분) 양상이 ‘능격 정렬’(ergative alignment)의 현상과 비슷하므로 ‘정렬’ 개념을 사용하였다. 참고로 주격-대격 언어(accusative languages)와 능격-절대격 언어(ergative language)에서의 A-S-P의 정렬 유형은 다음과 같다. (S:자동사의 주격 논항, A:agent, P:patient)

AS-P : 주격-대격 언어 (대격 정렬, accusative alignment)

A-SP : 능격-절대격 언어 (능격 정렬, ergative alignment)

- (30) Cafe-∅ uma-sa-x pank-∅-∅ ull-ta.  
 coffee-ACC drink-SUB-BG book-ACC-FOC read-1P  
 ‘커피-를 마시-고/며 책-을 읽었다.’
- (31) uta-r juta-sin-x samar-i-wa.  
 house-to come-SUB-BG rest-3P-FOC  
 ‘집-에 와-서 쉬었다.’
- (32) awki-naka-x jiw-ipan-x jaya marka-ru-w sar-i.  
 parent-PL-BG die-SUB-BG far city-to-FOC go-3P  
 ‘부모-들이 죽-자 먼 마을-로 갔다.’

하지만 위와 같은 연결어미에 의한 복문이 항상 배경표지 {-xa}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종속절이 배경으로서가 아니라 문장의 초점으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초점표지 {-wa}를 동반한다.

- (33) Pank-∅ **al-iri-w** sar-i.  
 book-ACC buy-SUB-FOC go-3P  
 ‘책-을 사-러 간다.’
- (34) Mariya-x lapis-∅ **ala-sa-w** jupa-r chur-i. (Hardman 2001: 213)  
 Maria-TOP pencil-ACC buy-SUB-FOC 3P-to give-3P  
 ‘마리아는 연필-을 사-서 그-에게 주었다.’
- (35) **sillp’ira-sin-∅** want’a-ya-ña.<sup>101)</sup>  
 peel-SUB-FOC dry-CAUS-NOM  
 ‘깎고 나서 말려야 해.’

이와 같이 아이마라어의 종속절은 주절의 배경으로 제시되는 경우와 주절의 초점으로 제시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주절의 배경으로 제시되는 경우 명사구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종속절에 배경표지 {-xa}가 결

---

101) Hardman(2001: 213)에서는 {-sina} 종속절에 초점표지 {-wa}가 붙을 수 없다고 기술하고, 그에 대한 가설로 증거법과의 관련성을 제시하였지만 잘못된 분석이다. 형태소 {-sina}는 실제로는 {-sin}으로 보아야 하고, 그래서 아이마라어의 음운 규칙에 의해 자음 뒤 환경에서 {-wa}가 변이형 -∅로 실현된 것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wa}가 생략되었다는 간접 증거로서 주절 서술어인 ‘want’a-ya-ña’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무양태를 표현하는 -ña 명사구는 초점표지 {-wa}를 동반하는데, 이 문장에서는 종속절에 초점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주절 서술어에 초점이 붙을 수 없다.

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단문에서도 배경표지 {-xa}가 쓰일 수 있다. 이 경우에 대해 Hardman(2001)에서는 단언문 표지(affirmative) 또는 연화사(attenuator)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는 주절의 생략 현상으로도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즉 배경표지 {-xa}가 붙은 종속절은 배경 제시의 역할을 하고, 그 배경을 전제로 하는 주절은 생략됨으로써 판단의 유보, 청자의 동의 요청 등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아래 예문의 영어 주석문이 'I will go. I guess, OK?'로 번역되었다고 추측된다. 한국어의 경우 배경 제시의 {-ㄴ데}나 확인의 {-지} 정도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36) 가. Naya-x sara:-xa. (Hardman 2001:171)

1P-TOP go-FUT-BG  
'나-는 갈 건데.'  
'I will go. I guess, OK?'

cf) Naya-x sara:-wa.

1P-TOP go-FUT-FOC  
'나-는 갈 것이다.'  
'I will go.'

(37) Chharmanti-x juma-x-y iskuyla-r jut-ta-xa. (Hardman 2001:171)

this.morning-TOP 2P-BG-ATN school-to come-2P-BG  
'오늘 아침-은 네-가 학교-에 왔지?'  
'This morning you came to school (right?).'

서론의 연구 방법론에서 언급했던 아래의 예문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는 주절인 '한국사람이에요'가 생략되지 않았다는 점이 위의 예들과 다르다.

(38) a. 재밌는 친구인데 한국사람이에요.

b. k'uchi masi-x Koreano-wa.  
happy friend-BG Korean-FOC.

다음으로 아이마라어의 종속절 중 상관관계절 구성의 예문을 보면서 종속절과 배경표지 {-xa}의 관계를 검토해보고자 한다.<sup>102)</sup> 관계절은 피수식 명사구(핵어명사구, head-noun)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초점을

받을 수가 없다. 초점을 부여하려면 피수식 명사구에 부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관계절은 항상 배경의 역할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관계절에 부여되는 {-xa}는 배경표지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 (39) Kuna aru-naka-ti-x aka uraqi-n utj-k-i-x uk-xat yati-ña-wa.  
 what language-PL-Q-BG this earth-at be-ASP-3P that-about know-NMZ-FOC  
 ‘무슨 언어-들-인가 이 땅-에 있는 그것-에 대해 알아야 한다.’  
 ‘Whatever language on this earth there be about that it is necessary to know.’
- (40) Nayrapacha-x jak-ka-ya:t-x marka-x Korea-wa.  
 before.time-BG like-REL-1P.PAST town-TOP Korea-FOC  
 ‘옛날 (내가) 살았던 나라는 한국이다.’

아이마라어의 {-xa} 관계절은 기본적으로 상관관계절로서 피수식어를 수식하는 기능이라기보다는 배경 제시의 기능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로 번역할 때에 아래와 같이 배경 제시의 형태소 {-L데}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다.

- (41) kunawsa-ti-x jawasa-ka-:n-x aka pampa-x wali suma-:n-wa.  
 when-REL-BG sow-REL-3P.PAST-BG this field-TOP very good-3P.PAST-FOC  
 ‘언젠가 파종했는데 이 들판-이 매우 좋았다.’
- (42) Paula-r mun-k-i-x jupa-x Mario-wa.  
 Paula-to want-REL-3P-BG he-TOP Mario-FOC  
 ‘빠울라-를 (그가) 좋아하는데 그-는 마리오이다.’
- (43) a. t'alpha laq' puraka-r mant-k-i-xa uka laqu-w jiwa-y-i.  
 Talpha worm stomach-to enter-REL-3P-BG that worm-FOC die-CAUS-3P  
 ‘talpha 벌레가 배-로 들어가는데, 그 벌레-가 죽인다.’  
 b. kha: jawira-n ma: jisk'a ch'iyar-ø uñicha-y-k-sma-xa uka  
 laq'u-w utj-i.  
 that river-in one small black-ACC look-CAUS-REL-1>2P-BG that  
 worm-FOC exist-3P  
 ‘그 강-에, 하나 작은 검은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벌레-가 있다.’
- (44) Mario-x lawa-mpi anu-r jawq'a-nt-k-i-x uka-x ch'ama-wa.  
 Mario-BG stick-with dog-DAT hit-into-REL-3P that-TOP hard-FOC

---

102) 아이마라어 상관관계절에 대해서는 4장에서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마리오-가 막대기-로 개-를 때렸는데 그것-은 단단하다.’

- (45) Naya-x marka-n jak-k-i-x uka-naka-ru-w ar-xat-ta.  
1P-TOP town-in live-REL-3P that-PL-to-FOC speak-up-1P  
‘나는 마을-에 (그들이) 사는데, 그-들-을 변호한다.’

이와 같이 상관관계절 유형의 문장을 번역할 때, 역지로 관형절 구조를 도입할 필요 없이, 한국어 어미 {-는데}를 사용하면 한국어 구조와 일치하므로 쉽게 이해된다.<sup>103)</sup> 즉 이러한 형태의 종속절의 기능은 배경 제시의 역할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앞서 다뤘던 정보구조 표지 {-xa}와 마주치게 된다. 즉 정보구조 표지로서 명사구가 ‘배경’임을 표시하는 {-xa}가 종속절의 서술어에 결합하면, 그 종속절을 ‘배경’으로 만들어준다. 이는 앞에서 {-xa}가 ‘배경표지’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입증해준다.

이 {-xa}를 처음에 잘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는, 기존 참조문법의 설명에 따라, 화제표지 {-는} 또는 관형절 표지 {-는}이나 연화사 {-요}로 보고 접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론에서 언급한 일화처럼, 한국어를 배운 아이마라인은 이 대응관계를 쉽게 포착할 수 있었다. 이 사례는 유사 유형의 언어를 대조 연구할 때, 또는 대조 연구를 통해 언어를 기술할 때, 자료제 공인과의 상호 학습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 6.6. 정리 및 요약

지금까지 한국어와 아이마라어 정보구조 표지가 큰 틀에서 동일한 기능을 하면서도, 몇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첫째, 한국어는 화제가 없는 제언문에서 화제 표지 {-는}이 나타날 수 없지만, 아이마라어는 제언문에서 화제 관련 표지 {-xa}가 쉽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아이마라어 {-xa}가 화제를 표시하기도 하지만 바탕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3) 상관관계절 유형으로 보고된 언어들에 한국어나 아이마라어처럼 논항 생략이 비교적 자유로운 언어라면, 어떤 언어든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관계절의 유형론을 다시 검토해볼 필요 있다.

둘째, 한국어 주격 중출문의 {-가}에 대응하는 아이마라어의 표지는 {-wa}뿐만 아니라 {-xa}도 가능하다. 동일한 담화문맥에서 두 언어의 동일 구조 문장을 대조하면, {-가}는 초점표지 {-wa}와 대응될 때 초점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가}가 {-xa}와 대응될 때는 바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가}는 화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화제에 해당하는 표지가 중출할 때에, 한국어 문장이 대조성을 띠는 반면 아이마라 문장은 절대로 대조성을 띠지 않는다. 아이마라어는 별도의 대조적 화제 표지 -sti가 쓰일 때만 대조성이 부여된다.

이 세 가지 구조적 차이점은 바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므로, 정보구조가 ‘화제-바탕-초점’의 삼분구조로 이루어짐을 입증해준다. 또한 이 삼분구조가 단순히 의미화용적 요소가 아니라 문법표지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아이마라어와 한국어의 정보구조 표지 의미지도를 상정하고 ‘정보구조 부각 언어’의 유형론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에 따르면 두 언어는 정보구조를 표현하는 형태소를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는데, 아이마라어는 화제-바탕 즉 배경을 하나의 형태소로 공유하는 ‘초점-배경 정렬’ 유형이고 한국어는 초점-바탕 즉 논평을 하나의 형태소로 공유하는 ‘화제-논평 정렬’ 유형이다.

이러한 논의는 단지 한국어와 아이마라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구조가 명확한 표지로 실현되는 ‘정보구조 부각 언어’의 유형론을 앞으로 확립해 나가는 데 좋은 기준이 될 것이다. 또한 유형론적 접근뿐만이 아니라 정보구조의 본질을 밝히는 연구에도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덧붙이면, 이 장의 마지막에서 아이마라어의 {-xa}가 화제와 바탕을 동시에 표시하는 ‘배경표지’라는 점의 증거로서 {-xa} 종속절의 배경 제시 기능을 들었다. 이러한 정보구조와 종속절 간의 관련성은 이 연구의 결론에 의미론적인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정보구조와 복합문 구성을 아우르는 문법현상의 인지적 기반을 설명하는 데 실마리가 될 가능성도 있겠다.



## 제7장 결론

### 7.1. 요약 및 향후 과제

지금까지, 아이마라어의 화제-바탕-초점이 형태적 표지 {-xa}와 {-wa}를 통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지를 분석하고, 한국어 정보구조 실현 방식과의 대조를 통한 유형론적 분류를 시도하였다. 본문에서 분석한 것처럼 아이마라어는 정보구조를 형태소를 통해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체계가 상당히 발달해 있으므로, 정보구조 연구에 가장 적합한 언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이마라어 정보구조의 특징을 밝히는 일은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정보구조의 실체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아이마라어가 정보구조와 관련하여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이유는, 문법 기술이 스페인어 또는 영어를 매개로 이루어지면서 정보구조를 표시하는 형태소들의 미묘한 특성들이 드러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 스페인어나 영어에는 아이마라어의 화제-초점 표지에 대응되는 문법 형태소가 없고, 대신 어순이나 강제 등의 비분절적 요소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보구조를 표현한다. 그러므로 해당 형태소를 분석하고 기술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정보구조처럼 화용적 요소가 강한 문법 범주의 경우라면 직관을 가지고 다루기 힘들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면이 있다.

이러한 난점은 아이마라어와 정보구조를 표현하는 체계가 유사한 언어, 즉 한국어와의 대조를 통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어에는 상당히 많은 문맥에서 아이마라어의 정보구조 표지 {-xa}, {-wa}에 대응되는 형태소인 {-는}, {-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두 언어의 해당 형태소가 지닌 기능과 분포를 직접 대조하는 방법을 통해, 각 형태소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드러냄으로써 더 구체적이고도 심층적인 접근이 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정보구조 부각 언어’의 새로운 유형론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화제-초점 부각’ 대신 ‘정보구조 부각’이란 용어를 도입한 이유는, 한국어와 아이마라어의 화제-초점 관련 표지가 단지 화제-초점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탕까지 유효적으로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보구조 부각 언어는 화제 관련 표지와 초점 관련 표지를 둘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 두 표지를 화제-바탕-초점의 세 영역에 배분하여 할당하는 언어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표지가 문장의 화제-바탕-초점의 세 영역에 결합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바탕을 두 표지 중 어떤 것으로 표시하느냐에 따라 ‘화제-논평 정렬’ 유형, ‘초점-전제 정렬’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어는 전자에 해당하고, 아이마라어는 후자에 해당한다. 나머지 하나의 경우로 바탕에 아무런 표지가 붙지 않는 언어, 즉 화제-바탕-초점 ‘삼분 체계’의 존재도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구분을 이용하면 한국어 {-가}의 성격을 새로운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 기존 논의 중 일부는 {-가}를 초점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고, 이 글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아이마라어와 대조한 것이다. 하지만 {-가}를 초점표지로 보고 접근할 때에는 {-가}가 초점이 아닌 경우가 많은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 연구가 제안한 유형론에 따르면, 한국어가 ‘화제-논평 정렬’ 유형이기 때문에 논평 내부 구조가 불투명하다는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즉 한국어는 {-가}가 초점에 붙기도 하지만 바탕에도 붙기 때문에 {-가}를 초점표지로만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어의 {-가}는 아이마라어 {-wa}와 기능상 의미 있는 비교가 가능하지만, 그 분포를 보면 아이마라어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이다. 아이마라어는 모든 초점 성분에 대해 이 표지가 결합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주어 위주의 성분에만 결합하는 분포상의 제약이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제안한 정보구조 형태 표지의 유형론을 한국어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이 연구가 지닌 또 하나의 한계점은 바탕 성분에 정보구조 표지가 붙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밝힐 수 없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아이마라어의 배경표지 {-xa}는 바탕 성분에 붙기도 하고 붙지 않기도 한다. 그런데 이 두 경우의 의미와 기능상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할 수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한국어도 초점이 아닌 바탕 성분에 {-가}가 수의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고 분석할 수 있는데, {-가}가 붙은 경우와 붙지 않는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는 명쾌하게 설명하기가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마라어와 한국어의 대조를 통해 정보구조 표시 실현의 유형론을 새롭게 제안한 의의가 퇴색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아이마라어가 보여주는 정보구조 문법 체계는 한국어와의 대조를 통해 그 특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한국어도 이 유형론 체계에 부분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 아쉬운 점은 한국어와 아이마라어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유형론적 일반화를 위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언어들에 대상으로 정보구조 표시의 다양한 실현 양상을 대조하고 종합하는 후속작업이 필요하다. 그러한 연구 성과가 축적된다면, 격조사와 정보구조의 상호 관련성이라든지 해당 문법 표시들의 역사적인 변화 또는 접촉사 등에 대한 연구도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 7.2. 제안

앞에서 보았듯이 아이마라어의 화제와 초점은 한국어의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더 자세하게 분석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 또한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이 가능하였다. 이런 접근은 한국어와 아이마라어가 각각 잘 기술되어 있다고만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두 언어를 동시에 이해하고 분석하여 대조할 수 있어야만 가능한 작업이다.

또한 세계의 여러 언어들에 살피는 일은 서양학자들이 기술하고 분석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즉 기존의 서양어 기반의 참조문법은 연구자가 가진 언어적 직관의 차이나 한계로 인해 빈약하게

기술된 문법범주가 상당히 많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경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기술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때 언어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이러한 한계를 보이는 세분화된 문법범주를 대상으로 깊게 연구할수록 좋을 것이다.

이 연구 사례를 고려한다면 한국의 언어학자들이 잘 기술할 수 있는 언어들이 더 많이 존재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존 연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기록언어학의 분야에 뛰어들어 해당 언어를 기술하는 일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이렇게 개별 언어를 새로 기술하는 일은 새로운 언어 유형을 찾아내는 일을 수반하므로, 언어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재정립하는 일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언어학 연구에 핵심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한국어와 아이마라어의 유형론적 유사성이 언어 분석에 도움이 된 이번 사례를 통해 언어기술 방법론에 하나의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는 학습 용이성과 관계된 것이다. 서론에서 보았듯이 아이마라어 화자는 한국어가 자신들의 모어와 구조가 유사한데다 잘 기술된 언어이기 때문에 학습 속도가 매우 빨랐다. 이들은 한국어 문법형태소의 설명이 정확하기만 하면 그에 해당하는 아이마라어 형태소를 손쉽게 찾아낼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 사실을 통해, 어떤 언어이든지 '잘 기술된 닳은 꼴 언어'만 있다면 상호 학습과정을 통해 문법 기술이 더욱 정교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소수 언어를 기술할 때 그 언어의 화자들 중에 한국어 연구자를 양성하는 일을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어가 아이마라어의 '잘 기술된 닳은 꼴 언어'로서 대조 방법론을 통해 개별 언어 기술과 분석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을 보였다. 한국어라는 훌륭한 자산을 가진 우리 언어학계가 조금만 더 시야를 넓힌다면 언어학 전반에 새롭게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석주 외(2000), 《정보구조와 문장 형식》, 月印. Lambrecht(1994):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Topic, focus,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 of the discourse referents*, Cambridge University 옮김.
- 고영근, 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권재일(2012), 《한국어 문법론》, 태학사.
- 김민국(2010), 핵어명사의 관계화 제약에 대한 연구, 《한국어학》 47호
- 김영근(1995), 관형절의 머리명사 제약, 《어문학》 53호.
- 김영희(1978), 격주어론, 《한글》 162, 한글학회, 39-75.
- 남기심(1985), 주어와 주제어, 《국어생활》 3, 국어연구소, 92-103.
- 남기심(1986), 서술절 설정은 타당한가, 《국어학 신연구》, 탑출판사.
- 남기심, 고영근(2011), 《표준국어문법론》 3판, 탑출판사.
- 두임림(2010), 주격 중출 구문의 정보구조적 분석, 《한국어 의미학》 31, 한국어 의미학회, 1-22.
- 목정수(1998), 한국어 격조사와 특수조사의 지위와 의미 -유형론적 접근-, 《언어학》 23, 한국언어학회, 47-78.
- 목정수(2005), 국어 이중주어 구문의 새로운 해석, 《언어학》 41, 한국언어학회, 75-99.
- 박순함(1971), 格文法理論의 輪廓, 《영어 영문학》 40, 한국영어영문학회, 45-55.
- 박승윤(1986), 담화의 기능상으로 본 국어의 주제, 《언어》 11-1, 한국언어학회, 1-15.
- 박철우(2003), 《한국어 정보구조에서의 화제와 초점》, 역락.
- 박철우(2005), 국어 총칭문의 의미 해석과 문장 구조 분석, 이정민 외, 《의미구조와 통사구조, 그리고 그 너머》, 132-146.
- 서정수(1971), 국어의 이중 주어 문제 변형 생성 문법적 분석, 《국어국문학》 52, 국어국문학회, 1-28.
- 신창순(1975), 국어의 주어문제 연구, 《문법연구》 2, 131-170.
- 신효필(1994), 한국어 관계절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우형식(1987), 국어의 관형절과 핵심명사, 《원우론집》 15-1.
- 연재훈(2011), 《한국어 구문유형론》, 태학사.
- 이만기, 황지희(2013), 아이마라어의 pro-drop과 Agree 이론, 2013년도 스페인어문학회 겨울학술대회 프로시딩, pp. 75-88.

- 이만기, 정승철(2013), pro-drop 현상에 대한 소고 - 아이마라어 동사의 인칭 굴절을 중심으로 -, 2014년도 언어학회 겨울학술대회 프로시딩, pp. 75-88.
- 이신형(2010), 화제-초점의 의미 기능과 텍스트 분석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필영(1990), 관계화,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주제별 국어학 연구사》, 동아출판사.
- 임동훈(2012), ‘은/는’과 종횡의 의미 관계, 《국어학》64, 국어학회, 217-271.
- 임흥빈(1972), 국어의 주제화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흥빈(1974), 주격 중출론을 찾아서, 《문법연구》1, 문법연구회, 111-148.
- 임흥빈(2007), 《한국어의 주제와 통사 분석》, 서울대학교출판부.
- 전영철(2006), 대조 화제와 대조 초점의 표지 ‘는’, 《한글》274, 한글학회, 171-200.
- 전영철(2009), ‘이/가’ 주제설에 대하여, 《담화와 인지》16, 담화·인지 언어학회, 217-238.
- 전영철(2013), 《한국어 명사구의 의미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정인상(1990), <주어>,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 채완(1976), 助詞‘는’의 意味, 《국어학》4, 국어학회, 93-113.
- 홍사만(1983/1986), 《국어특수조사론-의미 분석-》, 학문사.
- 홍용철(2005a), 특수조사 ‘는’에 대한 통합적 분석, 《생성문법연구》15-3, 한국생성문법학회, 1-43.
- Adelaar, W. and Muysken P.(2004), *The Languages of the And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macho(2010), *Information structure in indigenous languages of the Americas : syntactic approaches*, Walter de Gruyter.
- Chafe, W. L.(1976), Givenness, Contrastiveness, Definiteness, Subjects, Topics, and Point of View. In Li, C. N.(ed), *Subject and Topic*, Academic Press, 25-55.
- Chomsky, N.(1969), *Deep Structure, Surface Structure, and Semantic Interpretation, Semantics*, ed. Steinberg & Jakobovi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3-216.
- Comrie, B.(1989),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2nd e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ahl, Osten(1995), The Marking of the Epistemic/Generic Distinction in Tense-Aspect Systems, In G. Carlson and F. Pelletier (eds.), *The*

- Generic Book*,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412-426.
- Daneš, F.(1974), 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and the organization of the text. In F. Daneš (ed), papers on *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106-128.
- Dik, S. C.(1997). *The Theory of Functional Grammar, Part 1: The Structure of the Clause*. Berlin: Mouton de Gruyter.
- Dryer, M. S.(2005), Order of Relative Clause and Noun. In M. Haspelmath, M. S. Dryer, D. Gil & B. Comrie (Eds.), *The World Atlas of Language Structures* (pp.366-369).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Erteschik-shir, Nomie(2007), *Information Structure: The Syntax-Discourse Interface*, Oxford University Press.
- É. Kiss, Katalin(1987), *Configurationality in Hungarian*, Dordrecht: Reidel.
- É. Kiss, Katalin(1997), Discourse-configurationality in the languages of Europe, In: Siewierska, Anna (ed.), *Constituent order in the languages of Europe*, Berlin: Mouton.
- É. Kiss, Katalin(1998), Identificational focus versus information focus, *Language* 75.2.
- É. Kiss, Katalin(2001), Discourse configurationality. In Martin Haspelmath and Ekkehard König (eds), *Sprachtypologie und sprachliche Universalien. Ein internationales Handbuch*, 1442-1452. Berlin: Mouton de Gruyter.
- Firbas, J.(1962). Notes on the Function of the Sentence in the Act of Communication, *Journal of Studies of the Philosophical Faculty of the University of Brno Series A*, 10:133-48.
- Firbas, J.(1964), On Defining the Theme in 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Travaux linguistiques de Prague* 1:267-80.
- Firbas, J.(1974), Some Aspects of the Czechoslovak Approach to Problems of 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in F. Daneš(ed.), 11-37.
- Gundle, J. K.(1974), The Role of Topic and comment in linguistic Theory, Indiana University Ph.D. dissertation, reproduced in 1977 by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 Club.
- Gundle, J. K.(1988), Universals of Topic-Comment Structure. In Michael Hammond, Edith Moravcsik, and Jessica R. Wirth (eds). *Studies in Syntactic Typology*, 209-239. Amsterdam: John Benjamins.

- Gundel, J. K.(1999), On Different Kinds of Focus. In P. Bosch and R. van der Sandt eds. *Focu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13-127.
- Gundel, J. K.& T. Fretheim(2004), Topic and Focus, In L. Horn and G. Ward(eds.), *The Handbook of Pragmatics*, Blackwell, 175-196.
- Gussenhoven, C. (1984). *On the Grammar and Semantics of Sentence Accents*. Dordrecht: Foris.
- Halliday, Michael A. K.(1967), Notes on Transitivity and Theme in English. *Journal of Linguistics* 3. 199-244.
- Halliday, Michael A. K. (1985), Dimensions of Discourse Analysis: Grammar. In. Lyons, John(ed).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Volume 2. 29-56.
- Hardman, M., Vasquez, J. and Yapita, J.(2001), *Aymara: Compendio de Estructura Fonologica y Gramatical*, 2nd ed., ILCA.
- Hardman, M.(2001), *Aymara*, Lincom.
- Hockett, C. A.(1958),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Macmillan.
- Huanca, M.(2012), *Aymar Arux Akhamawa*, Infinity.
- Jackendoff, Ray.(1972),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Mass.
- Keenan, Edward L.(1985), Relative clauses, In Shopen, Timothy (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Complex constructions*. Vol. 2,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41-170.
- Koptjevskaja-Tamm, Maria(1993), *Nominalizations*. Oxford: Routledge.
- Kuno, S.(1972), 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a case study from Japanese and English, *Linguistic Inquiry* 3, 269-320.
- Kuno, S.(1987). *Functional Syntax, Anaphora, Discourse and Empath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uno, S. and K.-I. Takami (1993). *Grammar and Discourse Principles: Functional Syntax and Gb Theory. Left Periphery Dele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uroda, Sige-Yuki(1972), The categorial and the thetic judgment, *Foundations of Language* 9:153-185.
- Lambrecht, K.(1994),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Topic, Focus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s of Discourse Referen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e, Chungmin(1996), Generic Sentences are Topic Constructions. in T.



- Fretheim and J. Gundel eds. *Reference and Referent Accessibility*, 213-222, John Benjamins.
- Lee, Chungmin(1999), Contrastive Topic: A Locus of the Interface Evidence Form Korean and English. In Turner, K.(ed). *The Semantic/Pragmatics Interface from Different Points of View*. Elsevier Science Ltd.
- Lee, Chungmin(2003), Contrastive Topic and/or Contrastive Focus, *Japanese Korean Linguistics* 12, 352-364.
- Lee, Chungmin(2005), Contrastive Topic/Focus, Scalar Implicatures, Concessivity and Polarity, 《의미 구조와 통사 구조, 그리고 그 너머》, 29-60.
- Lee, Chung-min(2010), Information Structure in PA/SN or Descriptive/Metalinguistic Negation : With Reference to Scalar Implicatures, *Contrasting Meaning in Languages of the East and West*, 33-73.
- Li, C.N. and S.A. Thompson(1976), Subject and Topic: A New Typology of Language, *Subject and Topic* Li(ed.) 457-489.
- Muysken, Pieter(1994), Focus in Quechua. In: É. Kiss, Katalin (ed.), *Discourse-configurational languag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375-393.
- Noble(2007), *Introduction to Quechua*, 2nd ed., Dogear publishing.
- Ouhalla, Jamal(1994), Focus in standard Arabic, *Linguistics in Potsdam* 1: 65-92.
- Pollard, C. and I. A. Sag (1987). *Information-Based Syntax and Semantics, i: Fundamentals*. Stanford, Calif.: CSLI.
- Prince, E.(1986). On the Syntactic Marking of Presupposed Open Propositions. In A. Farley, P. Farley, and K.-E. McCullough (eds.) *Papers from the Parasession on Pragmatics and Grammatical Theory, 22nd Regional Meeting*. Chicago Linguistic Society: 208-22.
- Reinhart, T.(1982), Pragmatics and Linguistics: An Analysis of Sentence Topics, *Philosophica* 27, 53-94.
- Rooth, Mats(1996), Focus. In: Lappin, Shalom (ed.). *The handbook of contemporary semantic theory*. Oxford: Blackwell.
- Sag and J. Ginzburg (2000). *Interrogative Investigations: The Form, Meaning*

- and Use of English Interrogatives*. Stanford, Calif.: CSLI Publications.
- Sanchez, Liliana(2010), *The Morphology and syntax of topic and focus: minimalist inquiries in the Quechua periphery*, John Benjamins.
- Sasse, Hans-Jürgen(1987), The thetic/categorical distinction revisited, *Linguistics* 25: 511-580.
- Schmerling, S. F. (1973). Aspects of English Sentence Stres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 Song, Jae Jung.(1991), *Korean Relative Clause Constructions: Conspiracy and Pragmatics*. Australian Journal of Linguistics, 11: 195-220.
- Song Jae-Jung(2001), *Linguistic Typology*, Morphology and Syntax, Longman.
- Steedman, M.(2000). Information Structure and the Syntax-Phonology Interface. *Linguistic Inquiry* 31(4):649-89.
- Svolacchia, Marco & Mereu, Lunella & Puglielli, Annarita(1994), Aspects of discourse configurationality in Somali, In: É. Kiss, Katalin (ed.), *Discourse configurational languag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65-98.
- Tsimpli, Ianthi Maria(1995), Focussing in Modern Greek. In: E. Kiss, Katalin (ed.). *Discourse-configurational languag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76-206.
- Vallduví, Enric(1992), *The Informational Component*, New York: Garland Publishers.
- Vallduví, E. and E. Engdahl (1995). Information Packaging and Grammar Architecture. In J. N. Beckman (ed.) Proceedings of the North East Linguistic Society 25, University of Pennsylvania. Amherst: GLSA, 519-33.
- Van Valin, R. D. and R. J. LaPolla (1997). *Syntax: Structure, Meaning and Fun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elupillai, V.(2012), *An Introduction to Linguistic Typology*,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 Whaley, L.(1997), *Introduction to Typology*, SAGE Publications.
- Yapita, J(1991), *Curso de aymara paceno*. St. Andrews : Institute of Amerindian Studies, University of St. Andrews.

## Abstract

# Topic and Focus of Aymara

: typological approach based on the contrast  
with Korean information structure

Jung Seung-chul

Linguist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concentrates on a more exact description of the grammar of Aymara focusing specifically on information structure markers. Although Western researchers have long described the Aymara language, they lack an explanation of the structure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the Western languages. However, we can easily resolve these descriptive problems by comparing them with Korean grammar.

First, Aymara {-wa} is obviously a focus marker but its corresponding counterpart Korean {-ka} is not as clear. Korean {-ka} can appear repeatedly and has a distribution strictly limited to subject-like constituents. Second, Korean {-nun} is obviously a topic marker but its corresponding counterpart Aymara {-xa} does not only mark topic but also 'ground' which is neither topic nor focus. Aymara {-xa} can appear several times even inthetic sentences which do not have any topic.

Another point of this paper is that we can establish a new

sub-typology of information structure. Among languages which morphologically mark tripartite structure of 'topic-ground-focus', there are 'focus-background arrangement' types like Aymara, compared to 'topic-comment arrangement' types like Korean. In particular, it is a little strange that 'background' have morphological marking. However, in this study we observed the 'background marker' in Aymara and found evidence of it from its subordinate clause structure.

These issues are not properly addressed in the reference grammar or in previous research. Perhaps understanding these issues is difficult from a Western perspective. However, even though many problems still remain unsolved, I believe I have demonstrated that a large part can be solved using a comparative analysis with Korean.

This case has great significance on the fields of documentary linguistics. The typological similarity between Korean and Aymara was a great help in describing Aymara. In other words, any language can be described accurately in detail, as long as we use a 'well-described similar type' language when describing it. Hopefully, there will come a day when struggling languages like Aymara can share and utilize the wealth of resources in their 'well-described similar type' like Korean.

**keywords : information structure, topic, focus, ground, typology,  
aymara, background marker**

***Student Number : 2013-20033***